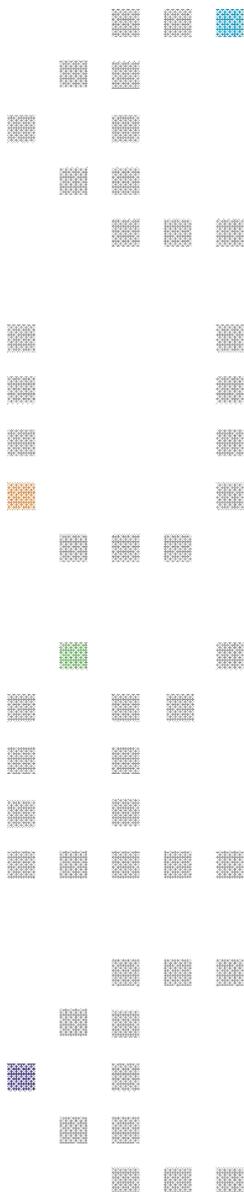


# 안산시 청년일자리의 실태분석 및 정책시사점 연구

2016. 12.



송 창 식 | 최 유 나 | 이 창 관



<b>제 1장 연구의 개요</b> .....	<b>1</b>
1. 연구개요 .....	3
2. 조사 개요 .....	7
<b>제 2장 안산시 청년 고용 및 정책 현황</b> .....	<b>9</b>
1. 전국 및 경기도 청년 고용 현황 .....	11
2. 안산시 경제현황 .....	22
3.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	31
<b>제 3장 안산시 응답 청년의 일반 특성</b> .....	<b>45</b>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47
2. 거주실태 분석 .....	53
3. 소비 실태 분석 .....	56
<b>제 4장 안산시 청년 구직 실태 분석</b> .....	<b>6</b>
1. 청년 구직활동 실태 .....	65
2. 청년 취업 경로 분석 .....	73
3. 청년 취업 요구 분석 .....	80
<b>제 5장 안산시 청년 근로실태 분석</b> .....	<b>101</b>
1. 근로 형태 .....	103
2. 근로 만족도 분석 .....	109
3. 일과 삶에 대한 인식 .....	118

**제 6장 정책 제언 ..... 123**

- 1. 종합요약 ..... 125
- 2. 미스매치(Mismatch) 현황 ..... 138
- 3. 안산시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146

**참고 문헌 ..... 155**

**부록.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설문지 ..... 157**

## [ 표 목 차 ]

표 1-1. 연구 추진 체계 .....	6
표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	48
표 3-2. 연령별 학력 특성 .....	49
표 3-3. 전공계열별 학력 특성 .....	51
표 3-4. 건강 상태 .....	52
표 3-5. 거주 실태 .....	53
표 3-6. 거주지 및 거주 이유 .....	54
표 3-7. 동거유형별 주택 유형 특성 .....	55
표 3-8. 월 평균 생활비 .....	57
표 3-9. 주요 소비 항목 .....	59
표 3-10. 주거비 지출 비중 .....	61
표 4-1.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	65
표 4-2.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기간 .....	67
표 4-3. 취업자의 취업 소요 기간 .....	68
표 4-4. 미취업자의 생활비 충당 방법 .....	72
표 4-5. 미취업자의 채용정보 획득 경로 .....	74
표 4-6. 취업자의 채용정보 획득 경로 .....	75
표 4-7. 미취업자의 채용 관심 정보 .....	77
표 4-8. 미취업자의 채용 관심 정보 .....	79
표 4-9. 미취업자의 취업 고려 조건 .....	81
표 4-10. 취업자의 취업 고려 조건 .....	84
표 4-11. 미취업자의 최소 희망 급여 .....	84
표 4-12. 취업자의 최소 희망 급여 .....	85
표 4-13. 미취업자의 전공지식 도움 정도 .....	87
표 4-14. 취업자의 전공지식 활용도 .....	88
표 4-15. 미취업자의 전공분야 취업 희망도 .....	89
표 4-16.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분야 .....	90
표 4-17. 미취업자의 취업지원 필요 분야 .....	91
표 4-18. 미취업자의 취업 구직 시 어려운 점 .....	93
표 4-19. 미취업자의 취업 애로사항 .....	95

표 4-20. 취업자의 취업 애로사항 .....	96
표 4-21.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개선 요구사항 .....	97
표 4-22. 취업자의 중소기업 개선 요구사항 .....	98
표 5-1. 취업자의 근무 형태 .....	103
표 5-2. 취업자의 평균 근무 시간 .....	104
표 5-3. 취업자의 근무 업종 .....	105
표 5-4. 취업자의 근무 지역 .....	106
표 5-5. 월 평균 임금 .....	108
표 5-6. 업무 만족도 .....	110
표 5-7. 취업자의 근무지 만족도 .....	111
표 5-8. 취업자의 이직 계획 .....	113
표 5-9. 취업자의 직장생활 애로사항 .....	115
표 5-10. 취업자의 직장생활 애로사항 .....	116
표 5-11. 업무와 생활 균형도 .....	118
표 5-12. 업무와 생활균형 노력도 .....	120
표 6-1. 성별 안산시 청년 취업 현황 .....	125
표 6-2. 연령별 안산시 청년 취업 현황 .....	126
표 6-3. 학력별 안산시 청년 취업 현황 .....	127
표 6-4. 전공별 안산시 청년 취업 현황 .....	129
표 6-5. 안산시 거주 이유 .....	129
표 6-6. 실제 급여와 희망급여의 미스매치 현황 .....	131
표 6-7. 안산시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	132
표 6-8. 안산시 노동시장 미스매치 요인분석 .....	138
표 6-9. 안산시 일자리 창출 중점사업 .....	139

## [ 그림 목 차 ]

그림 4-1. 구직활동 및 취업 소요 기간 .....	66
그림 4-2.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중단 이유 .....	70
그림 4-3. 취업 고려 조건 .....	80
그림 4-4. 최소 희망 급여 .....	83
그림 4-5. 미취업자의 전공지식 도움 정도 .....	86
그림 4-6. 취업 애로사항 .....	94
그림 4-7. 중소기업 취업 촉진 필요사항 .....	99



# 제1장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및 절차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개요

### 1.1. 배경 및 목적

#### □ 연구 배경

- 경제의 저성장 및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미스매치의 심화 등 지속되는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 취업난과 실업률은 심화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근로 환경의 격차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행 속에서 비정규직·다단계 하도급이 늘어나는 고용 구조의 문제가 심화됨
  - 1980년대 이후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기업 등 선망 일자리 취업 희망자는 2005년 80%, 2016년 70%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고학력자의 공급은 증가하는 데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체됨
- 안산시 청년 일자리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 부족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보유
- 노동시장에 대한 적기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적시적기에 청년 노동력 공급을 통해 개인 및 안산시 지역 경제 침체 등의 사회·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

#### □ 연구 목적

-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다각도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안산시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청년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자 안산시 성장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향후 방향을 제시함

## 1.2. 연구 범위

### □ 대상의 범위

- 안산시에 거주, 취업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청년 실업이 심화되어 청년들의 구직활동 기간이 늘어나고 입직 연령이 지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취업이 가능한 청년의 연령 범위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재정의함

### □ 시간적 범위

- 2015년부터 2016년 12월 16일(연구 조사 시점) 까지

### □ 내용적 범위

- 안산시 청년 고용 현황 분석: Big Data(공공·민간 자료)를 활용한 안산시 청년 고용 현황
  - 안산시 청년 일반 현황: 동별, 연령별, 성별, 학력별 등 청년층 규모
  - 안산시 청년 경제활동 현황: 직업, 산업, 임금,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창업, 사회적기업, 소비 실태 등
  - 안산시 청년 취업 및 유출입 현황: 고졸 및 대졸자의 취업현황, 이동경로 및 청년층의 외부 유출·유입 현황 등
- 항목 간(예, 학력-산업) 교차분석을 통한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파악
- 안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중앙정부, 경기도 및 타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현황 및 정책사례
  - 안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도출
  - 청년 일자리 정책 문제점 및 이슈 도출

---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나,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334호”에 따라 청년의 연령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함

- 청년층의 일반현황, 생활실태, 구직실태, 근로형태 및 지역인식 등의 다차원적 조사·분석
  - 안산시 청년의 일자리 인식과 구직 및 근로 실태 등을 지역, 연령별, 학력별 등 교차분석을 실시
- 안산시 여건에 부합되는 ‘안산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지역별, 산업단지별, 업종별(첨단제조업, 서비스업), 유형별(창업, 사회적기업 등), 구인(수요자)-구직(공급자)간 일자리 미스매치 등 근로실태에 대한 공간적 패턴 제시
  - 안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추진 현황, 문제점 파악 및 실태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방향 제시

### 1.3. 연구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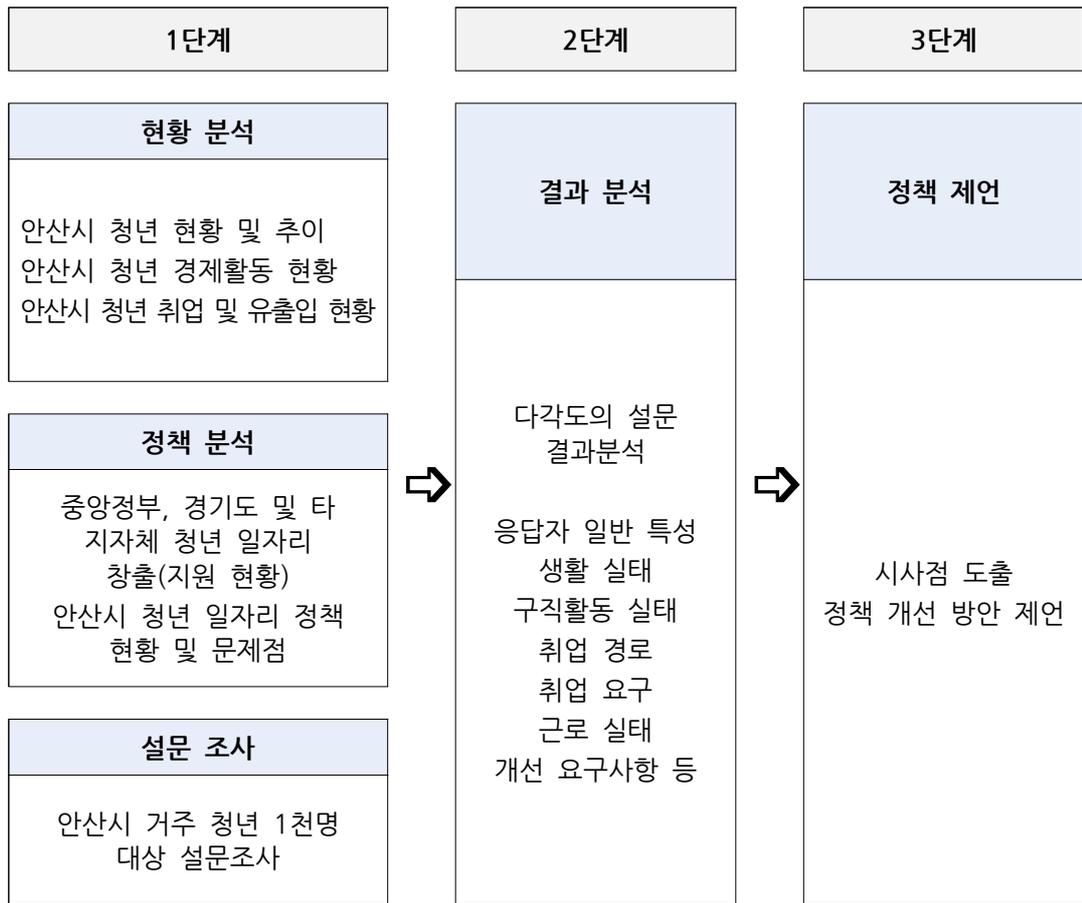
#### □ 연구 방법

- 문헌조사 연구: 공공 및 민간자료를 활용한 안산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데이터 분석: 국가 통계자료, 각종 조사자료 기반의 안산시 청년 고용 현황 분석
- 설문조사분석: 안산시 청년 1,000명 대상 면대면 개별 면접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사업 관계자 협의: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한 정책 제언 도출 및 사업 관계자 협의

#### □ 연구 절차

- 현황분석, 정책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의 종합 분석을 기반으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도출

표 1-1. 연구 추진 체계



#### 1.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청년층의 고용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안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도출
- 객관적인 조사분석 결과에 기반을 둔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
- 실태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점 파악을 통해 안산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
- 안산형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통한 사회, 경제적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

## 2. 조사 개요

### 2.1. 조사 설계

-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구직 및 업무활동, 청년일자리 인식에 대해 면대면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
  - 구직자(비 취업자)와 취업자의 표본은 각 50%로 설계
  - 안산시 상록구와 단원구 지역별 인구비례 표본설계를 통하여 결과의 대표성을 제고

표 1-2. 조사설계

조사 목적	안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및 타당성 확보
조사 기간	2016. 11. 18 ~ 11. 25
조사 대상	안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구직 및 취업 청년
유효 표본	유효표본 1,000개 이상 (구직자 500명 이상, 취업자 500명 이상)
표본추출방법	인구비례추출 (지역별: 상록구 518명 이상, 단원구 482명 이상)
조사 방법	1:1 면대면 개별 면접조사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일반현황 및 거주 현황</li> <li>- 응답자 생활실태 현황</li> <li>- 응답자의 구직활동 및 업무활동 현황</li> <li>- 응답자의 일자리 인식조사</li> <li>- 취업활성화를 위한 기타 의견</li> </ul>
분석 도구	엑셀 및 SPSS 12.0

## 2.2. 조사 내용

### □ 일반 현황

- 고용 실태: 고용형태, 직업, 직종분야, 임금, 창업, 취업활동 등
- 생활 실태: 생활여건, 소비실태 등

### □ 구직 실태

- 구직 활동 실태: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기간, 구직활동 중단 이유, 생활비 충당 방법 등
- 취업 경로 분석: 채용 정보 획득 경로, 취업 준비 분야, 취업 준비 활동 등
- 취업 요구 분석: 취업 고려조건, 최소 희망 급여, 전공 지식 활용, 전공분야 취업 희망도, 취업 희망 기업 분야, 취업 지원 필요 분야, 취업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등

### □ 근로 실태

- 근무 형태, 근무 시간, 근무 업종, 근무 지역, 평균 임금 등 근로 형태 분석
- 업무, 근무지 만족도, 이직 계획, 직장생활 및 직무 애로사항 등 근로 만족도 분석

### □ 일과 삶에 대한 인식

- 업무와 생활 균형도 및 노력도 등의 분석

## 제2장 안산시 청년 고용 및 정책 현황

1. 청년 고용 현황
2. 안산시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 제2장 안산시 청년 고용 및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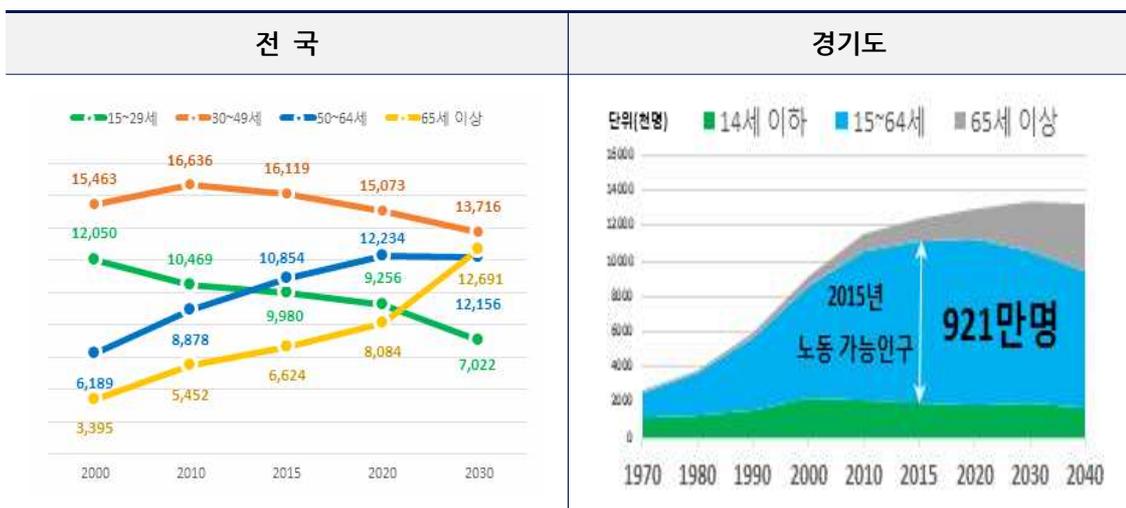
### 1. 전국 및 경기도 청년 고용 현황

#### □ 청년<sup>2)</sup> 인구 동향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15년 청년인구는 1990년 대비 76.1% 수준이며, 2030년 약 53.6%까지 감소를 전망
- 2015년 경기도 전체 인구는 1,240만 명으로 1970년 대비 약 370% 증가하였으며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 가능인구는 약 9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4.6%를 차지함
  - 통계청 경기도 장래인구 추정에 따르면, 경기도의 노동생산성은 2036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2-1. 연령별 청년 인구현황

(단위: 천명)



2) 기존 통계분석의 청년 범위는 국내 총 인구 중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인구를 말하고 있지만, 본 연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사이의 인구)의 정의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해석상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표 2-2. 연령별 인구현황 (전국 & 경기도)

(단위: 천명)

구분	전국		경기도			
	총인구	청년층	총인구	14세 이하	15~64세	65세 이상
2000	47,008	33,702	9,146	2,206	6,417	523
2010	49,410	35,983	11,576	2,079	8,491	1,006
2015	50,617	36,953	12,398	1,910	9,208	1,280
2020	51,435	36,563	12,928	1,903	9,394	1,631
2030	52,159	32,893	13,448	1,917	8,726	2,804

자료: 전국 및 경기도 장래 인구추계, 통계청(2016) 재편집

### □ 청년 실업자 및 실업률

- 2015년 전국 청년 실업자는 2014년 대비 약 0.2% 증가한 976천 명으로 약 3.6%의 실업률을 보임
  - 2015년 경기도 실업자 수는 2014년 보다 약 0.5% 상승한 262천 명으로 약 3.9%의 실업률을 보임
  - 전국과 경기도와 실업률은 경제상황에 따라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급증한 후 감소와 등락을 반복하다 2013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3. 청년층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 2015년 전국 청년 취업자는 25,936천 명으로 약 41.5%의 고용률을 보임
  -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청년 고용률은 반등하다 다시 감소한 후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경기도의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2015년 청년 취업자 수는 2011년 대비 약 9.1% 증가한 6,364천 명으로 고용률은 전국 41.5% 대비 높은 수준인 66.6%를 기록함

표 2-4.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단위: 천명, %)



## □ 청년 구인 및 구직 현황

- 구인과 구직자 수는 인구 증가에 따라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구인과 구직의 요구 수의 차이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구직 대비 구인 수의 비율은 2012년 68.3%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8.8% 하락한 59.5%의 매치율을 보임
  - 경기도의 2011년 구직 수 대비 구인 수의 비율 약 73.6%였으나 2015년에는 57.9%로 나타나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직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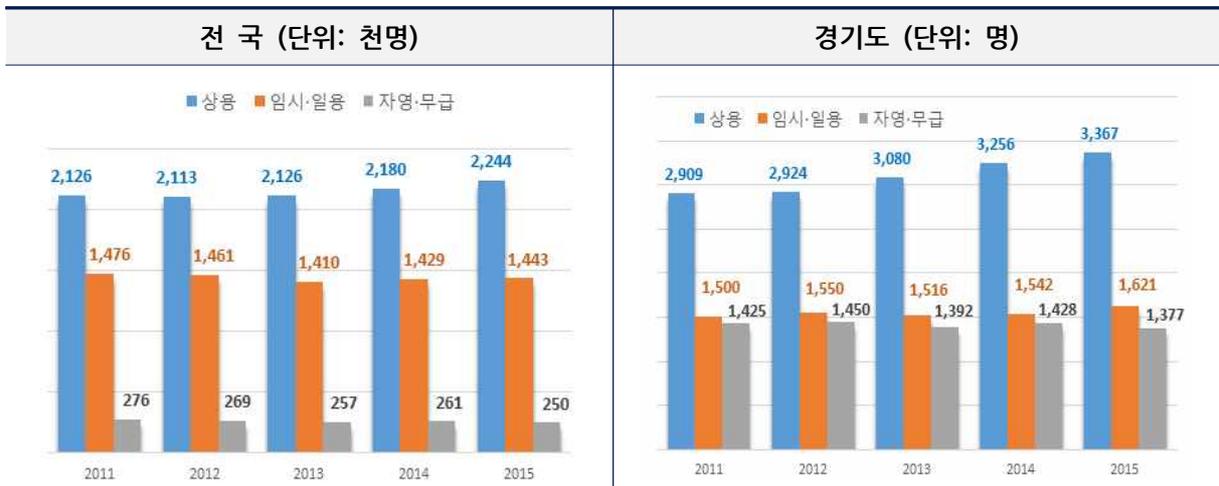
표 2-4. 청년층 구인 및 구직 현황 (단위: 천명, %)



□ 종사상 청년 취업자 현황

- 2015년 전국 청년 상용직은 2,244천 명(57.0%), 임시·일용직은 1,443천 명(36.7%), 자영업·무급 가족 종사자는 250천 명(6.3%)으로 나타남
  - 상용직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무급 종사자 비중은 감소
  - 10대 후반은 아르바이트 등 단기 취업의 비중이 많았으며,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상용직 비중이 68.6%까지 높아짐
- 2015년 경기도 청년의 정규직은 2011년 대비 15.7% 증가한 3,367명인데 비해 자영업·무급 근로자는 3.4% 감소한 1,377명으로 나타남

표 2-5. 종사상 지위별 청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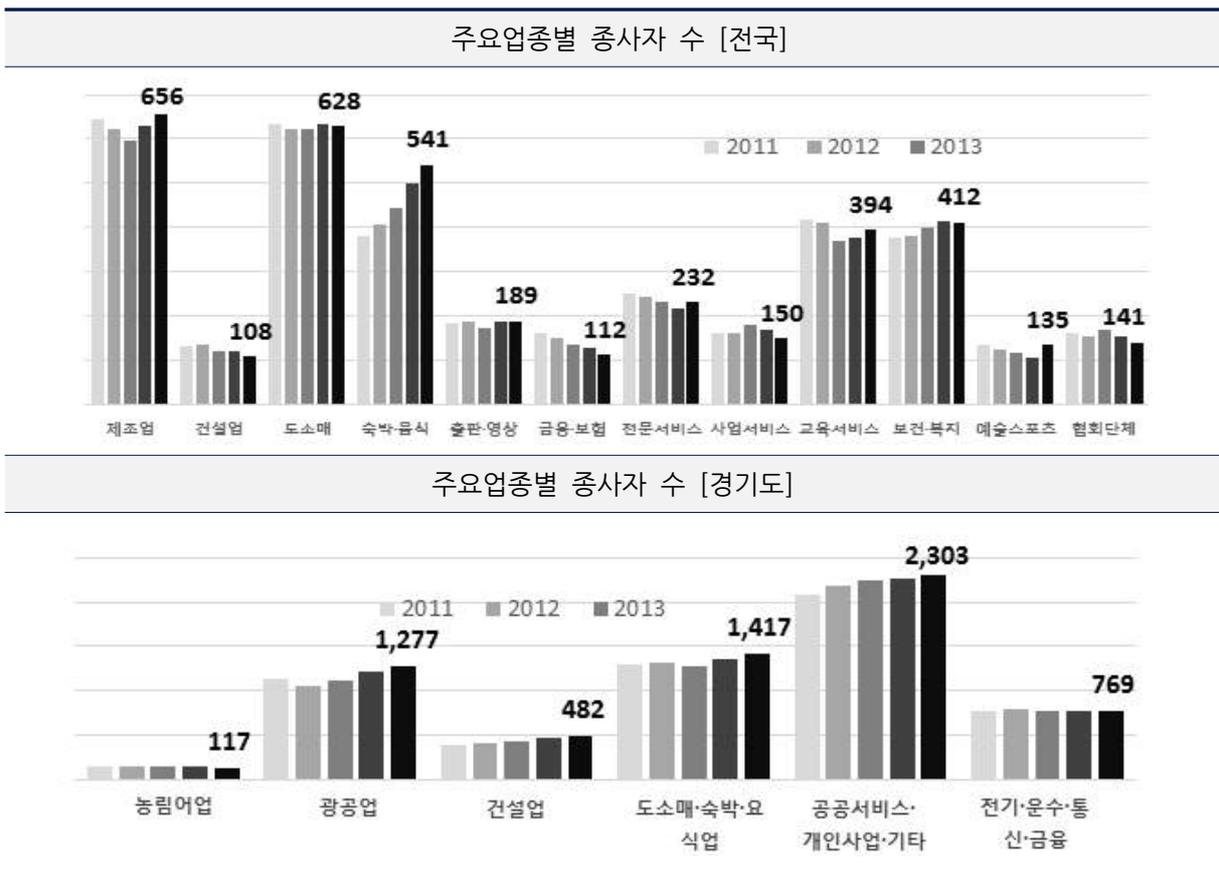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2016) 재편집

### □ 업종별 청년 취업 현황

- 2015년 전국 청년층 업종별 취업 현황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제조업은 2013년을 저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숙박음식, 보건 사회복지 분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금융보험, 건설업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5년 전국 청년층의 직종별 취업 현황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서비스 종사자 비중은 증가
- 2015년 경기도 청년층의 업종별 취업 현황은 제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공공서비스 및 개인사업,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순으로 나타남

표 2-6. 주요 업종별 청년 취업자

(단위: 천명(전국), 명(경기도))



자료: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2016) /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모습, 고용노동부(2016)

- 2013년 경기도의 지역총생산<sup>3)</sup>은 313.9조 원으로 서울(314.2조 원) 다음으로 큰 규모임
  - 2013년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사업체 수는 810,260개로 총 4,471,77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안산시 314,120개 기업에 51,948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음
  - 2014년 경기도 시군별 노동시장의 규모는 성남시(사업체 67,143개, 종사자 수: 401,483명)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사업체 51,948개, 종사자 수: 314,120명) 순으로 나타남
- 1970년 이래로 경기도 내 공공서비스 및 개인사업 규모가 가장 크며, 도소매업, 광공업, 전기 및 운수업의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경기도 내 공공서비스·개인사업·기타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2,3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숙박·요식업(1,417명), 광공업<sup>4)</sup>(1,277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2-7. 경기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천명, %)



자료: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모습(경기도), 고용노동부(2016) 재편집

3)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각 시·도 지역별 부가가치 생산액으로 해당 지역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중요 경제 지표

4) 광공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얻기 위해 지하자원을 캐내는 광업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공업을 말함.

## □ 전국 청년층 취업소요 기간

-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2011년 3,959천 명에서 2015년 3,860천 명으로 감소

표 2-8.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및 임금 근로자

(단위: 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4,094	4,028	3,918	3,895	4,000
임금근로자	3,959	3,898	3,814	3,777	3,860

자료 : 통계청, 청년층 및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각 연도 5월 기준)

- 청년층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1년 10개월에서 ’ 15년 11개월로 증가
  - 2015년 청년층은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취업자가 51.5%로 가장 많은데, 2011년 52.4%에서 감소하였고, 3-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도 2011년 14.1%에서 2015년 13.1%로 감소
  - 반면, 1-2년 사이 혹은 2-3년 사이에 취업하는 청년의 비중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각각 10.4%에서 11.6%로, 4.9%에서 6.3%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평균 첫 취업기간이 증가함

표 2-9. 청년층 첫 취업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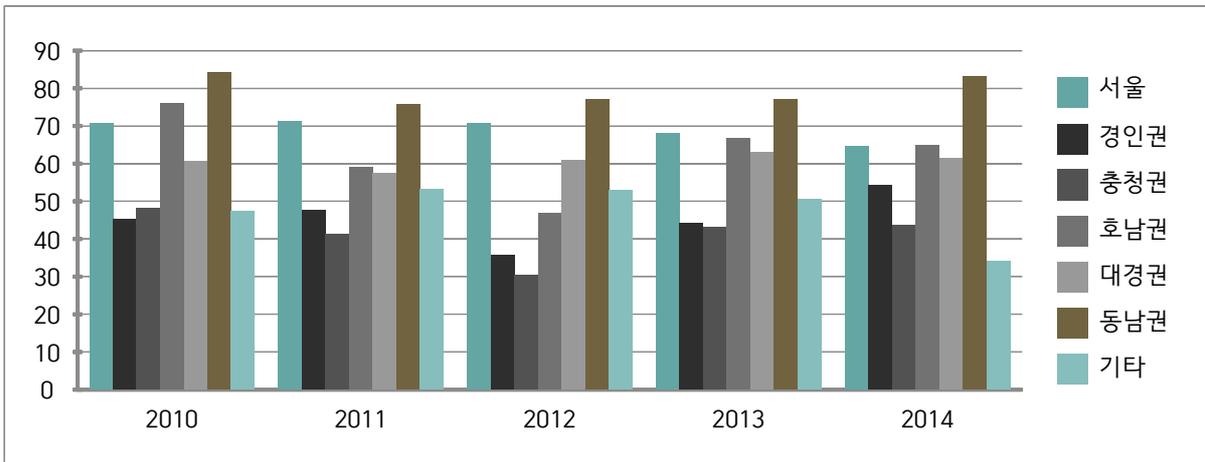
(단위: 천명, %)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첫 취업 소요기간	3개월 미만	2,073 (52.4)	2,040 (52.3)	1,948 (51.1)	1,922 (50.9)	1,987 (51.5)
	3-6개월	560 (14.1)	562 (14.4)	485 (12.7)	495 (13.1)	507 (13.1)
	6개월-1년	362 (9.1)	359 (9.2)	388 (10.2)	371 (9.8)	347 (9.0)
	1-2년	412 (10.4)	408 (10.5)	421 (11.0)	421 (11.1)	447 (11.6)
	2-3년	195 (4.9)	204 (5.2)	219 (5.7)	218 (5.8)	242 (6.3)
	3년 이상	357 (9.0)	325 (8.3)	355 (9.3)	350 (9.3)	329 (8.5)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개월)	10.9	10.5	11.4	11.6	11	

자료 : 통계청, 청년층 및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각 연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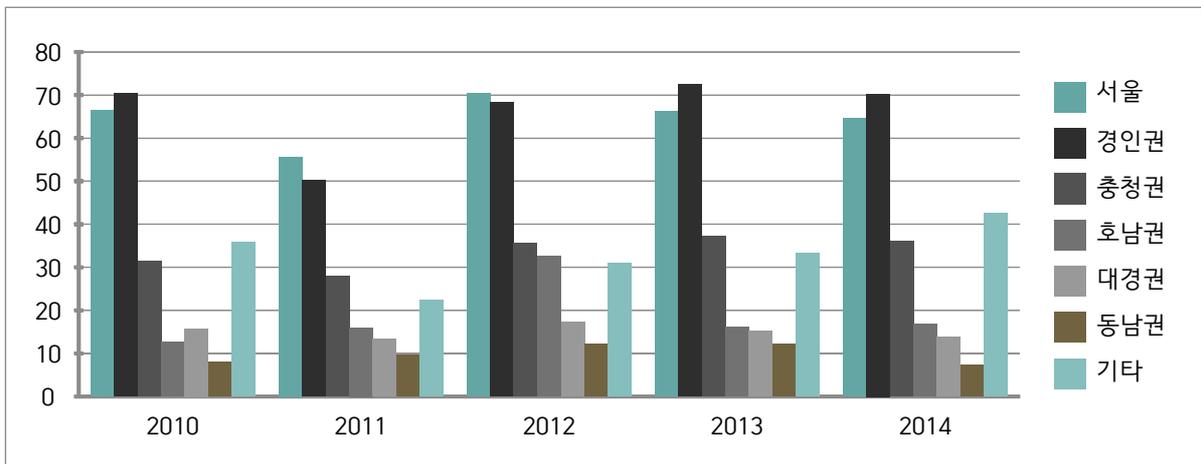
### □ 대졸자 권역별 청년 취업

- 대졸자의 역내 취업률은 동남권(부산, 구미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산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인권의 경우 2010년 45.1%에서 2014년 54.2%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대졸자의 경우 역내 취업을 하는 경우는 서울이 전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동남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인권의 경우 충청권과 기타 권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가장 낮은 역내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청년층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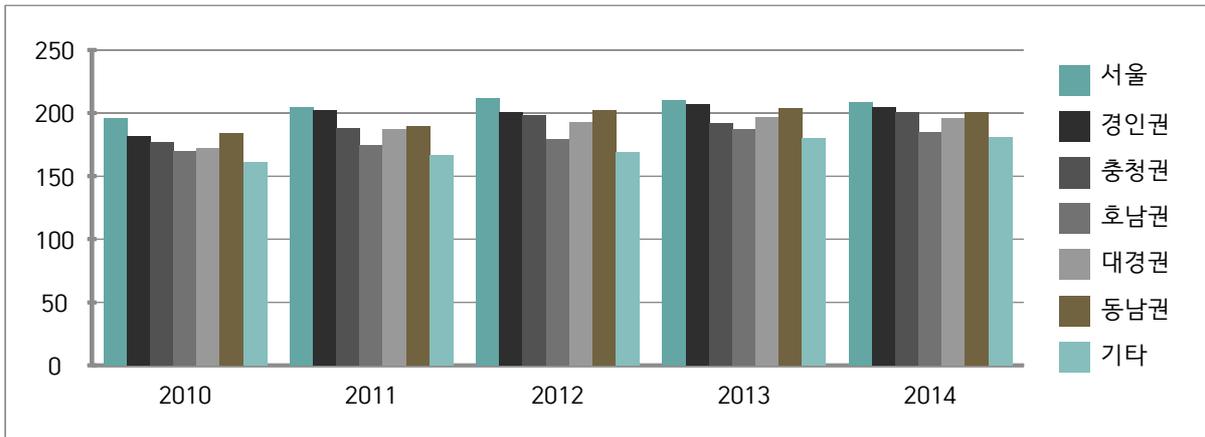
자료 : 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권역별 대졸자의 수도권 취업률은 경인권이 2014년 70.3%로 가장 높은 반면 동남권의 경우는 역외 유출이 가장 적으로 것으로 나타남
  - 경인권의 대졸자 청년층은 2010년 수도권 취업률이 70.4%에서 2014년 70.3%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타 권역에 비해 수도권 취업률이 높게 나타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대졸자의 직장 소재지별 월평균 임금은 서울이 가장 높고 안산시가 포함된 경인권도 높은 월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 2010년 대졸자 월평균 임금이 196만 원에서 2014년 209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인권 또한 2010년 182만 원에서 2014년 205만 원으로 증가함
  - 반면, 호남권이나 기타 권역은 월평균 임금이 2014년 현재 각각 185만 원, 181만 원으로 낮게 나타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 수도권은 역내 취업과 수도권 취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으나 동남권과 대경권은 둘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동남권은 역내 취업 시 임금 수준이 수도권 취업의 86.1%에 머물고 있으며, 대경권도 87.7%로 수도권에 비해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2-13. 역내- 수도권 대졸자 월 평균 임금(2011년~2014년)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4년제			2년제		
	역내 취업(a)	수도권 취업(b)	상대비 a/b*100	역내 취업(a)	수도권 취업(b)	상대비 a/b*100	역내 취업(a)	수도권 취업(b)	상대비 a/b*100
서울	230	231	99.5	244	245	99.6	171	173	98.9
경인권	186	185	100.4	210	211	99.6	172	167	102.5
충청권	180	191	94	183	196	93.3	174	168	103.3
호남권	175	194	90.2	179	204	88.1	168	173	97.3
대경권	184	210	87.7	195	221	88.3	170	187	90.7
동남권	189	219	86.1	200	225	88.7	172	193	89.5
기타	165	199	83	171	204	83.7	157	176	89.2

## □ 창업을 통한 취업

-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창업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의 수는 2,823개에서 2015년에는 4,986개로서 전체 창업 기업 수의 5.3%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창업 기업 수에서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동기간 동안 30-39세 사이의 연령대가 설립한 기업의 수는 2011년 15,842개(24.3%)에서 2015년 20,418개(21.8%)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임
  - 비록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였고, 또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체 창업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4. 연령별 창업 기업 수(2011년~2015년)

(단위: 개, %)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65,110	74,162	75,574	84,697	93,768
30세 미만	합계	2,823	3,510	3,644	3,885	4,986
	비중	4.3	4.7	4.8	4.6	5.3
	전년대비 증감률	9.4	24.3	3.8	6.6	28.3
30-39세	합계	15,842	17,538	17,677	18,921	20,418
	비중	24.3	23.6	23.4	22.3	21.8
	전년대비 증감률	2.9	10.7	0.7	7.1	7.9

자료: 중소기업청. 연간 신설법인 동향(2016.1)

-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우 또한 20대 청년층의 창업 비중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2011년 290개에서 2015년 482개로 청년층의 벤처기업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전체 벤처기업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1%에서 2015년 1.5%로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임

- 30대의 벤처기업 창업의 경우 비중 면에서는 20대에 비해 높은 편이나 창업기업의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척박해진 경제 환경을 대변하고 있음
  - 2011년 30대 벤처기업 창업은 4,800개로 2013년까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4년부터 창업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전체 벤처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1년 18.4%에서 2015년 15.9%로 줄어들어 경제 환경의 부정적 변화를 대변하고 있음

표 2-16. 대표자 연령대별 벤처기업 수(2011년~2015년)

(단위: 개, %)

벤처기업수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 누계	26,418	28,193	29,135	29,910	31,260
20대 이하	290 (1.1)	350 (1.2)	354 (1.2)	407 (1.4)	482 (1.5)
30대	4,800 (18.4)	5,133 (18.2)	5,188 (17.8)	4,970 (16.6)	4,956 (15.9)

자료: 중소기업청(2016.1)

## 2. 안산시 경제현황

### 2.1. 안산시 청년 일반 현황

#### □ 안산시 인구 동향

- 2016년 안산시의 거주인구는 690,783명으로 2011년 대비 약 3.5% 감소
- 지역별로 상록구는 376,264명(54.5%), 단원구는 314,519명(45.5%)이 거주
  - 2011년 대비 2016년 거주자의 감소폭은 단원구(약 6.0%, 20,187명)가 상록구(약 1.2%, 4,616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안산시 청년 인구 동향

- 2016년 안산시 청년인구는 2011년 대비 3.6% 감소한 176,434명으로 약 25.5%를 차지하며, 남성(53.2%)이 다소 많고, 연령별로는 20~24세(33.2%)가 가장 많음
  - 2011년 이후 청년 인구 비율은 증가하다가 2014년 25.8%를 정점으로 감소
  - 2016년 기준으로 상록구는 안산시 청년의 약 55.2%(97,410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단원구는 44.8%(79,024명) 거주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20세~24세의 청년 인구가 58,510명(33.2%)으로 가장 많았으며, 25세~29세 49,069명(27.8%), 30세~34세 47,234명(26.8%)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자 중 남성은 353,895명(51.2%)으로 여성(48.8%, 336,888명)보다 11,314명이 더 많음

표 2-17. 안산시 인구 추이 및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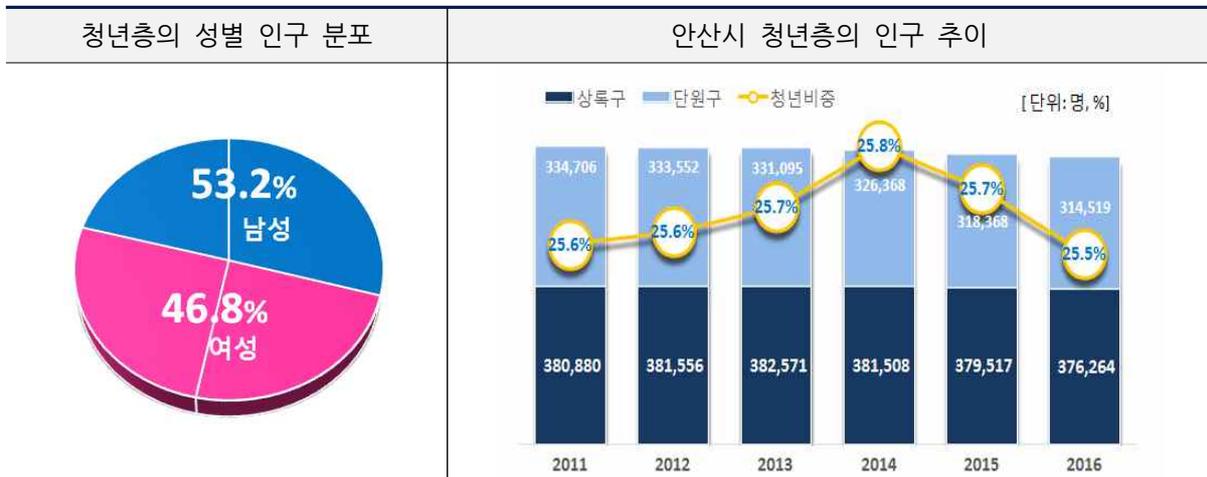


표 2-18. 안산시 구별 청년인구 현황(2011년~2016년)

(단위: 명)

구분	총 인구	지역	청년 인구	청년 인구 분포						
				소계	비율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2011	715,586	상록구	380,880	96,878	25.4%	6,645	26,754	26,552	30,875	6,052
		단원구	334,706	86,079	25.7%	5,673	23,404	24,135	27,523	5,344
2012	715,108	상록구	381,556	97,351	25.5%	6,555	28,750	25,433	30,519	6,094
		단원구	333,552	85,736	25.7%	5,543	24,874	22,758	27,333	5,228
2013	713,666	상록구	382,571	98,204	25.7%	6,599	30,344	24,985	30,666	5,610
		단원구	331,095	85,018	25.7%	5,607	25,418	22,245	26,904	4,844
2014	707,876	상록구	381,508	98,929	25.9%	6,581	31,564	25,414	29,328	6,042
		단원구	326,368	84,039	25.7%	5,522	26,155	21,914	25,238	5,210
2015	697,885	상록구	379,517	98,469	25.9%	6,301	32,623	25,880	27,519	6,146
		단원구	318,368	81,062	25.5%	5,062	26,290	21,579	22,895	5,236
2016*	690,783	상록구	376,264	97,410	25.9%	6,038	32,600	27,060	26,061	5,651
		단원구	314,519	79,024	25.1%	4,924	25,910	22,009	21,173	5,008

※ 안산시 청년인구: 기존 통계분석의 청년 범위(15세~29세)가 아닌 고용 및 이직을 원하는 노동가능인구인 만19세에서 34세로 범위를 확장

자료: 안산시 동별·연령별 인구현황, 안산시 예산과('11년~'12년), 자료 재편집

표 2-19. 안산시 구별 성별 인구(2016년)

(단위: 명, %)

성별	안산시 총인구				안산시 청년 인구			
	계	비율	상록구	단원구	계	비율	상록구	단원구
남성	353,895	51.2%	191,666	162,229	93,874	53.2%	51,668	42,206
여성	336,888	48.8%	184,598	152,290	82,560	46.8%	45,742	36,818

※ '16년 총 인구수는 11월 말 기준이며, '11년~'15년 안산시 인구는 12월 말 기준임

자료: 안산시 동별·연령별 인구현황, 안산시 예산과('11년~'12년), 자료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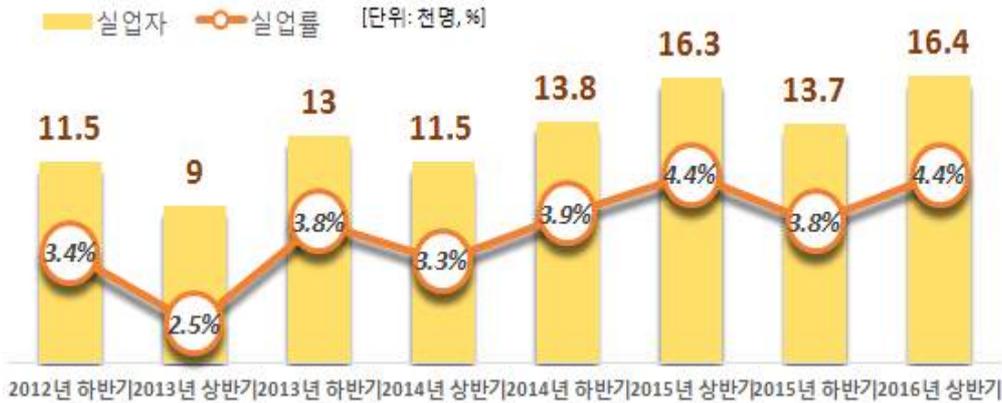
## 2.2. 안산시 경제활동 현황

### □ 안산시 실업자 및 실업률

- 안산시 실업자 수는 2013년 상반기 약 9천 명을 기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016년 약 16.4천명으로 실업률은 4.4%를 기록함

표 2-20. 안산시 실업자 및 실업률 (2016년)

(단위: 천명, %)



### □ 안산시 취업자 및 고용률

- 2016년 상반기 안산시 청년 취업자는 35.3만 명이고, 고용률은 59.7%임

표 2-21. 안산시 취업자 및 고용률 (2016년)

(단위: 천명, %)



### □ 안산시 연령별 취업자 수 현황

- 안산시의 총 취업자 중 청년(15-29세)층의 취업자 수와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3년 안산시의 청년 총 취업자 수는 53.0천 명에서 2015년 60.3천 명으로 증가하여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16.3%에서 2015년 17.5%로 증가하였음

- 반면, 65세 이상 취업자 수도 2013년 7.9천 명에서 2015년 10.9천 명으로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표 2-22. 안산시 연령별 취업자 수 현황(2013년~2015년)

(단위: 천명, %)

구 분	2013		2014		2015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합계	325.8	100	340.5	100	345.5	100
15~29세	53.0	16.3	57.0	16.7	60.3	17.5
30~49세	182.2	55.9	184.5	54.2	177.1	51.3
50~64세	82.7	25.4	89.9	26.4	97.1	28.1
65세이상	7.9	2.4	9.1	2.7	10.9	3.2

자료: 통계청 DB(KOSIS)

#### □ 안산시 성별 취업자 수 현황

- 안산시의 성별 총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취업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여성의 취업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13년 남성의 취업 비중은 64.1% 여성은 35.9%였던 반면에 2015년에는 남성은 60.7%, 여성은 39.3%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층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남성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13년 청년층 남성의 취업자 수는 28.2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취업자 수가 27.8천 명 8.0%로 감소함
  - 반면 청년층 여성의 경우 2013년 취업자 수가 24.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6%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32.6천 명 9.4%로 급격히 증가하여 여성 청년층 취업자가 남성 청년층 취업자 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년층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취업자 수와 비중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남성 노년층의 경우 2013년 6.2천 명으로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였고, 2015년에도 그 비중은 같으나 6.6천 명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여성 노년층의 경우에는 2013년 1.7천 명으로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4.3천 명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2-23. 안산시 성별 취업자 수 현황(2013-2015년)

(단위: 천명, %)

구 분		2013		2014		2015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남자	합계	209.0	64.1	212.5	62.4	209.7	60.7
	15~29세	28.2	8.7	27.8	8.2	27.8	8.0
	30~49세	119.9	36.8	120.4	35.4	113.6	32.9
	50~64세	54.8	16.8	58.6	17.2	61.8	17.9
	65세이상	6.2	1.9	5.8	1.7	6.6	1.9
여자	합계	116.8	35.9	128.0	37.6	135.8	39.3
	15~29세	24.8	7.6	29.2	8.6	32.6	9.4
	30~49세	62.3	19.1	64.2	18.9	63.6	18.4
	50~64세	27.9	8.6	31.2	9.2	35.3	10.2
	65세이상	1.7	0.5	3.3	1.0	4.3	1.2

자료: 통계청 DB(KOSIS)

## 2.3. 안산시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현황

### □ 안산시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 안산시의 총 비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262.8천 명에서 2015년 233.7천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안산시의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안산시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106.5천 명에서 2015년 88.6천 명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011년 86.9천 명에서 이후 줄어들다가 2015년에는 다시 86.0천 명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년층 여성과 노령인구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풀이됨

표 2-24. 안산시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현황(2011년~2015년)

(단위: 천명,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262.8	248.1	252.1	238.5	233.7
연령별	15~29세	106.5	95.4	97.5	92.6	88.6
	30~49세	69.5	66.3	69.8	61.8	59.1
	50세이상	86.9	86.4	84.9	84.1	86.0

자료: 통계청 DB(KOSIS)

## 2.4. 안산시 산업별 취업현황

### □ 안산시 지역내 총생산(GRDP) 추이

- 2010년 전국의 지역내 총생산은 1,265,15백억 원에서 2014년 1,484,54백억 원으로 증가하여 평균 3.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1인당 생산액 또한 2,561만 원에서 2,944만 원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 3.39%의 생산액 증가가 있었음
- 경기도의 경우는 전국보다 급격한 지역내 총생산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의 지역내 총생산은 2010년 266,56백만 원에서 2014년 329,45백억 원으로 연간 평균 6.95%의 생산액 증가가 있어 전국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인당 생산액 증가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은 2014년 현재 5.57%로 나타나고 있음

- 안산시 또한 지역내 총생산과 1인당 생산액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안산시의 지역내 총생산액은 1,826백억 원에서 2012년 2,084백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연간 약 6.86%의 지역내 총생산액의 증가를 의미함
  - 1인당 생산액 또한 2010년 2,582만 원에서 2012년 2,926만 원으로 연평균 6.49%의 1인당 생산액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총생산액의 경우 전국의 평균보다는 높고 경기도 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고, 반면 1인당 생산액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전국과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것을 의미함

표 2-25. 안산시 지역내 총생산 연도별 추이(2010년~2014년)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증감율 (%)('10~'14)
전국	GRDP(십억원)	1,265,146	1,330,888	1,377,041	1,430,255	1,484,542	3.83
	1인당 생산액(만원)	2,561	2,674	2,754	2,848	2,944	3.39
경기도	GRDP(십억원)	266,562	276,155	288,147	313,671	329,449	6.95
	1인당 생산액(만원)	2,303	2,339	2,408	2,584	2,683	5.57
안산시	GRDP(십억원)	18,263	19,076	20,844			6.86
	1인당 생산액(만원)	2,582	2,680	2,926			6.49

자료: 통계청 DB(KOSIS)

#### □ 안산시 산업별 취업자 현황

- 안산시는 반월·시화 등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타 업종에 비해 광공업의 취업자 비중이 높음
  - 안산시의 광공업 종사자 수는 2011년 98.8천 명에서 2014년 114.7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광공업 종사자 수는 2014년 현재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7%임
  - 건설업, 도소매업 등 타 업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4년 현재 산업별 취업자는 광공업이 33.7%로 114.7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가 28.5%인 97.2천 명,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8.9%인 64.5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이 9.9%인 33.7천 명 등으로 구성됨

표 2-26. 안산시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2011년~2014년)

(단위: 천명,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취업자 수	비중						
합 계	328.4	100	330.3	100	325.8	100	340.5	100
농업, 임업 및 어업	0.0	0	0.9	0.3	2.3	0.7	3.0	0.9
광공업	98.8	30.1	101.6	30.7	105.7	32.4	114.7	33.7
건설업	28.0	8.5	27.5	8.3	23.3	7.2	27.4	8.0
도소매·음식숙박업	67.5	20.6	64.8	19.6	64.4	19.8	64.5	18.9
전기·운수·통신·금융	29.1	8.8	37.3	11.3	38.6	11.8	33.7	9.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기타	105.1	32.0	98.3	29.8	91.5	28.1	97.2	28.5

### 2.3. 안산시 청년 취업 및 유출입 현황

#### □ 안산시 청년 고용 현황

- 2016년 상반기 안산시 시군별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비중은 18.1%로 전국 155개 시·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7. 청년층 취업자 비중 상·하위 지역

(단위: %)

구 분	상위 지역	청년 취업자 비중	하위 지역	청년 취업자 비중
(155개 시군)	경기 수원시	18	경북 봉화군	3.9
	충남 아산시	17.9	경남 합천군	4.1
	충남 천안시	17.3	경북 군위군	4.3
	경기 안양시	17.3	전남 고흥군	4.5

자료: 201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 통계청(2016)

#### □ 인구 유출입 현황

- 2015년 경기도의 순 전입 인구는 9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6.6% 증가하였으며, 서울에서 순전입 및 15~64세의 순전입이 가장 많음
  - 순 전입 인구는 14세 이하 10천명, 15~64세 72천명, 65세 이상 13천명 임

- 15세 이상 전체 통근 인구는 5,538천 명이며, 5,016천 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523천 명은 경기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기도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8. 경기도 이동인구 유·출입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인구 수	비중	비고
경기도 전체 통근 인구	5,538	100.0	
경기도 거주인구	5,016	90.6	
비경기도 근무	1,257	22.7	유 출
경기도 근무	3,758	67.9	
비경기도 거주 인구	523	9.4	유 입

- 근무지 및 거주지 기준, 취업자 상위 지역의 경우, 안산시는 근무지 기준 357천 명, 거주지 기준 353천 명, 두 기준의 차이 4천 명으로 경기도 155개 시군구 중 성남시 다음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표2-29. 근무지 및 거주지 기준 취업자 상위지역

(단위: 천명)

지역	근무지 기준(A)	거주지 기준(B)	차이 (A-B)	지역	근무지 기준(A)	거주지 기준(B)	차이 (A-B)
경기 성남시	510	503	7	경기 수원시	490	581	-91
경남 창원시	505	504	2	경남 창원시	505	504	2
경기 수원시	490	581	-91	경기 성남시	510	503	7
충북 청주시	408	428	-20	경기 고양시	375	493	-118
경기 화성시	390	299	91	경기 용인시	345	447	-101
경기 고양시	375	493	-118	충북 제천시	408	428	-20
경기 안산시	357	353	4	경기 부천시	325	416	-91
경기 용인시	345	447	-101	경기 안산시	357	353	4
경기 부천시	325	416	-91	충남 천안시	317	318	0
충남 천안시	317	318	0	경기 남양주시	214	310	-97

자료: 201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 통계청(2016)

### 3.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 3.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

##### □ 중앙 정부 지원 정책 현황 (2015년 기준 청년 정책 133개)

-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 선발, 전문가 멘토링 및 맞춤형 교육 훈련 등의 ‘글로벌 스펙 초월 취업 시스템’ (K-Move)을 구축하여 인재 양성 및 해외진출을 지원
  - 자치단체-지역대학-지역기업 등이 연계 추진하는 ‘우리 지역 키우는 창직사업’ 신설 및 창직 인턴제 등 청년 창직 활성화를 통한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 및 확대
  - 교원·경찰·소방·복지·고용 분야 일자리의 단계적 확대 및 청년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을 통한 공공 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 생애주기별, 단계별, 대상별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구직등록 - 취업 애로요인 진단 - 맞춤형 직업훈련 - 취업알선’에 이르는 생애주기·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개선, 확대하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강화함
  - 청년·중장년·여성·근로 빈곤층·장애인·체대군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 대상 NEET<sup>5)</sup>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패키지 강화
-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망 강화
  -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청년을 선발하여, 멘토의 도제식 멘토링 및 청년 인재은행 DB 등록 등을 통한 취업을 지원
  - 장기적으로 자격과 학위, 교육·훈련, 직무경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직업자격 체계(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를 구축

5)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무업자

-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청)의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정책을 통한 청년 고용난 해소 및 취업과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
  -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22개 중앙 행정기관(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합동 추진

표 2-30. 중앙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구분	지원 사업	주요 내용
고용 서비스 지원 사업	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분절된 취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통합 및 기능적 연계 원스톱 고용서비스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민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학생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설치
	취업 지원관 사업	대학 등에 취업전문인력 채용을 지원,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고용과 함께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 지급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 등 구인수요에 맞는 인재로 양성, 해외일자리 매칭 등을 통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제고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재학생을 중심으로 “진로탐색·미래유망산업 발굴, 기업체험,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2박 3일간 연수를 통하여 신성장, 신기술 유망 산업분야를 목표로 체계적인 취업준비지원
	강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의 강소기업 등에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업능력 향상을 지원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기업·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 청년고용 창출
	일학습병행제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 기반 학습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계와 공동으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일-교육-자격이 연계되는 실전·창의인재 양성모델 구축 지원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대기업/공공기관이 자체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교육훈련(직업훈련 및 인턴)을 실시하여 수료생에 대해 협력업체 등 우수기업 채용 및 창업 적극 지원
	NCS <sup>6)</sup> 기반 능력중심 채용	NCS 활용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능력중심 채용, 교육·훈련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자료: 고용노동부(2016)

6) 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채용·승진·임금 등)를 유도하는 기준

### □ 경기도 지원 정책 현황

- 2016년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 5조 6,227억 원 투입하여 총 179천 개(정부부문 167천 개, 민간 부문 4.7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2016년 경기도의 목표 고용률을 67.6%로 설정하고 노동가능 인구에 대한 일자리 목표를 2015년 대비 2.8% 증가한 6,543명으로 설정

표 2-31 2016년 경기도 일자리 창출 목표

(단위: %)

구 분	‘15년 일자리 실적		‘16년 일자리 목표	증감(률)
	목표	실적		
고용률 (15세-64세)	67.2	66.6	67.6	1%p(1.5%), 증
15세 이상	62.3	61.4	62.4	1%p(1.6%), 증
취업자 수(15세 이상)	6,425	6,364	6,543	179(2.8%), 증
상용근로자 수	3,442	3,367	3,498	131(3.9%), 증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615	2,639	2,794	155(5.9%), 증

자료: 2016년 경기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경기도청(2016)

- 경기도는 2016년 179천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고용 지원 6대 분야를 규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23개의 핵심 전략과제 제시
  -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주로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 고용복지 협업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 제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와 복지부의 복지센터를 결합하여 시행
  - 고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맞춤형 중소기업 종합지원 수행 및 따복공동체 등 사회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인 및 기업 생태조성을 지원
- 경기도는 타 부문의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 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포괄 간호서비스 확대 사업, 경기 청년문화창작소,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 지원, 사업취업 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별협약 보증 지원사업 등을 실행 중

표 2-32. 경기도 일자리 창출 비전 및 전략

비 전	23개 핵심 과제
목 표	일자리 70만개 창출 [2016년 179천개 창출]
6대 분야	23개 핵심 과제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및 대학 재학때 부터 취업 기회 제공</li> <li>• 여성경제활동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확대</li> <li>• 4050 재취업 지원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li> <li>• 질 좋은 경기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li> </ul>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일자리재단 설립</li> <li>•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확대</li> <li>•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li> <li>• 기능인 발굴, 기업맞춤지원</li> </ul>
고용 · 복지+ 협업을 통한 일자리 서비스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센터 운영내실화</li> <li>• 고용복지+센터 확대</li> <li>•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확대</li> <li>• 온라인커리어코칭 서비스 제공</li> </ul>
좋은 일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개선</li> <li>•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li> <li>•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등 개선</li> </ul>
NEXT 경기,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li> <li>• 맞춤형 중소기업 종합지원</li> <li>• 지식 · 기술 융합형 신산업 육성</li> <li>• 경기 북·동부 경제발전 기반조성</li> <li>•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li> </ul>
따복 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성장 사회적 기업 생태 조성</li> <li>• 사회적경제 기업인 역량 강화</li> <li>•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운영</li> </ul>

자료: 2016년 경기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경기도청(2016)

-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을 시행 중임
  - 청년 문화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 구축
  -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산단 내 근로환경(교통, 문화, 보육, 편의공간 등) 개선으로 청장년 일자리 유입 촉진
  -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인 경기 청년 뉴딜 사업에서 청년 구직자(대학, 특성화고 등 35세 미만)를 대상으로 밀착상담→취업지원→취업알선, 사후관리 하는 사업은 다른 유사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침
  -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60개사 인력채용컨설팅 실시



표 2-33. 2016년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분야	지원사업	주요 내용
고용 서비스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경기 청년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li> <li>• 개인별 역량평가에 기초한 취업역량강화 및 잡매칭 지원 사전 프로파일링 → 취업캠프 → 잡매칭 → 사후관리</li> </ul>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산업체에 고급 첨단 기술·기능인력 공급 및 경기도 일자리창출 기여</li> <li>• 교육훈련비 전액 도비 지원(교재, 실습비, 자격검정료 포함), 졸업생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li> </ul>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적인 현장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으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li> <li>•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빅데이터 재직자 과정 운영</li> </ul>
	고졸취업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경쟁력 배양</li> <li>• 취업 컨설팅 및 실무교육, 현장(직업)체험</li> </ul>
	대학생-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의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전공 관련 기업체 실습경험 제공, 기업은 우수인재 사전 확보를 통한 인력난 해소</li> <li>• 대학-기업 협약을 통해 하계방학 중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교육훈련비의 일부 지원</li> </ul>
	해양레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해상엔진 유지보수 기능인력 양성</li> <li>• 해양엔진 유지보수 교육 (2016. 5 ~ 11, 약 6개월)</li> </ul>
청년 창업 지원	굿모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외계층(소상공인)에게 무담보·저금리 소액대출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활·자립 및 가계안정 도모.</li> <li>• 무담보·저금리 소액대출 지원(창업자금 3천만 원 이내, 경영자금 2천만 원 이내)</li> </ul>
	예비창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G-베이스캠프)과 창업교육 및 교류·협업 및 네트워크 등 지원</li> <li>• 경험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교류·협업 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창업교육, 멘토링 등 프로그램 제공</li> </ul>
	창업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 가능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li> <li>• 시제품제작비, 기술·경영컨설팅, BI 입주비용, 창업 교육, 특허등록비용, 각종 전시회 참가비 등 지원(1기업 당 1,500만원 / 혁신형 기술 4,500만원 한도)</li> </ul>
	문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li> <li>•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단계를 거쳐 문화기획자로 양성하여 2017년 청년 문화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기획자로 활동하게 되는 순환구조 완성</li> </ul>

출처: 2016년 경기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경기도청(2016)

## □ 안산시 지원 정책 현황

- 2016년 안산시 일자리 목표는 24,620개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인구(15세-64세)의 고용률 63.2%를 설정

표 2-34. 2016년 안산시 일자리 창출 목표

(단위: %, 명)

구 분	'15년 일자리 실적		'16년 일자리 목표	증감(률)
	목표	실적		
고용률 (15세-64세)	62.2	62.3	63.2	0.9
15세 이상	58.3	58.3	59.2	0.9
취업자 수(15세 이상)	350,000	345,500	348,600	0.9
상용근로자 수	190,000	187,400	189,080	0.9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85,000	180,025	181,640	0.9

자료: 2016년 안산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안산시 내부자료(2016)

- 2016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과 협력 기반 일자리 mismatch 해소, 고용 창출 인프라 정비, 사회적 기업 육성, 연계서비스 강화 등의 지침을 수립
  - 지역 내 우량·강소기업과 협력을 통한 청년 한명 더 채용하기 및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활성화와 민간기업 고용촉진을 유도
  - 구인·구직자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 제고
  - 안산일자리센터의 ONE-STOP Total Care(취업 상담·알선) 서비스 제공
  - 접근성과 이용성 강화를 위한 25개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운영
  -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의 재생, 혁신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기반시설의 개선·확충 및 공간재편을 통한 청년 고용창출과 첨단산업 단지로 전환
  -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공동체 형성 및 따뜻한 복지 실현



-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및 허브 기능 수행을 위한 협동화 단지 구축
  - 내실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자리 추진
  - 지역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특화 자원 개발형, 서민생활 지원형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지원
  - 정보공유, 연계 취업 및 연계교육 활성화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일자리창출 분위기 활성화와 민간기업 고용촉진 유도를 위한 2016년 5대 추진 전략 수립

표 2-35. 2016년 안산시 일자리 창출 비전 및 전략

<b>비전</b>	<b>사람중심! 누구나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b>				
<b>목표</b>	<b>24,620개 일자리 창출·제공, 고용률 63.2% 달성</b>				
<b>추진 전략</b>	<b>직접일자리 창출</b>	<b>고용서비스</b>	<b>직업능력 개발훈련</b>	<b>일자리 인프라 구축</b>	<b>지역 유관기관 (창업지원)</b>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자립 도모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ONE-STOP 취업 서비스와 채용 박람회를 통한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교육으로 구직자(청년 등)의 역량을 강화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일자리 지원기반과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고용지원	창업지원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통한 일자리창출
	강소·우량기업 유치	(맞춤형)취업 박람회 개최	재취업 지원 교육	일자리정책 전담 부서 운영내실화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신 성장, 전략산업 및 산업단지	동행 면접을 통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계층별 단기특강 및 주제별 특강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운영
	구조 고도화 실현	청년 및 취업 애로 계층 취업 지원	여성능력개발교육 사회 여성기회 제공	안산일자리 센터 운영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강소기업 육성·지원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근로자교육	동 주민센터 취업 알선 창구 운영	공공일자리심의 위원회 운영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공공부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출처: 2016년 안산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안산시 내부자료(2016)

○ 안산시는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다음 10종의 세부 추진사업 추진하고 있음

표 2-37. 2016년 안산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업무

추진 사업		내 용	추진실적('15)
1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신규 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	3개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2	백화점·대형마트 업무협약	민·관 상호간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희망 일자리창출 업무협약(MOU)을 체결	9개개의 업무협약 체결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퇴직 전문 인력의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에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및 일자리창출	'16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4	계층별 인턴사업	청년층 미취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결혼 이민자 등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직무 역량 향상 기회 제공	채용(장기 32명/ 단기 12명) 취업캠프, 박람회, 특강
5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지역 맞춤형 사업(3개8) 청년-산단 패키지사업(2개9)
6	안산시 생활임금제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 추진으로 근로자의 최소생활 유지 및 건전한 경제발전 도모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통한 임금제 개선
7	공공근로사업	사회 취업취약계층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단계(389명), 2단계(358명) 3단계('16.091~12.21) 진행 중
8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방학 중 관내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사회경험 기회 제공하고 청년층의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	'15년 443건의 일자리제공 '16년 사업 진행 중
9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기업현장 체험기회 및 유망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	지원 사업자 5개소 선정 인턴,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
10	동 주민센터 특화사업	동 주민센터 특화사업을 발굴·추진을 통해 (사회적)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	19개동 주민센터의 64건의 관내 환경 개선 정비 사업

자료: 안산시 2016년 주요업무, 일자리창출과(2016)

7) 백화점, 대형마트 업무협약: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안산, 상록, 선부), 이마트(고잔, 트레이더스 안산), 홈플러스(안산, 고잔, 선부)

8)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반월·시화 원단검사 기업체를 위한 맞춤형 여성기능인력 양성 사업, 용접 기능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안산시 소규모사업장 맞춤형 인력지원서비스 '일드림' 사업.

9) 청년산업단지 패키지사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공동) 통근버스 운영 지원 사업

## 3.2. 정책 추진 현황

### □ 국내 정책 추진 현황

- 그간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실현을 위하여 고용률 70% 로드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함
  -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여성 고용가능 제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9.15 노사정 대타협) 노동시장 규범 명확화,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와 배려
- 이에 정부는 제79회 국가정책(국무총리 주재)에서 「노동시장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발표 (2016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 우리 경제와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자율적 실천과 상생고용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책 발표
  -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경직성·불공정성 개선, 상생고용을 위한 대·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 취약계층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채용관행 유도 등 고용구조 개선', '불법파견 등 집중단속',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 '청소년 권익보호 강화' 등을 추진,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등

### □ 안산시 시책 추진 현황

- 2016년 청년일자리 정책은 '1기업 청년 1명 더 채용하기', '지역 내 청년 우선 채용'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함
  - 1기업 청년 1명 더 채용하기(1社 1+ 청년 희망 취업박람회 등)
  - 지역 내 청년 우선 채용
  - 919 취업박람회, 청년층 전용 채용행사(목요일에 희망 잡(job) 고(go) 등)
  - 청년큐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상담센터 등

### 3.3. 정책 문제점

- (선진국 대비 낮은 청년 고용률) 노동 인구의 고용률은 OECD 평균 수준이  
나,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과 약 10% 차이를 보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  
나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노동 손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8. OECD 고용구조 주요 지표

구 분	측정값	순위	OECD 평균
노동 인구	3,684만 명	9위/34개국	5,741만 명
경제활동참가율	67.8%	27위/34개국	73.1%
고용률 (15~64세)	65.3%	20위/34개국	66.9%
여성	54.9%	27위/34개국	61.1%
청년고용률	40.7%	29위/34개국	50.4%
실업률(15~64세)	3.7%	33위/34개국	8.6%

자료: 출처: OECD. STATS(2015)

- (고용 안전성) 대기업 정규직 부문과 그에 대비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  
문<sup>10)</sup>의 임금격차 및 근속연수 등 고용 안정성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임

표 2-39. 2016년 고용 안전성 차이

추진 사업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수준	100%	64.2%	52.3%	34.6%
평균 근속기간	10년 2개월	-	-	4년 4개월

- (고용 지속성 저하) 우선 대응적인 사업 추진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청년 고용률의 지속성 및 연결성은 저하됨
  - 청년고용 대책은 투입 재정 대비 고용 유지율이나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
  - 기업에서 요구하는 고용 조건과의 차이 등으로 1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은 약 35%임

10) 국내 노동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임금수준과 근로조건 직항안정성을 갖춘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그와 대비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으로 구분



-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정규직 고용 확률은 64.3%로 미 참여 청년에 비해 오히려 1.1%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참여한 청년 10만 5244명의 정규직 전환은 76.2%로 높지만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후 36.7%의 고용만이 유지됨
  - 청년인턴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계획과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로 인한 청년 일자리 유지에 대한 지속성 저하
- (근로조건 개선) 해당분야의 높은 역량을 가진 경력직 근로자의 육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로 조건의 개선 필요
-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26개국 중 3번째이며, 독일 대비 725시간이 더 많았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산정된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sup>11)</sup>은 5.6년으로 통계가 발표되는 25개국 중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 분배 개선)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OECD 국가 등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 및 신입 노동력의 임금 불평등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한 이중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평균 대비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과 소득 5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를 분석을 통한 배분의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분배지표의 분석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력 및 신입 노동력에 대한 소득 불평등의 개선사항이 도출 되었지만 학력에 대한 임금별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1) 근속시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이며, 현재의 사용자에게 고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표 2-40. OECD 분배지표

구 분	대한민국	순위	OECD 평균
저임금근로자 비중 <sup>12)</sup>	24.7%	2위/34개국	16.1%
소득 5분위 배율 <sup>13)</sup>	5.5배	11위/34개국	5.2배
지니계수 <sup>14)</sup>	0.307	13위/34개국	0.3080
학력별 임금차이	12	32위/34개국	22
고용탄성치 <sup>15)</sup>	0.6	13위/34개국	0.6

- 특히, 한·일의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근로조건의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남

표 2-41. 한일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GNI 대비 임금 비교(2014년)

(단위: 배)

자동차		정유		조선		금융		철강		공공	
(한국) ○○차	도요타	(한국) ○○사	JX 홀딩스	(한국) ○○중공 업	미쓰비시 중공업	(한국) ○○은행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한국) ○○제철	신일 철주금	(한국) ○○공 사	도시재 생기구
3.40	1.79	2.94	2.61	2.64	1.74	2.94	2.36	3.05	1.28	2.31	1.82

자료1 :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 발표

자료2 : 전자공시시스템, (일본) <http://nensyu-labo.com>

- (해외 취업 지원의 현실성 저하) 케이무브(K-Move)의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일부 국가의 기본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호주, 캐나다, 일본에 취업자를 제외한 청년의 수령 임금은 해당국의 기본생계비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내 노동시장구조의 불균형) 경기도는 서울 취업자의 유출이 많은 서울 의존지역과 산업단지 및 대기업 수가 많아 구인난이 심각한 구인 부족

12) 저임금근로자 비중: 중위임금(Median)의 2/3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며, 전일제(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13) 소득 5분위 배율: OECD는 소득분배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1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눈 후 구간별 평균소득에 대한 배율을 지표

14) 지니계수: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함

15) '고용탄성치'는 경제(실질GDP)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몇 % 증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분모인 경제성장률이 감소한 경우 탄력성을 설명할 수 없으며, 성장률이 '0'에 가까울수록 고용탄성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성향도 있으므로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감률 지표를 동시 고려한 해석이 필요

노동시장이 다수 존재하여 도내 구인·구직의 미스매치 발생 등 노동 시장 구조의 불균형이 존재

- 평택시, 시흥시, 이천시 등은 구인보다 구직이 적어 심각한 구인난이 발생
- 경기도 내 100~200만 원 미만의 임금 구간에서 미스매치가 낮게 나타났으나, 200만 원 이상 임금 구간은 지역 내 구인보다 구직자가 많아 타 지역의 취업이 많이 발생
- 경기도 내 고졸과 전문대졸업자는 미스매치가 최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청년 고용은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만 높은 수급을 보임



# 제3장 안산시 응답 청년의 일반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2. 거주실태 분석
3. 소비 실태 분석



## 제3장 안산시 응답 청년의 일반 특성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1.1. 일반적 특성

- 응답 청년은 미취업자 500명, 취업자 500명, 총 1,000명이고,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 48.3%(483명), 여성 51.7%(517명)으로 여성이 3.4% 많았는데, 미취업자의 여성 비중(51.0%) 보다 취업자의 여성 비중이 52.4%(262명)이 다소 높음
- 연령별로는 ‘20~25세’ (55.2%)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미취업자의 68.4%가 ‘20~25세’ 이고, 취업자의 58%가 26세 이상으로 25세 이하의 저 연령대 취업 기회의 확대 필요
  - 연령별로는 ‘20~25세’ 55.2%(552명), ‘26~30세’ 35.2%(352명), ‘31~35세’ 9.6%(96명) 순임
  - 미취업자는 대부분 ‘20~25세’ (68.4%)이고, 그 뒤로 ‘26~30세’ (28.2%), ‘31~35세’ (0.6%) 순임
  - 취업자는 ‘25~30세’ (42.2%), ‘20~25세’ (42.0%), ‘30~35세’ (15.8%) 등의 순임
- 학력별로는 ‘고졸’ (43.8%)와 ‘4년제 대학 졸업’ (37.6%)이 81.4%를 차지하는데, 미취업자는 ‘고졸’ (52.6%), 취업자는 ‘4년제 대학 졸업’ (42.4%)이 가장 많아 고학력일수록 취업자의 비중이 높았음
  - 학력별로는 고졸자 43.8%(438명), 4년제 대학 졸업자 37.6%(376명), 전문대 졸업자 15.9%(159명), 대학원 졸업자 2.1%(21명), 고졸 미만 0.6% 순임
  - 미취업자는 ‘고졸’ (52.6%)이 절반 이상이었고, 그 뒤로 ‘4년제 대학

졸업(33.9%), '전문대학 졸업'(11.4%), '대학원 졸업 이상'(1.6%), '고졸 미만'(0.6%) 등의 순임

- 취업자는 '4년제 대학졸업'(42.4%), '고교졸업'(35.0%), '전문대학 졸업'(20.4%), '대학원 졸업'(2.6%), '고졸 미만'(0.6%) 등의 순임

○ 전공별로는 '인문사회'(35.6%)와 '공학'(25.4%)이 61%를 차지하는데,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공분야는 '자연과학', '보건의료', '예체능' 등이며, '인문사회', '공학', '교육' 전공자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음

- 전공별로는 인문사회 35.6%(356명), 공학 25.4%(254명), 예체능 12.9%(129명), 자연과학 11.4%(114명), 보건의료 5.7%(57명), 교육 4.0%(40명) 등의 순임

표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계		미취업자		취업자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계		1,000	100%	500	100%	1,000	100%
성별	남성	483	48.3%	245	49.0%	238	47.6%
	여성	517	51.7%	255	51.0%	262	52.4%
연령	20세~25세	552	55.2%	342	68.4%	210	42.0%
	26세~30세	352	35.2%	141	28.2%	211	42.2%
	31세~35세	96	9.6%	17	3.4%	79	15.8%
학력	고졸 미만	6	0.6%	3	0.6%	3	0.6%
	고등학교 졸업	438	43.8%	263	52.6%	175	35.0%
	전문대학 졸업	159	15.9%	57	11.4%	102	20.4%
	4년제 대학 졸업	376	37.6%	169	33.8%	207	41.4%
	대학원 졸업 이상	21	2.1%	8	1.6%	13	2.6%
전공	인문사회	356	35.6%	206	41.2%	150	30.0%
	자연과학	114	11.4%	49	9.8%	65	13.0%
	공학	254	25.4%	132	26.4%	122	24.4%
	보건의료	57	5.7%	22	4.4%	35	7.0%
	교육	40	4.0%	23	4.6%	17	3.4%
	예체능	129	12.9%	52	10.4%	77	15.4%
	기타	50	5.0%	16	3.2%	34	6.8%

## 1.2. 학력 특성

### □ 연령별 학력 특성

- 응답자 중 25세 이하는 총 552명으로 가장 많고 이들의 학력별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 64.3%, 4년제 대학 졸업 20.8%, 전문대학 졸업 13.9% 등의 순인데, 고교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미취업자의 비중이 더 높음
- 26세~30세 총 352명의 학력별 분포는 4년제 대학 졸업자 57.4%, 고등학교 졸업자 20.2%, 전문대학 졸업자 19.3%, 대학원 졸업 이상자 2.8%, 고졸 미만 0.3% 등의 순인데, 이 중 취업자(211명)가 미취업자(141명)보다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취업자가 더 많았음
- 31세~35세의 경우 총 96명 중 79명이 취업자이고,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자 61.5%, 전문대학 졸업자 14.6%, 고교 졸업자 12.5%, 대학원 졸업 이상자 11.5%의 순인데,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더 많음

표 3-2. 연령별 학력 특성

(단위: 명, %)

구분	고교 졸업 미만		고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총합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계	6	0.6%	438	43.8%	159	15.9%	376	37.6%	21	2.1%	1,000	100%
20~25	5	0.9%	355	64.3%	77	13.9%	115	20.8%	0	0.0%	552	100%
26~30	1	0.3%	71	20.2%	68	19.3%	202	57.4%	10	2.8%	352	100%
31~35	0	0.0%	12	12.5%	14	14.6%	59	61.5%	11	11.5%	96	100%
미취업자	3	0.6%	263	52.6%	57	11.4%	169	33.8%	8	1.6%	500	100%
20~25	2	0.6%	229	67.0%	38	11.1%	73	21.3%		0.0%	342	100%
26~30	1	0.7%	33	23.4%	16	11.3%	85	60.3%	6	4.3%	141	100%
31~35		0.0%	1	5.9%	3	17.6%	11	64.7%	2	11.8%	17	100%
취업자	3	0.6%	175	35.0%	102	20.4%	207	41.4%	13	2.6%	500	100%
20~25	3	1.4%	126	60.0%	39	18.6%	42	20.0%		0.0%	210	100%
26~30		0.0%	38	18.0%	52	24.6%	117	55.5%	4	1.9%	211	100%
31~35		0.0%	11	13.9%	11	13.9%	48	60.8%	9	11.4%	79	100%

## □ 전공계열별 학력 특성

- 인문사회 전공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외 전 학력별 미 취업자가 더 많고, 공학, 예체능, 자연과학, 보건의료 전공자는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더 많았는데, 교육 전공자는 고학력의 특성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미취업자가 더 많았음
  - 가장 높은 비중의 인문사회 전공자 356명은 고교졸업자 46.1%, 4년제 대학 졸업자 43.0%, 전문대 졸업자 8.7%, 대학원 졸업 이상자 1.4%, 고교 졸업 미만 0.8% 순인데, 이 중 전문대학 졸업자(23명) 외 전 학력별 미취업자가 더 많음
  - 2번째 높은 비중의 공학 전공자 254명은 고교 졸업자 42.9%, 4년제 대학 졸업자 37.0%, 전문대학 졸업자 18.5%, 대학원 졸업 이상자 1.6% 순인데, 고교 졸업자를 제외한 전 학력별 취업자가 더 많음
  - 예체능 전공자 129명은 고교졸업자 56.6%, 4년제 대학 졸업자 23.3%, 전문대학 졸업자 17.1%, 대학원 졸업 이상자 3.1% 순인데, 전 학력별 취업자가 더 많음
  - 자연과학 전공자 114명은 4년제 대학 졸업자 43.0%, 고교 졸업자 33.3%, 전문대 졸업자 18.4%, 대학원 졸업자 3.5%, 고교 졸업 미만 1.8% 순인데, 고교 졸업자는 미취업자가 더 많으나, 그 외 학력은 취업자가 더 많음
  - 보건의료 전공자 57명은 전문대학 졸업자 42.1%, 4년제 대학 졸업자 35.1%, 고교 졸업자 21.1%, 대학원 졸업 이상 1.8% 순인데, 고교졸업자 외의 경우 취업자가 더 많음
  - 교육 전공자 40명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65.0%로 압도적으로 많고, 고교 졸업자 22.5%, 대학원 졸업 이상 7.5%, 전문대학 졸업자 5.0% 순인데, 고교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 이상자는 미취업자가 2배 이상 더 많았고, 그 외 학력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수가 동일하였음



표 3-3. 전공계열별 학력 특성

(단위: 명, %)

구분	고교 졸업 미만		고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총합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계	6	0.6%	438	438%	159	159%	376	376%	21	2.1%	1,000	100%
인문사회	3	0.8%	164	461%	31	8.7%	153	430%	5	1.4%	356	100%
자연과학	2	1.8%	38	333%	21	184%	49	430%	4	3.5%	114	100%
공학	0	0.0%	109	429%	47	185%	94	370%	4	1.6%	254	100%
보건의료	0	0.0%	12	211%	24	421%	20	351%	1	1.8%	57	100%
교육	0	0.0%	9	225%	2	5.0%	26	650%	3	7.5%	40	100%
예체능	0	0.0%	73	566%	22	171%	30	233%	4	3.1%	129	100%
기타	1	2.0%	33	660%	12	240%	4	8.0%	0	0.0%	50	100%
미취업자	3	0.6%	263	526%	57	114%	169	338%	8	1.6%	500	100%
인문사회	2	1.0%	117	568%	8	3.9%	78	379%	1	0.5%	206	100%
자연과학		0.0%	21	429%	9	184%	18	367%	1	2.0%	49	100%
공학		0.0%	68	515%	18	136%	45	341%	1	0.8%	132	100%
보건의료		0.0%	8	364%	9	409%	5	227%		0.0%	22	100%
교육		0.0%	6	261%	1	4.3%	13	565%	3	130%	23	100%
예체능		0.0%	34	654%	7	135%	9	173%	2	3.8%	52	100%
기타	1	6.3%	9	563%	5	313%	1	6.3%		0.0%	16	100%
취업자	3	0.6%	175	350%	102	204%	207	414%	13	2.6%	500	100%
인문사회	1	0.7%	47	313%	23	153%	75	500%	4	2.7%	150	100%
자연과학	2	3.1%	17	262%	12	185%	31	477%	3	4.6%	65	100%
공학		0.0%	41	336%	29	238%	49	402%	3	2.5%	122	100%
보건의료		0.0%	4	114%	15	429%	15	429%	1	2.9%	35	100%
교육		0.0%	3	176%	1	5.9%	13	765%		0.0%	17	100%
예체능		0.0%	39	506%	15	195%	21	273%	2	2.6%	77	100%
기타		0.0%	24	706%	7	206%	3	8.8%		0.0%	34	100%

### 1.3. 건강 상태

- 응답 청년이 느끼는 건강상태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긍정의견이 66%, 평균 3.85점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 남성, 31세~35세, 4년제 대학 졸업자, 교육 전공자 등의 유형에서 건강 상태에 대해 가장 높은 평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학원 졸업 이상자 평점은 3.48점으로 가장 낮음

표 3-4. 건강 상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평점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		
계	1,000	2.6%	8.3%	23.1%	33.9%	32.1%	3.85	
취업 여부	미취업자	500	3.2%	8.0%	20.6%	33.6%	34.6%	3.88
	취업자	500	2.0%	8.6%	25.6%	34.2%	29.6%	3.81
성별	남성	483	2.5%	4.6%	20.7%	37.7%	34.6%	3.97
	여성	517	2.7%	11.8%	25.3%	30.4%	29.8%	3.73
연령	19~25	552	2.7%	8.9%	22.3%	32.2%	33.9%	3.86
	26~30	352	2.3%	8.2%	24.1%	37.5%	27.8%	3.80
	31~35	96	3.1%	5.2%	24.0%	30.2%	37.5%	3.94
학력별	고졸미만	6	0.0%	0.0%	66.7%	0.0%	33.3%	3.67
	고교졸업	438	3.4%	9.1%	22.8%	34.2%	30.4%	3.79
	전문대학 졸업	159	1.9%	8.2%	20.8%	37.7%	31.4%	3.89
	4년제 대학 졸업	376	1.3%	7.4%	24.2%	32.2%	34.8%	3.92
	대학원 졸업 이상	21	14.3%	9.5%	14.3%	38.1%	23.8%	3.48
전공	인문사회	356	2.5%	9.3%	20.2%	30.3%	37.6%	3.91
	자연과학	114	1.8%	3.5%	26.3%	39.5%	28.9%	3.90
	공학	254	2.0%	6.7%	20.9%	39.4%	31.1%	3.91
	보건의료	57	0.0%	10.5%	21.1%	40.4%	28.1%	3.86
	교육	40	2.5%	5.0%	22.5%	37.5%	32.5%	3.93
	예체능	129	4.7%	13.2%	32.6%	25.6%	24.0%	3.51
	기타	50	6.0%	8.0%	26.0%	30.0%	30.0%	3.70



## 2. 거주실태 분석

### 2.1. 거주실태 일반 현황

- 응답 청년의 거주지는 단원구 48.2%, 상록구 51.8%의 분포를 보임
- 거주 유형으로는 자가 44.1%, 월세 22.9%, 전세 19.2%, 기타 13.8% 순인데, 취업자는 전세 비중이 23.4%(117명)로 비취업자 15.0%(75명) 보다 높음
- 동거 유형으로는 절반 이상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57.9%)하고 있고, 그 뒤로 혼자 거주 21.7%, 친구·지인과 동거 9.5%, 형제자매와 동거 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43.9%로 대부분이었고, 빌라(다세대·연립주택) 23.3%, 원룸 15.4%, 단독주택 5.0%, 오피스텔 3.6%, 고시원 1.0% 등의 순임

표 3-5. 거주 실태

(단위: 명, %)

구 분	계		미취업자		취업자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거주지	단원구	482	48.2%	241	48.2%	241	48.2%
	상록구	518	51.8%	259	51.8%	259	51.8%
거주 유형	월세	229	22.9%	115	23.0%	114	22.8%
	전세	192	19.2%	75	15.0%	117	23.4%
	자가	441	44.1%	220	44.0%	221	44.2%
	기타	138	13.8%	90	18.0%	48	9.6%
동거 유형	혼자 거주	217	21.7%	106	21.2%	111	22.2%
	부모님	579	57.9%	294	58.8%	285	57.0%
	형제자매	28	2.8%	11	2.2%	17	3.4%
	친구지인	95	9.5%	57	11.4%	38	7.6%
	기타	81	8.1%	32	6.4%	49	9.8%
주택 유형	단독주택	50	5.0%	22	4.4%	28	5.6%
	아파트	439	43.9%	218	43.6%	221	44.2%
	빌라(다세대·연립)	233	23.3%	103	20.6%	130	26.0%
	원룸	154	15.4%	78	15.6%	76	15.2%
	오피스텔	36	3.6%	16	3.2%	20	4.0%
	고시원	10	1.0%	7	1.4%	3	0.6%
	기타	78	7.8%	56	11.2%	22	4.4%

## 2.2. 거주 이유

- ‘과거부터 계속 거주’ 청년은 전체의 55.6%인데 단원구 거주자(64.3%)와 취업자(61.8%) 중심이며, 안산대학교가 소재한 상록구 거주자의 40.3%와 미 취업자의 41.4%는 ‘학업을 위해 이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거주 이유로는 ‘과거부터 계속 거주’가 55.6%, ‘학업을 위한 이주’ 29.9%, ‘취업을 위한 이주’ 10.9%, ‘기타’ 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원구 거주 청년 482명 중 ‘과거부터 계속 거주’가 310명으로 대부분인데 비해, 상록구 거주 청년은 ‘과거부터 거주’ (24.6%)와 ‘학업을 위한 이주’ (20.9%)로 이원화됨
  - 취업자는 ‘과거부터 계속 거주’에 61.8%가 집중되어 지역 내 취업이 많은데 비해, 미 취업자는 ‘과거부터 계속 거주’ (49.4%)와 ‘학업을 위한 이주’ (41.4%)로 이원화됨

표 3-6. 거주지 및 거주 이유

(단위: 명, %)

구 분	총합계		미취업자		취업자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b>계</b>	<b>1,000</b>	<b>100.0%</b>	<b>500</b>	<b>100.0%</b>	<b>500</b>	<b>100.0%</b>
과거부터 계속 거주	556	55.6%	247	49.4%	309	61.8%
학업을 위해 이주	299	29.9%	207	41.4%	92	18.4%
취업을 위해 이주	109	10.9%	31	6.2%	78	15.6%
기타	36	3.6%	15	3.0%	21	4.2%
<b>단원구</b>	<b>482</b>	<b>100.0%</b>	<b>241</b>	<b>100.0%</b>	<b>241</b>	<b>100.0%</b>
과거부터 계속 거주	310	64.3%	158	65.6%	152	63.1%
학업을 위해 이주	90	18.7%	59	24.5%	31	12.9%
취업을 위해 이주	63	13.1%	16	6.6%	47	19.5%
기타	19	3.9%	8	3.3%	11	4.6%
<b>상록구</b>	<b>518</b>	<b>100.0%</b>	<b>259</b>	<b>100.0%</b>	<b>259</b>	<b>100.0%</b>
과거부터 계속 거주	246	47.5%	89	34.4%	157	60.6%
학업을 위해 이주	209	40.3%	148	57.1%	61	23.6%
취업을 위해 이주	46	8.9%	15	5.8%	31	12.0%
기타	17	3.3%	7	2.7%	10	3.9%

### 2.3. 독립 거주유형 특성

- 혼자 또는 친구·지인과 동거하는 청년의 거주유형은 대부분 원룸(53.0%, 29.5%)이고,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청년의 거주유형은 빌라(27.3%), 아파트와 오피스텔(각 18.2%씩)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혼자 거주하는 청년 217명은 원룸(53.0%), 빌라(18.9%), 오피스텔(7.8%), 아파트(6.9%), 고시원(3.7%), 단독주택(2.8%) 등의 순임
  - ‘빌라’에 혼자 거주하는 청년은 취업자(28명)가 미취업자(13명) 보다 많음
  - 친구·지인과 동거하는 청년 95명은 원룸(29.5%), 빌라(10.5%), 아파트(8.4%), 오피스텔(3.2%), 단독주택(2.1%), 고시원(1.1%) 등의 순임
  -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 미취업자는 빌라, 오피스텔(각 10.7%씩)이 가장 많았으나, 취업자는 빌라(28.6%), 아파트(17.9%), 원룸 또는 오피스텔(각 7.1%씩)으로 다소 상이

표 3-7. 동거유형별 주택 유형 특성

(단위: 명, %)

구분	혼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지인		기타		총합계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계	217	1000%	579	1000%	28	1000%	95	1000%	81	1000%	1,000	1000%
단독주택	6	2.8%	35	6.0%	0	0.0%	2	2.1%	7	8.6%	50	5.0%
아파트	15	6.9%	377	65.1%	7	25.0%	8	8.4%	32	39.5%	439	43.9%
빌라	41	18.9%	155	26.8%	11	39.3%	10	10.5%	16	19.8%	233	23.3%
원룸	115	53.0%	3	0.5%	4	14.3%	28	29.5%	4	4.9%	154	15.4%
오피스텔	17	7.8%	5	0.9%	5	17.9%	3	3.2%	6	7.4%	36	3.6%
고시원	8	3.7%	0	0.0%	0	0.0%	1	1.1%	1	1.2%	10	1.0%
기타	15	6.9%	4	0.7%	1	3.6%	43	45.3%	15	18.5%	78	7.8%

### 3. 소비 실태 분석

#### 3.1. 월 평균 생활비

- 응답 청년의 월 평균 생활비는 ‘30~50만원 미만’ 35.8%, ‘50~70만원 미만’ 27.8%, ‘70~100만원 미만’ 13.9%, ‘30만원 미만’ 11.5%, ‘20100만원 이상’ 11.0% 등의 순임
- 미 취업자의 월 평균 생활비는 ‘30~50만원 미만’ 에 집중되는데 비해 취업자는 ‘30만 원 이상’ 대에 고른 분포를 보이며 미취업자 보다 약 1.3배 높음
  - 미취업자는 30~50만원 미만(43.0%), 50~70만원 미만(26.2%), 30만원 미만(17%) 등의 순인데, 취업자는 50~70만원 미만(29.4%), 30~50만원 미만(28.6%), 70~80만원 미만(19.2%), 100만원 이상(16.8%) 등의 순임
  - 남성은 50만원 대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성은 30~50만원 미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평균 생활비는 여성이 다소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생활비는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 전공자가 가장 많고 인문사회 전공자가 가장 낮았음
  - 20~25세 청년은 ‘30~50만원 미만’ (45.7%)이 가장 많았으나, 25~30세 미만과 31~35세 미만은 ‘50~70만원’ (30.7%, 21.9%씩)이 가장 많음
  - 학력별로는 고졸 미만은 절반(3명)이 ‘30만원 미만’ 이었고, 고졸자는 ‘30~50만원 미만’ (45.21%), 전문대 졸업자는 ‘30~50만원 미만’ 과 ‘50~70만원 미만’ 이 각각 32.08%로 가장 높았고, 4년제 졸업자는 ‘50~70만원 미만’ (28.46%)과 ‘30~50만원 미만’ (28.19%)으로 이원화되었으며, 대학원 졸업자 이상은 20100만원 이상’ (28.57%)이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에서 고른 분포를 보임

표 3-8. 월 평균 생활비

(단위: 명, 원, %)

구 분	응답 수	평균 생활비*	비 중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계	1,000	555,400	11.50%	35.80%	27.80%	13.90%	11.00%	
취업 여부	미취업자	500	479,800	17.00%	43.00%	26.20%	8.60%	5.20%
	취업자	500	631,000	6.00%	28.60%	29.40%	19.20%	16.80%
성별	남 성	483	554,244	12.84%	33.95%	27.95%	14.08%	11.18%
	여 성	517	556,480	10.25%	37.52%	27.66%	13.73%	10.83%
연령별	20세~25세	552	486,232	13.95%	45.65%	26.99%	8.88%	4.53%
	26세~30세	352	618,324	8.81%	25.00%	30.68%	22.73%	12.78%
	31세~35세	96	722,396	7.29%	18.75%	21.88%	10.42%	41.67%
학력별	고졸미만	6	483,333	50.00%	0.00%	16.67%	16.67%	16.67%
	고졸	438	492,237	13.93%	45.21%	26.03%	9.36%	5.48%
	전문대졸	159	581,761	8.81%	32.08%	32.08%	15.09%	11.95%
	4년제졸	376	610,771	9.31%	28.19%	28.46%	18.09%	15.96%
	대학원졸	21	702,381	9.52%	14.29%	23.81%	23.81%	28.57%
전공별	인문·사회	356	536,517	13.76%	36.52%	27.53%	11.52%	10.67%
	자연·과학	114	587,281	7.89%	33.33%	29.82%	17.54%	11.40%
	공학	254	551,772	11.02%	36.61%	27.95%	15.35%	9.06%
	보건의료	57	608,772	8.77%	29.82%	29.82%	12.28%	19.30%
	교육	40	577,500	12.50%	35.00%	20.00%	17.50%	15.00%
	예·체능	129	541,085	9.30%	39.53%	31.01%	12.40%	7.75%
	기타	50	594,000	14.00%	30.00%	20.00%	18.00%	18.00%

※ 평균 생활비는 응답 범위별 중위값과 응답 비중을 적용한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30만원 미만은 29만원,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으로 계상함

### 3.2. 주요 소비 항목

- 응답 청년이 생활비로 소비하는 주요 항목은 전 유형별로 ‘식음료’에 56.6%가 집중되며, 그 뒤로 ‘패션미용’ 13.8%, ‘가정생활’ 11.5%, ‘교통’ 7.9%, ‘교육’ 3.3%, ‘의료건강’ 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는 ‘식음료’, ‘교통’, ‘교육’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자는 ‘패션미용’, ‘가정생활’ 등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식음료’의 소비 집중도가 높고 ‘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의 비중이 높아짐
  - 25세 미만 청년의 지출 항목은 ‘식음료’ (65.8%), ‘패션미용’ (12.9%), ‘교통’ (8.7%) 등의 순임
  - 26세~30세는 ‘식음료’ (47.2%), ‘가정 생활’ (17.9%), ‘패션미용’ (15.1%), ‘교통’ (8.0%) 등의 순임
  - 31세~35세 청년은 ‘식음료’ (38.5%), ‘가정생활’ (24.0%), ‘패션미용’ (14.58%)이 높고 ‘교육’ (8.33%)의 소비 비중도 높은 편임
- ‘식음료’ 비중은 고졸자가 65.1%로 제일 높고, ‘교통’은 고졸미만자 (16.67%), ‘가정생활’과 ‘패션미용’은 전문대 졸업자(각각 20.13%, 16.98%), ‘교육’과 ‘의료건강’은 4년제 졸업자(5.05%, 1.0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3-9. 주요 소비 항목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비 중							
		식음료	교통	패션 미용	가정 생활	의료 건강	교육	기타	
계	1,000	56.60%	7.90%	13.80%	11.50%	0.60%	3.30%	6.30%	
취업 여부	미취업자	500	31.50%	4.20%	5.70%	3.50%	0.20%	2.20%	2.70%
	취업자	500	25.10%	3.70%	8.10%	8.00%	0.40%	1.10%	3.60%
성별	남 성	483	56.31%	6.42%	11.59%	14.70%	0.21%	3.31%	7.45%
	여 성	517	56.87%	9.28%	15.86%	8.51%	0.97%	3.29%	5.22%
연령	20세~25세	552	65.76%	8.70%	12.86%	5.25%	0.00%	2.36%	5.07%
	26세~30세	352	47.16%	7.95%	15.06%	17.90%	1.42%	3.41%	7.10%
	31세~35세	96	38.54%	3.13%	14.58%	23.96%	1.04%	8.33%	10.42%
학력	고졸미만	6	33.33%	16.67%	16.67%	0.00%	0.00%	0.00%	33.33%
	고졸	438	65.07%	9.59%	11.87%	5.94%	0.23%	1.83%	5.48%
	전문대졸	159	44.03%	10.06%	16.98%	20.13%	0.63%	3.77%	4.40%
	4년제졸	376	52.66%	4.79%	15.16%	14.89%	1.06%	5.05%	6.38%
	대학원졸	21	52.38%	9.52%	4.76%	4.76%	0.00%	0.00%	28.57%
전공 계열	인문·사회	356	59.83%	10.11%	12.08%	8.71%	0.84%	3.65%	4.78%
	자연·과학	114	54.39%	3.51%	14.04%	15.79%	0.00%	4.39%	7.89%
	공학	254	60.24%	4.72%	12.20%	12.99%	0.39%	1.97%	7.48%
	자연·과학	57	47.37%	8.77%	17.54%	14.04%	0.00%	5.26%	7.02%
	교육	40	47.50%	10.00%	20.00%	7.50%	5.00%	7.50%	2.50%
	예·체능	129	52.71%	10.85%	16.28%	12.40%	0.00%	1.55%	6.20%
	기타	50	48.00%	8.00%	18.00%	12.00%	0.00%	4.00%	10.00%

### 3.3. 주거비 지출 비중

- 생활비 중 주거비에 지출하는 비중은 ‘없음’ (39.8%)이 대부분이나,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청년과 월세 등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와 ‘31~35세’ 연령대에서는 20~30%미만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음
  - 주거비 지출 비중은 ‘없음’ (39.8%), ‘20~30% 미만’ (17.2%), 2010~20%미만’ (17.1%), 2010% 미만’ (13.7%), ‘30~40%미만’ (5.6%), ‘40~50%미만’ (4.7%), ‘50%이상’ (1.9%) 등의 순임
  - 혼자 거주 청년은 주거비 지출이 ‘20~30%미만’ (23.0%)과 2010~20%미만’ (20.3%)으로 이원화되며, 형제자매와 동거자는 ‘20~30%미만’ (32.14%)과 ‘없음’ (25.0%), 친구지인과 동거자는 ‘20~30%미만’ (23.16%), 2010~20%미만’ 과 ‘없음’ (각각 20.0%씩) 등으로 분포됨
  - 월세 주거자의 주거비 지출 비중은 ‘20~30%미만’ (24.9%), ‘30~40%미만’ (19.7%), 2010~20%미만’ (14.9%), ‘40~50%미만’ (16.6%) 등의 순이며, 전세의 경우 30%미만 대에 고르게 분포함
- 주거비 지출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취업자가 미취업자 보다 많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짐
  - 주거비 지출 비중이 ‘없음’ 은 미취업자(47.4%)가 취업자(32.2%)보다 많으나, 2위로는 미취업자는 ‘20~30%미만’ (15.4%), 취업자는 2010~20%미만’ (20.4%)으로 소득 여부에 따른 비중의 차이를 보임
  - 20~25세는 ‘없음’ (45.1%), ‘20~30%미만’ (18.5%) 등의 순이고, 26~30세는 ‘없음’ (36.7%), 10~20%미만(20.7%) 등의 순이나, 31~35세는 20~30%미만(28.13%), 10~20%미만(27.08%) 등의 순임



표 3-10. 주거비 지출 비중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 중							
		없음	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	
계	1,000	39.80%	13.70%	17.10%	17.20%	5.60%	4.70%	1.90%	
취업 여부	미취업자	500	47.40%	10.60%	13.80%	15.40%	5.80%	4.80%	2.20%
	취업자	500	32.20%	16.80%	20.40%	19.00%	5.40%	4.60%	1.60%
성별	남 성	483	36.23%	13.04%	18.84%	19.46%	5.80%	4.97%	1.66%
	여 성	517	43.13%	14.31%	15.47%	15.09%	5.42%	4.45%	2.13%
연령	20세~25세	552	45.11%	13.59%	13.04%	14.49%	6.52%	5.62%	1.63%
	26세~30세	352	36.65%	13.64%	20.74%	18.47%	5.11%	3.41%	1.99%
	31세~35세	96	20.83%	14.58%	27.08%	28.13%	2.08%	4.17%	3.13%
학력	고졸미만	6	16.67%	0.00%	33.33%	33.33%	16.67%	0.00%	0.00%
	고졸	438	43.38%	12.33%	15.75%	14.38%	6.85%	5.02%	2.28%
	전문대졸	159	37.11%	20.75%	14.47%	20.13%	3.77%	3.14%	0.63%
	4년제졸	376	38.03%	12.50%	19.41%	18.88%	4.79%	4.79%	1.60%
	대학원졸	21	23.81%	14.29%	19.05%	19.05%	4.76%	9.52%	9.52%
전공 계열	인문·사회	356	42.70%	12.36%	17.13%	17.98%	4.78%	4.21%	0.84%
	자연·과학	114	42.98%	14.04%	11.40%	14.91%	10.53%	4.39%	1.75%
	공학	254	33.07%	13.39%	18.50%	19.29%	5.91%	7.87%	1.97%
	자연·과학	57	50.88%	21.05%	8.77%	12.28%	1.75%	1.75%	3.51%
	교육	40	40.00%	15.00%	22.50%	15.00%	2.50%	0.00%	5.00%
	예·체능	129	41.86%	15.50%	15.50%	13.95%	6.20%	3.88%	3.10%
	기타	50	28.00%	10.00%	32.00%	22.00%	4.00%	2.00%	2.00%
동거 유형	혼자	217	5.07%	10.14%	20.28%	29.95%	15.21%	14.29%	5.07%
	부모님	579	59.07%	15.03%	15.03%	9.67%	0.35%	0.52%	0.35%
	형제자매	28	25.00%	17.86%	7.14%	32.14%	7.14%	10.71%	0.00%
	친구지인	95	20.00%	9.47%	20.00%	23.16%	14.74%	8.42%	4.21%
	기타	81	23.46%	17.28%	23.46%	24.69%	6.17%	2.47%	2.47%
주거 유형	월세	229	0.44%	14.85%	17.03%	24.89%	19.65%	16.59%	6.55%
	전세	192	35.94%	16.15%	22.92%	25.00%	0.00%	0.00%	0.00%
	자가	441	61.00%	12.70%	14.06%	12.24%	0.00%	0.00%	0.00%
	기타	138	42.75%	11.59%	18.84%	9.42%	7.97%	6.52%	2.90%



## 제4장 안산시 청년 구직 실태 분석

1. 청년 구직활동 실태
2. 청년 취업 경로 분석
3. 청년 취업 요구 분석





## 제4장 안산시 청년 구직 실태 분석

### 1. 청년 구직활동 실태

#### 1.1. 구직활동 여부

##### □ 미취업자

- 구직 활동 중인 미취업자는 31%인데 여성이 0.8% 많고, 26세 이상 연령대, ‘고졸미만’ 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 및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인문사회’, ‘교육’, ‘공학’ 전공자의 구직활동 비중이 높음
  - 연령별로는 26~30세(48.2%)와 30~35세(47.1%)가 가장 많고, 20~25세(23.1%)는 다소 낮음
  - 학력별로는 ‘고졸미만’ (66.7%)과 ‘대학원 졸업 이상’ (62.5%), ‘4년제 대학 졸업’ (52.7%)은 절반 이상이 구직 중이고, ‘전문대 졸업’ (36.8%), ‘고졸’ (14.4%)은 상대적으로 낮음
  - 전공별로는 ‘교육’ (56.5%), ‘인문사회’ (34.5%), ‘자연과학’ (30.6%), ‘공학’ (28.0%), ‘예체능’ (26.9%), ‘보건의료’ (4.5%) 등의 순임

표 4-1.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구직 활동 중	구직 활동 안함
총 합 계		500	31.0%	69.0%
성 별	남 성	245	30.6%	69.4%
	여 성	255	31.4%	68.6%
나 이	20세~25세	342	23.1%	76.9%
	26세~30세	141	48.2%	51.8%
	31세~35세	17	47.1%	52.9%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66.7%	33.3%
	고졸	263	14.4%	85.6%
	전문대졸	57	36.8%	63.2%
	4년제졸	169	52.7%	47.3%
	대학원졸	8	62.5%	37.5%
전공 계열	인문·사회	206	34.5%	65.5%
	자연·과학	49	30.6%	69.4%
	공학	132	28.0%	72.0%
	보건·의료	22	4.5%	95.5%
	교육	23	56.5%	43.5%
	예·체능	52	26.9%	73.1%
	기타	16	25.0%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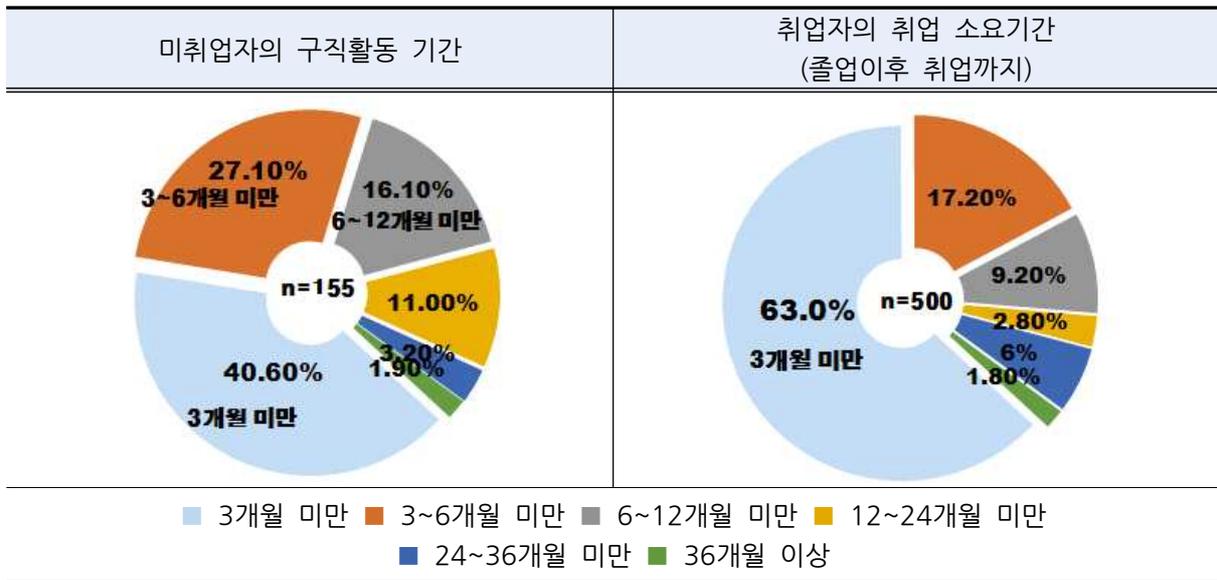
## 1.2. 구직활동 및 취업 소요 기간

### □ 종합

- 응답 청년의 구직 또는 취업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 이 가장 많은데,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나, 취업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취업자의 구직기간은 ‘3개월 미만’ 에 63.0%가 집중되는 반면,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
  - 취업자의 취업 소요기간의 경우, ‘24~36개월 미만’ 이 ‘12~24개월 미만’ 보다 더 많음

그림 4-1. 구직활동 및 취업 소요 기간

(단위: 건, %)



### □ 미취업자

- 미취업자의 구직 기간은 전 유형별 ‘3개월 미만’ (40.6%)이 가장 많고 전반적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활동이 감소하나, 31~35세는 ‘6~12개월’ (37.5%), ‘대학원졸업 이상’ 은 12~24개월(40.0%), ‘고졸미만’ 2명은 ‘3개월 미만’ 과 ‘12~24개월’ 이 가장 많음
- 미취업자의 구직 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짧은 편이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길어지며, ‘대학원 졸업 이상’ , ‘예체능’ 과 ‘교육’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긴 편임

- 남성은 구직기간이 ‘36개월 이상’ 이 없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나, 여성은 ‘12~24개월’ (16.3%), ‘36개월 이상’ (3.8%)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음
- ‘20세~25세’ 와 ‘26세~30세’ 의 구직 기간은 ‘3개월 미만’ (23.2%, 16.8%)이 가장 많은데 비해, ‘31세~35세’ 는 ‘6~12개월’ (37.5%), ‘3~6개월’ (25.0%) 및 36개월 미만 내 12.5%씩 동등한 분포를 보임
- ‘4년제 졸업’ 과 ‘전문대 졸업’ 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나, ‘대학원 졸업 이상’ 은 기간과 무관하게 고르게 분포하고, ‘고졸’ 은 절반이 ‘3개월 미만’ (50.0%)이고 ‘3~6개월(28.9%), ’ 12~24개월 ‘(10.5%), ’ 6~12개월 ‘(7.9%), 36개월 이상(2.6%) 등으로 분포됨
- 전공별로는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 전공자는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데 ‘자연과학’ 은 36개월 이상(6.7%, 1건)도 있으며, ‘교육’ 은 ‘6~12개월’ 과 ‘12~24개월’ (각각 23.1%, 2위)이 상대적으로 많고, ‘예체능’ 은 ‘3~6개월’ ( 50.0%)이 가장 많고, ‘보건의료’ 1건의 구직기간은 ‘3개월 미만’ (100.0%)임

표 4-2.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기간

(단위: 건, %)

구 분		사례수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개월 이상
<b>총 합 계</b>		155	40.6%	27.1%	16.1%	11.0%	3.2%	1.9%
성 별	남 성	75	46.7%	28.0%	16.0%	5.3%	4.0%	0.0%
	여 성	80	35.0%	26.3%	16.3%	16.3%	2.5%	3.8%
나 이	20세~25세	79	45.6%	30.4%	13.9%	8.9%	0.0%	1.3%
	26세~30세	68	38.2%	23.5%	16.2%	13.2%	5.9%	2.9%
	31세~35세	8	12.5%	25.0%	37.5%	12.5%	12.5%	0.0%
최종 학력	고졸미만	2	50.0%	0.0%	50.0%	0.0%	0.0%	0.0%
	고졸	38	50.0%	28.9%	7.9%	10.5%	0.0%	2.6%
	전문대졸	21	52.4%	23.8%	9.5%	9.5%	4.8%	0.0%
	4년제졸	89	36.0%	28.1%	21.3%	10.1%	3.4%	1.1%
	대학원졸이상	5	0.0%	20.0%	0.0%	40.0%	20.0%	2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71	38.0%	28.2%	15.5%	14.1%	2.8%	1.4%
	자연·과학	15	46.7%	20.0%	20.0%	6.7%	0.0%	6.7%
	공학	37	56.8%	24.3%	13.5%	2.7%	2.7%	0.0%
	보건·의료	1	100.0%	0.0%	0.0%	0.0%	0.0%	0.0%
	교육	13	30.8%	7.7%	23.1%	23.1%	15.4%	0.0%
	예·체능	14	14.3%	50.0%	14.3%	14.3%	0.0%	7.1%
	기타	4	25.0%	50.0%	25.0%	0.0%	0.0%	0.0%

## □ 취업자

- 취업자가 졸업 후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 또한 전 유형별로 ‘3개월 미만’ (63.0%)이 가장 많은데, ‘고졸미만’ 은 ‘3~6개월’ (66.6%, 2명)이 가장 많고, 31~35세는 ‘24~36개월’ (16.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장기간이 소요됨
  - 나이가 어릴수록 ‘3개월 미만’ 의 비율이 높아지며, 31~35세의 경우 ‘24~36개월’ (16.5%)이 2위로 타 연령대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 학력별로는 ‘3~6개월’ (66.7%)이 가장 많은 ‘고졸 미만’ 을 제외하고 모두 ‘3개월 미만’ 이 가장 높은데, ‘대학원졸업 이상’ 과 ‘4년제 대학 졸업’ 은 24개월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공별로는 3개월 미만은 ‘자연과학’ (70.8%)이 가장 높고, ‘인문사회’, ‘자연과학’, ‘교육’ 은 24~36개월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4-3. 취업자의 취업 소요 기간

(단위: 건, %)

구 분		사례수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개월 이상
총 합 계		500	63.0	17.2	9.2	2.8	6.0	1.8
성 별	남 성	238	63.4	16.4	8.0	2.5	6.7	2.9
	여 성	262	62.6	17.9	10.3	3.1	5.3	0.8
나 이	20세~25세	210	70.5	20.0	5.7	0.5	1.4	1.9
	26세~30세	211	57.8	15.6	14.2	4.3	6.6	1.4
	31세~35세	79	57.0	13.9	5.1	5.1	16.5	2.5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33.3	66.7	0.0	0.0	0.0	0.0
	고졸	175	66.3	16.6	7.4	2.3	4.0	3.4
	전문대졸	102	67.6	17.6	8.8	2.9	2.9	0.0
	4년제졸	207	58.5	16.4	11.6	3.4	9.2	1.0
	대학원졸이상	13	61.5	23.1	0.0	0.0	7.7	7.7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54.7	20.7	12.7	3.3	6.7	2.0
	자연·과학	65	70.8	13.8	3.1	4.6	6.2	1.5
	공학	122	59.0	23.8	9.0	0.8	4.9	2.5
	보건·의료	35	74.3	8.6	11.4	2.9	2.9	0.0
	교육	17	64.7	5.9	11.8	0.0	17.6	0.0
	예·체능	77	63.6	15.6	7.8	5.2	6.5	1.3
	기타	34	85.3	2.9	5.9	0.0	2.9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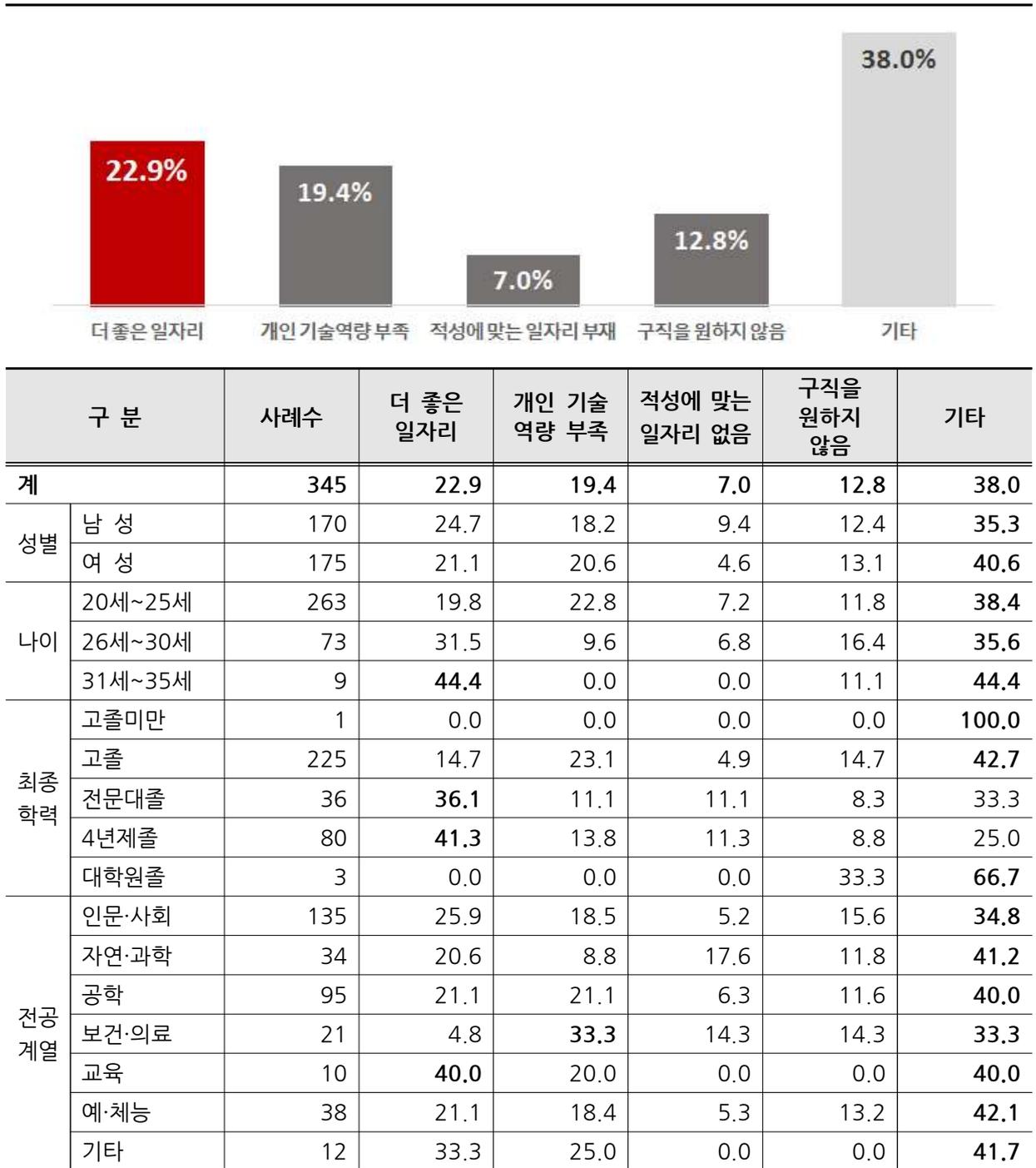
### 1.3. 구직 활동 중단 이유

#### □ 미취업자

- 미취업자의 구직 활동 중단의 주요 이유는 시험 준비 등 ‘기타’ 의견이 가장 많고, 그 외 전 유형별 ‘더 좋은 일자리 찾기 위해서’ (22.9%)가 가장 많은데, ‘보건의료’ 전공자는 ‘개인 기술역량 부족’ (19.4%)이 가장 많음
  - 구직활동의 중단 이유는 ‘더 좋은 일자리 찾기 위해서’ (22.9%), ‘개인 기술역량 부족’ (19.4%), ‘구직을 원하지 않음’ (12.8%),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7.0%) 등의 순임
  - ‘기타’ (38.0%)의 경우 공무원, 국가고시, 자격증, 외국어 등의 ‘시험 준비’가 가장 많았고, 군입대, 진로 고민, 대학원 진학, 잠시 휴식 기간, 개인 또는 집안 사정, 또는 필요성 부족 등의 의견이 도출됨
- 구직활동 중단의 주요 이유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하여’ 또는 ‘시험 준비 등 기타’의 비중이 높는데, ‘공학’ 과 ‘보건의료’ 전공자는 ‘개인기술역량 부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음
  - 남녀 모두 구직활동 중단 이유는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 12.2%, 10.7%)였는데,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는 남성(9.4%)이 다소 많았고, ‘개인기술역량부족’은 여성(20.6%)이 다소 많음
  - 연령별로는 ‘20세~25세’는 ‘개인 기술역량 부족’ (22.8%)이 가장 높는데 비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좋은 일자리’로 인한 구직활동 중단이 많음
  - 학력별 구직활동 중단의 주요 사유로는 ‘고졸’은 ‘개인기술역량부족’ (23.1%), ‘전문대졸업’과 ‘4년제 졸업’은 ‘더 좋은 일자리’ (각각 36.1%, 41.3%) ‘대학원졸업 이상’은 ‘구직을 원하지 않음’ (33.3%)으로 나타남
  - 전공별 구직활동 중단의 주요 사유로는 대부분 ‘더 좋은 일자리 찾기 위해서’였는데, ‘보건의료’는 ‘개인기술역량 부족’ (33.3%), ‘공학’은 ‘개인기술역량부족’과 ‘더 좋은 일자리’가 공동 1위(각 21.1%씩)이며, ‘자연과학’과 ‘보건의료’ 전공자는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족’이 2위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4-2.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중단 이유

(단위: 건, %)





## 1.4. 생활비 충당 방법

### □ 미취업자

- 미취업자의 생활비 충당은 대부분 ‘부모님 지원’ (61.1%)인데, ‘31~35세’, ‘보건의료’ 전공자, ‘대학원 졸업 이상자’, 구직활동 기간이 ‘3~6개월’ 소요되는 취업자 등 일부 유형에서는 ‘예금, 적금 등 그간 모은 돈’ (31.3%)으로 충당하고 있음
  - 남녀 모두 ‘부모님 지원’ 이 각각 63.6%,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님 지원’ 의 의존도가 높고, ‘31세~35세’ 는 절반가량이 ‘그간 모은 돈’ (50.0%)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음
  - 학력별 생활비 충당 방법으로는 ‘대학원 졸업 이상’ 은 ‘그간 모은 돈’ (44.4%)이 가장 많고 실업급여 활용(11.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그 외의 경우 ‘부모님 지원’ 이 가장 많고, ‘고졸미만’ 과 ‘전문대 졸업’ 자는 그 외 각종 방법을 병행함
  - 전공 계열별 대부분이 ‘부모님 지원’ 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보건·의료’ 는 ‘그간 모은 돈’ (45.5%)이 가장 많고, ‘자연과학’, ‘예체능’ 전공자는 ‘부모님 지원’ 비중이 각각 71.2%, 71.7%로 매우 높음
  - 구직자의 50.9%, 비구직자의 65.9%는 생활비를 위하여 ‘부모님 지원’ 을 받고 있음
  - 생활비의 ‘부모님 지원’ 비중은 3개월 미만의 구직활동 시 가장 높고 기간이 길수록 다소 감소하나, 12개월 이상 시 ‘그간 모은 돈’ 의 비중이 감소하며 ‘부모님 지원’ 의존도가 다시 증가하고, 구직기간이 3~6개월인 청년의 경우 ‘실업급여 활용’ (10.4%)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4. 미취업자의 생활비 충당 방법

(단위: 건, %)

구 분		사례수	그간 모은 돈 (예금, 적금 등)	실업 급여	부모님 지원	숙박 및 요식업	금융기관 이용 (카드, 대출 등)
계		514	31.3	3.1	61.1	3.1	1.4
성 별	남 성	253	29.6	2.8	63.6	3.2	0.8
	여 성	261	33.0	3.4	58.6	3.1	1.9
나 이	20세~25세	345	27.2	2.3	68.4	1.2	0.9
	26세~30세	151	38.4	3.3	49.0	7.3	2.0
	31세~35세	18	50.0	16.7	22.2	5.6	5.6
최종 학력	고졸미만	5	20.0	0.0	40.0	20.0	20.0
	고졸	268	21.6	3.0	72.0	1.9	1.5
	전문대졸	59	42.4	1.7	47.5	5.1	3.4
	4년제졸	173	42.2	3.5	51.4	2.9	0.0
	대학원졸	9	44.4	11.1	22.2	22.2	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209	31.1	1.9	64.6	0.5	1.9
	자연·과학	52	23.1	0.0	71.2	5.8	0.0
	공학	135	33.3	5.2	57.0	3.7	0.7
	보건·의료	22	45.5	0.0	40.9	13.6	0.0
	교육	25	36.0	8.0	44.0	8.0	4.0
	예·체능	53	22.6	3.8	71.7	1.9	0.0
	기타	18	44.4	5.6	38.9	5.6	5.6
구직동 여부	구직	163	36.2	5.5	50.9	5.5	1.8
	비구직	351	29.1	2.0	65.8	2.0	1.1
구직 활동 기간	3개월 미만	390	29.5	2.3	64.9	2.3	1.0
	3~6개월 미만	48	43.8	10.4	41.7	2.1	2.1
	6~12개월 미만	34	44.1	5.9	50.0	0.0	0.0
	12~24개월 미만	26	26.9	0.0	57.7	11.5	3.8
	24~36개월 미만	16	18.8	0.0	56.3	18.8	6.3

## 2. 청년 취업 경로 분석

### 2.1. 채용 정보 획득 경로

#### □ 미취업자

- 미취업자의 채용 정보 획득 경로는 전 유형별 ‘인터넷 구직 사이트’ (42.8%)가 가장 많은데, ‘교육’ 전공자는 ‘학교’ (33.3%)가 가장 많고, ‘고졸미만’ 4명은 ‘지인’ 을 제외한 전 유형을 고르게 활용하였음
  - 채용정보 획득경로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 (42.8%), ‘친인척 지인’ (20.9%), ‘학교 취업 관련’ (19.8%), ‘취업정보센터’ (8.8%), ‘취업 박람회’ (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인’ 을 2순위로 이용하는 미취업자는 ‘남성’, ‘4년제 대학 졸업’ (20.0%), ‘공학’ (25.7%) 전공자, ‘구직활동중인 미취업자’ (20.4%) 등임
- ‘학교’ 를 2순위로 이용하는 미취업자는 ‘여성’, ‘20~25세’ 와 ‘31~35세’ 연령대, ‘고졸’ 학력자 및 ‘인문사회’, ‘교육’, ‘예체능’ 전공자 등임
- ‘취업정보센터’ 를 2순위로 이용하는 미취업자는 ‘대학원 졸업 이상’ (22.2%)이며, ‘31~35세’ (15.8%)와 ‘교육’, ‘예체능’ 전공자(각각 12.5%씩)는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취업 박람회’ 이용률이 ‘취업정보센터’ 보다 높은 유형은 ‘남성’ (10.2%), ‘20~25세’ (9.7%), ‘4년제 대학 졸업’ (10.0%), ‘공학’ 전공자(10.8%) 등임
  - 남성은 ‘지인’ (24.8%), 여성은 ‘학교’ (20.4%)가 상대적으로 많음
  - ‘20~25세’ 는 ‘학교’ (22.0%)와 ‘지인’ (21.5%), ‘26~30세’ 는 ‘지인’ (21.4%), ‘31~35세’ 는 ‘학교’ (21.1%)와 ‘취업정보센터’ (15.8%)로 나타남
  - ‘고졸 미만’ 은 ‘지인’ 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고르게 정보를 획득하

- 고 있고, ‘고졸’은 ‘학교’(각각 26.0%), ‘대학원졸업자’는 ‘학교’와 ‘취업정보센터’(각각 22.2%씩) 이용이 많았고, 4년제 졸업자는 ‘지인’(20.0%) 경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인터넷’ 외 주요 경로로 ‘자연과학’과 ‘보건의료’ 전공자는 ‘학교’와 ‘지인’ 채널 활용이 공동으로 많았고, ‘인문사회’, ‘교육’, ‘예체능’은 ‘학교’, ‘공학’은 ‘지인’이 많음
  - 구직활동 중인 청년은 ‘인터넷’(47.9%) 외 ‘지인’(20.4%)이 비구직자는 ‘인터넷’(40.5%) 외 ‘학교’(22.8%), 지인(21.2%) 등의 순임

표 4-5. 미취업자의 채용정보 획득 경로

(단위: 건, %)

구 분		사례수	취업 박람회	학교 (취업관련)	인터넷 (구직사이트)	지인 (친척 등)	취업정보 센터
계		545	7.7	19.8	42.8	20.9	8.8
성 별	남 성	266	10.2	19.2	37.6	24.8	8.3
	여 성	279	5.4	20.4	47.7	17.2	9.3
나 이	20세~25세	372	9.7	22.0	38.7	21.5	8.1
	26세~30세	154	3.9	14.3	50.6	21.4	9.7
	31세~35세	19	0.0	21.1	57.9	5.3	15.8
최종학력	고졸미만	4	25.0	25.0	25.0	0.0	25.0
	고졸	281	6.0	26.0	36.3	23.8	7.8
	전문대졸	61	8.2	14.8	52.5	14.8	9.8
	4년제졸	190	10.0	12.1	48.9	20.0	8.9
	대학원졸	9	0.0	22.2	55.6	0.0	22.2
전공계열	인문·사회	222	8.6	17.6	47.3	16.2	10.4
	자연·과학	56	7.1	21.4	42.9	21.4	7.1
	공학	148	10.8	17.6	40.5	25.7	5.4
	보건·의료	22	4.5	18.2	50.0	18.2	9.1
	교육	24	0.0	33.3	25.0	29.2	12.5
	예·체능	56	3.6	28.6	30.4	25.0	12.5
	기타	17	0.0	17.6	58.8	17.6	5.9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중	167	7.8	13.2	47.9	20.4	10.8
	구직활동중이 아님	378	7.7	22.8	40.5	21.2	7.9



## □ 취업자

- 취업자도 전 유형별 ‘인터넷’ (46.7%) 이용이 대다수이고 ‘지인’ (21.4%), ‘학교’ (17.3%) 등 미취업자와 동일한 순서인데, ‘고졸미만’ 과 ‘대학원 졸업 이상’ 은 ‘학교’ 가 더 많음
- 2순위로 ‘학교’ 를 이용하는 유형은 ‘31~35세’ (17.7%), ‘4년제 대학 졸업’ (20.0%), ‘자연과학’ (23.1%), ‘보건의료’ (22.9%)임
- ‘취업정보센터’ 이용률이 평균(8.2%) 이상인 유형은 ‘여성’ (9.4%), ‘4년제 졸업’ (10.0%), ‘대학원 졸업’ (14.3%), ‘자연과학’ (12.3%), ‘교육’ (17.6%), ‘예체능’ (8.8%) 전공자임
  - 전공계열별로는 모두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많고, 그 외 차순위로는 ‘인문사회’, ‘교육’, ‘예체능’ 은 ‘지인’ 의 활용이 많고, ‘자연과학’, ‘보건의료’ 는 ‘학교’ 활용이 높으며, ‘자연과학’ 과 ‘교육’ 전공자는 ‘취업정보센터’ 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6. 취업자의 채용정보 획득 경로

(단위: 건, %)

구 분		사례수	취업 박람회	학교 (취업관련)	인터넷 (구직사이트)	지인 (친인척 등)	취업정보 센터
계		510	6.5	17.3	46.7	21.4	8.2
성 별	남 성	245	9.0	20.0	38.4	25.7	6.9
	여 성	265	4.2	14.7	54.3	17.4	9.4
나 이	20세~25세	213	7.5	17.4	44.1	22.5	8.5
	26세~30세	218	5.0	17.0	46.8	22.0	9.2
	31세~35세	79	7.6	17.7	53.2	16.5	5.1
최종학 력	고졸미만	3	0.0	66.7	33.3	0.0	0.0
	고졸	177	11.3	14.7	42.9	24.3	6.8
	전문대졸	106	3.8	12.3	55.7	21.7	6.6
	4년제졸	210	3.8	20.0	47.1	19.0	10.0
	대학원졸	14	7.1	35.7	21.4	21.4	14.3
전공계 열	인문·사회	150	4.7	13.3	54.7	20.0	7.3
	자연·과학	65	12.3	23.1	33.8	18.5	12.3
	공학	128	7.0	20.3	45.3	20.3	7.0
	보건·의료	35	5.7	22.9	48.6	17.1	5.7
	교육	17	0.0	17.6	41.2	23.5	17.6
	예·체능	80	6.3	15.0	45.0	25.0	8.8
	기타	35	5.7	11.4	45.7	31.4	5.7

## 2.2. 취업 관심 정보

### □ 미취업자

- 미취업자가 취업 준비를 위해 관심을 갖는 정보로는 ‘직무 분야별 정보’ (24.3%), ‘기업 정보’ (23.1%), ‘스펙’ (21.4%) 3개 분야에 68.8% 집중되며, 그 뒤로 ‘직무관련 경험’ (11.6%), ‘합격자 후기’ (8.4%), ‘면접합격전략’ (8.0%), ‘적성파악’ (3.2%) 등의 순임
- ‘기업정보’에 가장 관심이 많은 유형은 ‘26~30세’ (27.7%), ‘전문대 졸업자’ (28.1%) 및 ‘건설업’ 희망 미취업자(27.1%)로 나타남
- ‘스펙’에 가장 관심이 많은 유형은 ‘자연과학’ 전공자, ‘사회복지 교육업’ 취업 희망자(26.5%)임
- ‘직무관련 경험’에 가장 관심이 많은 유형은 ‘예체능’ 전공자(24.0%)와 창업희망자(24.2%)임
- ‘남성’은 ‘직무분야’와 ‘기업정보’ (25.3%씩)에, ‘20~25세’는 ‘직무분야’와 ‘스펙’ (23.0%씩) ‘고졸미만’은 ‘기업정보’와 ‘합격자후기’ (33.3%씩)에, ‘대학원졸업 이상’과 ‘공학’ 전공자는 ‘직무분야’와 ‘기업정보’ (각 31.3%씩, 25.8%씩)에 공동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유
  - 남성은 ‘직무분야별 정보’, ‘기업정보’, ‘직무관련 경험’ 등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스펙’, ‘합격자 후기’, 면접합격전략’, ‘적성파악’의 관심도가 높음
  - 연령별 주요 관심 정보는 ‘26~30세’는 ‘기업정보’ (27.7%), ‘20~25세’는 ‘직무분야별 정보’와 ‘스펙’ (각 23%씩), ‘30~35세’는 ‘직무분야별 정보’ (38.2%)로 나타남
  - 학력별 주요 관심정보는 ‘고등학교 졸업 미만’은 ‘합격자 후기’와 ‘기업 정보’ (각 33.3%씩), ‘고교졸업자’, ‘4년제 졸업’은 ‘직무분야별 정보’, ‘전문대 졸업’은 ‘기업정보(28.1%)’, ‘대학원졸업자는 ‘직문분야별정보’와 ‘기업정보’ (각 31.3%씩)이며 ‘합격자 후기’와 ‘면접합격전략’에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음
  - ‘예·체능’ 계열은 ‘직무관련경험’ (24.0%), ‘자연과학’은 ‘스펙’ (26.5%), ‘공학’은 ‘직무분야별 정보’와 ‘기업정보’ (각 25.8%씩), ‘인문과학’,

‘보건의료’, ‘교육’ 은 ‘직무분야별 정보’ 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음

- 취업 희망분야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요식업’, ‘금융 및 서비스업’, ‘공공행정 서비스업’ 은 ‘직무분야별 정보’ 의 관심이 가장 높고, ‘건설업’ 은 ‘기업정보’ (27.1%), ‘사회복지교육업’ 은 ‘스펙’ (26.5%), ‘창업 희망자’ 들은 ‘직무관련 경험’ (24.2%) 등이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7. 미취업자의 채용 관심 정보

(단위: 명, %)

구 분		응답 건수	직무분야 별장비(6)	기업 정보(7)	스펙(8)	직무관련 경험(9)	합격자 후기(20)	면접합격 전략(21)	적성 파악
계		1,000	24.3	23.1	21.4	11.6	8.4	8.0	3.2
성 별	남 성	490	25.3	25.3	20.2	13.7	5.5	7.1	2.9
	여 성	510	23.3	21.0	22.5	9.6	11.2	8.8	3.5
나 이	20세~25세	684	23.0	21.3	23.0	12.3	8.0	8.6	3.8
	26세~30세	282	25.9	27.7	18.1	10.3	8.9	7.1	2.1
	31세~35세	34	38.2	20.6	17.6	8.8	11.8	2.9	0.0
최종 학력	고졸미만	6	16.7	33.3	0.0	0.0	33.3	16.7	0.0
	고졸	526	24.3	21.3	22.8	12.2	7.8	7.8	3.8
	전문대졸	114	21.9	28.1	20.2	14.0	5.3	8.8	1.8
	4년제졸	338	24.9	23.7	20.7	10.4	9.8	7.7	3.0
	대학원졸	16	31.3	31.3	6.3	6.3	12.5	12.5	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412	24.0	23.3	21.6	10.9	8.7	6.8	4.6
	자연·과학	98	23.5	25.5	26.5	10.2	8.2	4.1	2.0
	공학	264	25.8	25.8	20.1	11.4	6.8	9.1	1.1
	보건·의료	44	34.1	22.7	25.0	6.8	6.8	0.0	4.5
	교육	46	32.6	21.7	15.2	0.0	17.4	13.0	0.0
	예·체능	104	14.4	15.4	17.3	24.0	9.6	13.5	5.8
	기타	32	25.0	18.8	31.3	9.4	3.1	12.5	0.0
취업 희망 분야	제조업	105	44.8	36.2	13.3	5.7	0.0	0.0	0.0
	건설업	59	18.6	27.1	22.0	8.5	11.9	10.2	1.7
	도·소매업	47	36.2	17.0	21.3	14.9	2.1	4.3	4.3
	숙박 및 요식업	44	38.6	34.1	11.4	11.4	2.3	2.3	0.0
	금융 및 서비스업	197	37.1	26.9	22.3	5.1	3.0	5.1	0.5
	공공행정 서비스업	253	24.5	21.3	22.5	12.6	9.1	6.7	3.2
	사회복지, 교육업	181	6.1	16.6	26.5	13.3	17.7	15.5	4.4
	창업희망	95	5.3	14.7	21.1	24.2	13.7	13.7	7.4
기타	19	0.0	15.8	15.8	21.1	5.3	15.8	26.3	

16) 직무 분야별 정보: 직무별 업무, 관련전공, 우대사항 등  
 17) 기업 정보: 연봉, 자본, 매출, 복지, 기업특성 등  
 18) 스펙: 어학, 자격증, 경력 등  
 19) 직무관련 경험: 유관 경력, 공모전, 프로젝트, 대회 등  
 20) 합격자 후기: 자기소개서, 취업노하우 등  
 21) 면접합격 전략: 면접복장, 면접 질문, 면접 후기 등

## 2.3. 취업 준비 활동

### □ 미취업자

-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주요 활동 분야는 복수응답을 통해 총 1,732건이 도출되었으며, ‘외국어 학습’ (20.0%), ‘자격증취득’ (17.9%), ‘IT·컴퓨터 교육’ (11.2%), ‘외모관리’ (10.5%), ‘구직사이트 등록’ (9.7%), ‘현장실습’ (8.9%), ‘취업박람회 참여’ (6.7%), ‘지인 부탁’ (6.0%), ‘면접훈련’ (4.6%) 등의 순으로 고르게 나타남
- ‘외국어 학습’의 주요 활동 유형으로는 30세 이하 연령대, ‘고졸’,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및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전공자로 나타남
- ‘자격증 취득’을 주로 활동한 유형은 ‘30~35세’, ‘전문대 졸업’ 및 ‘보건의료’, ‘교육’, ‘예체능’ 전공자임
  - 연령별 취업 준비 활동으로는 ‘20~25세’와 ‘26~30세’는 ‘외국어 학습’ (각각 20.7%, 19.3%), ‘30~35세’는 ‘자격증 취득’ (21.5%)로 많음
  - 학력별로는 ‘고졸미만’은 ‘공공구직 상담등록’과 ‘취업박람회 참여’ (각각 20.0%씩), ‘고졸’, ‘4년제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은 ‘외국어 학습’, ‘전문대 졸업’은 ‘자격증 취득’ (20.1%)이 가장 많음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전공자는 ‘외국어 학습’, ‘보건의료’, ‘교육’, ‘예체능’은 ‘자격증 취득’을 주요 취업준비 활동으로 시행하였고, ‘교육’은 ‘현장실습’ (20.3%)도 상대적으로 높음
  - 전공분야별 두 번째로 높은 취업 준비활동으로는 ‘예체능’은 ‘외모관리’ (13.4%), ‘교육’과 ‘예체능’은 현장실습 (20.3%), ‘기타’ 전공자는 ‘구직사이트 등록’ (15.1%)
- 취업 희망분야별 준비 활동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 및 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업’, ‘창업 희망자’는 ‘외국어 학습’이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요식업’, ‘사회복지교육업’은 ‘자격증 취득’의 활동이 많았으며, ‘기타’ 분야 희망자는 ‘외모관리’ (18.5%)가 가장 많았음



표 4-8. 미취업자의 채용 관심 정보

(n=1,732건, 단위: 건, %)

구 분		사례 수	외국어 학습	면접 훈련	IT/컴퓨터 교육	공공구직 상담 등록	취업 박람회 참여	구직 사이트 등록	지인 부탁	자격증 취득	현장 실습	외모 관리	기타
계		10375	20.0	4.6	11.2	3.8	6.7	9.7	6.0	17.9	8.9	10.5	1.0
성 별	남 성	841	20.5	4.3	10.3	3.2	6.7	9.6	6.7	18.9	8.7	10.5	0.7
	여 성	891	19.5	4.8	11.9	4.4	6.6	9.8	5.4	16.8	9.1	10.4	1.2
나 이	20세~25세	1,110	20.7	4.3	10.7	3.8	7.4	9.0	6.0	17.3	9.3	11.4	1.1
	26세~30세	512	19.3	5.3	12.3	3.5	5.3	10.4	6.3	18.9	9.2	9.6	0.6
	31세~35세	93	18.3	4.3	11.8	6.5	6.5	16.1	5.4	21.5	4.3	5.4	2.2
최 종 학 력	고졸미만	10	10.0	10.0	10.0	20.0	20.0	10.0	0.0	10.0	0.0	10.0	0.0
	고졸	772	22.7	3.6	12.3	3.4	6.1	8.4	5.3	17.4	8.5	11.1	1.2
	전문대졸	224	12.1	4.5	9.4	4.5	8.9	11.6	7.6	20.1	10.7	9.4	1.3
	4년제졸	695	19.9	5.5	10.4	3.9	6.5	10.4	6.2	17.8	8.5	10.4	0.7
	대학원졸	31	16.1	6.5	12.9	3.2	3.2	12.9	9.7	16.1	16.1	3.2	0.0
전 공 계 열	인문·사회	734	21.3	4.2	11.3	4.6	7.1	9.9	4.8	17.7	7.8	10.8	0.5
	자연·과학	170	22.9	5.9	10.6	0.6	4.7	10.6	7.1	17.1	7.1	11.8	1.8
	공학	472	22.0	3.8	12.1	3.8	7.4	9.3	6.6	16.3	8.9	9.5	0.2
	보건·의료	92	13.0	7.6	7.6	6.5	6.5	8.7	6.5	18.5	13.0	10.9	1.1
	교육	69	13.0	8.7	10.1	2.9	1.4	4.3	2.9	26.1	20.3	8.7	1.4
	예·체능	142	12.7	3.5	9.9	2.8	7.0	9.9	9.2	16.9	9.9	13.4	4.9
	기타	53	15.1	3.8	13.2	1.9	5.7	15.1	9.4	26.4	5.7	3.8	0.0
취 업 희 망 분 야 *	제조업	359	21.4	5.3	11.4	2.2	8.6	9.7	6.7	15.6	8.6	10.3	0.0
	건설업	229	18.8	5.7	7.0	3.9	7.9	10.0	9.2	16.2	11.8	9.2	0.4
	도·소매업	169	18.3	3.0	10.1	2.4	8.9	13.6	4.7	17.8	8.3	13.0	0.0
	숙박 및 요식업	163	17.2	3.7	10.4	4.3	7.4	11.0	5.5	17.8	10.4	11.7	0.6
	금융 및 서비스업	688	21.2	3.9	10.9	4.5	5.8	10.8	6.4	17.7	6.0	11.0	1.7
	공공행정 서비스업	837	22.2	4.2	13.3	3.5	5.5	8.7	4.8	19.8	7.8	9.6	0.7
	사회복지·교육업	634	18.1	5.7	10.6	4.1	6.8	9.1	5.7	18.3	11.0	9.3	1.3
	창업희망	320	17.5	4.4	11.3	4.7	7.2	7.8	6.9	17.2	10.6	11.3	1.3
	기타	65	15.4	4.6	9.2	4.6	3.1	10.8	6.2	10.8	13.8	18.5	3.1

※ 취업희망분야는 복수응답으로 총 3,464건이 도출됨

### 3. 청년 취업 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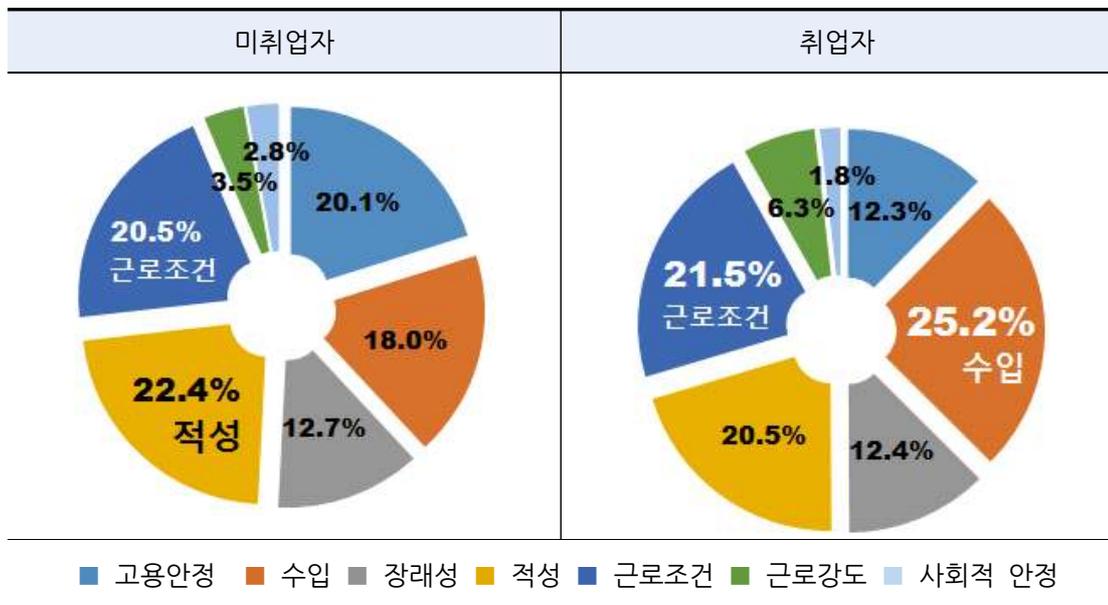
#### 3.1 취업 고려 조건

##### □ 종합

- 취업의 최우선 고려조건은 미취업자의 경우 ‘적성’ (22.4%)인데 비해, 취업자는 ‘수입’ (25.2%)이고, 2위는 모두 ‘근로조건’ (20.5%, 21.5%)으로 나타남
- 그 뒤로 미취업자의 고려조건은 ‘고용안정’ (20.1%), ‘장래성’ (12.7%), ‘사회적 안정’ (2.8%)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자는 ‘근로강도’ (6.3%)를 상대적으로 중시함

그림 4-3. 취업 고려 조건

(단위: 건, %)





## □ 미취업자

- 미취업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최우선 조건은 유형별 ‘적성’ (22.4%), ‘근로조건(20.5%)’, ‘고용안정’ (20.1%)으로 분류됨
- 남성은 ‘적성’ (23.9%), 여성은 ‘근로조건’ (22.7%)을 취업 조건으로 우선시함
- 20~25세는 ‘적성(24.4%), 26~30세와 31~35세는 ‘고용안정’ (25.5%, 26.5%씩)을 우선시하는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입’, ‘근로조건’, ‘근로강도’는 비중이 감소하고, ‘고용안정’ 과 ‘장래성’ 의 비중은 증가
- 학력별로는 ‘고졸미만’, ‘4년제 졸업’, ‘대학원 졸업’ 은 ‘고용안정’ (각 33.3%, 21.1%, 21.6%)을 우선시하며, ‘고졸’ 은 ‘적성’ (25.1%), ‘전문대졸업’ 은 ‘고용안정’ 과 ‘근로조건’ (각 21.1%씩)을 동시에 중요시함
- 전공별로는 ‘인문사회’, ‘공학’, ‘예체능’ 은 ‘적성’ (22.6%, 21.2%, 28.8%), ‘자연과학’, ‘교육’ 전공자는 ‘고용안정’ (23.5%, 30.4%), ‘보건의료’ 는 ‘근로조건’ (25.0%)을 중요시함

표 4-9. 미취업자의 취업 고려 조건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고용 안정	수입	장래성	적성	근로 조건	근로 강도	사회적 안정
계		1,000	20.1	18.0	12.7	22.4	20.5	3.5	2.8
성별	남성	490	20.6	19.0	11.8	23.9	18.2	3.5	3.1
	여성	510	19.6	17.1	13.5	21.0	22.7	3.5	2.5
나이	20세~25세	684	17.5	18.1	12.1	24.4	21.1	3.9	2.8
	26세~30세	282	25.5	17.7	13.1	18.1	20.2	2.8	2.5
	31세~35세	34	26.5	17.6	20.6	17.6	11.8	0.0	5.9
최종 학력	고졸미만	6	33.3	16.7	16.7	0.0	16.7	0.0	16.7
	고졸	526	18.3	17.7	12.9	25.1	19.8	3.8	2.5
	전문대졸	114	21.1	21.1	13.2	19.3	21.1	0.9	3.5
	4년제졸	338	21.6	17.8	12.7	20.1	21.0	4.1	2.7
	대학원졸	16	37.5	12.5	0.0	12.5	31.3	0.0	6.3
전공 계열	인문·사회	412	22.3	16.0	12.4	22.6	19.9	3.6	3.2
	자연·과학	98	23.5	21.4	12.2	18.4	17.3	4.1	3.1
	공학	264	18.6	20.1	14.8	21.2	20.1	3.0	2.3
	보건·의료	44	11.4	18.2	13.6	20.5	25.0	9.1	2.3
	교육	46	30.4	13.0	10.9	26.1	17.4	0.0	2.2
	예·체능	104	11.5	19.2	9.6	28.8	24.0	3.8	2.9
	기타	32	18.8	18.8	12.5	18.8	28.1	0.0	3.1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중	310	19.7	18.7	12.9	21.9	20.3	3.5	2.9
	구직활동중 아님	690	20.3	17.7	12.6	22.6	20.6	3.5	2.8

## □ 취업자

- 취업자의 일자리 고려 조건은 유형별로 ‘수입’ (25.2%), ‘근로조건’ (21.5%), ‘적성’ (20.5%) 등으로 집중됨
  - 남성은 ‘수입’ (29.0%)인데 비해, 여성은 ‘근로조건’ (26.0%)을 중시
  - 20~25세와 26~30세는 ‘수입’ (25.5%, 27.0%)을, 31~35세는 ‘근로조건’ (21.5%)을 중시함
  - ‘고졸미만’ 과 ‘대학원 졸업 이상’ 은 ‘적성’ (33.3%, 23.1%), ‘고졸’, ‘전문대 졸업’ 은 ‘수입’ (29.4%, 26.0%), ‘4년제 대학 졸업’ 은 ‘근로조건’ (25.4%)을 우선시함
  - 전공분야별로는 ‘교육’ 계열은 ‘적성’ (32.4%) ‘보건의료’ 와 ‘예체능’ 은 ‘근로조건’ (35.7%, 24.0%), 그 외 분야는 ‘수입’ 을 우선시함

표 4-10. 취업자의 취업 고려 조건

(단위: 건, %)

구 분		사례수	고용 안전	수입	장래성	적성	근로 조건	근로 강도	사회적 안정
계		1,000	12.3	25.2	12.4	20.5	21.5	6.3	1.8
성 별	남 성	476	13.2	29.0	14.5	18.7	16.6	6.7	1.3
	여 성	524	11.5	21.8	10.5	22.1	26.0	5.9	2.3
나 이	20세~25세	420	11.4	25.5	12.4	23.3	20.2	6.2	1.0
	26세~30세	422	11.4	27.0	11.8	18.0	22.7	6.4	2.6
	31세~35세	158	17.1	19.6	13.9	19.6	21.5	6.3	1.9
최종 학력	고졸미만	6	16.7	16.7	0.0	33.3	16.7	16.7	0.0
	고졸	350	12.9	29.4	10.9	23.7	18.0	4.6	0.6
	전문대졸	204	11.8	26.0	14.7	16.7	20.6	7.8	2.5
	4년제졸	414	11.8	21.7	12.6	19.3	25.4	6.8	2.4
	대학원졸	26	15.4	19.2	15.4	23.1	15.4	7.7	3.8
전공 계열	인문·사회	300	11.7	24.7	13.7	21.3	20.0	7.0	1.7
	자연·과학	130	14.6	26.2	10.0	23.1	16.9	6.9	2.3
	공학	244	11.9	29.5	13.1	18.9	19.7	5.7	1.2
	보건·의료	70	8.6	17.1	14.3	11.4	35.7	10.0	2.9
	교육	34	11.8	17.6	17.6	32.4	14.7	2.9	2.9
	예·체능	154	12.3	23.4	11.7	21.4	24.0	4.5	2.6
	기타	68	16.2	26.5	5.9	19.1	26.5	5.9	0.0
근무지 위치	안산시 내	688	12.5	25.0	11.5	21.8	20.6	6.8	1.7
	안산시 외	312	11.9	25.6	14.4	17.6	23.4	5.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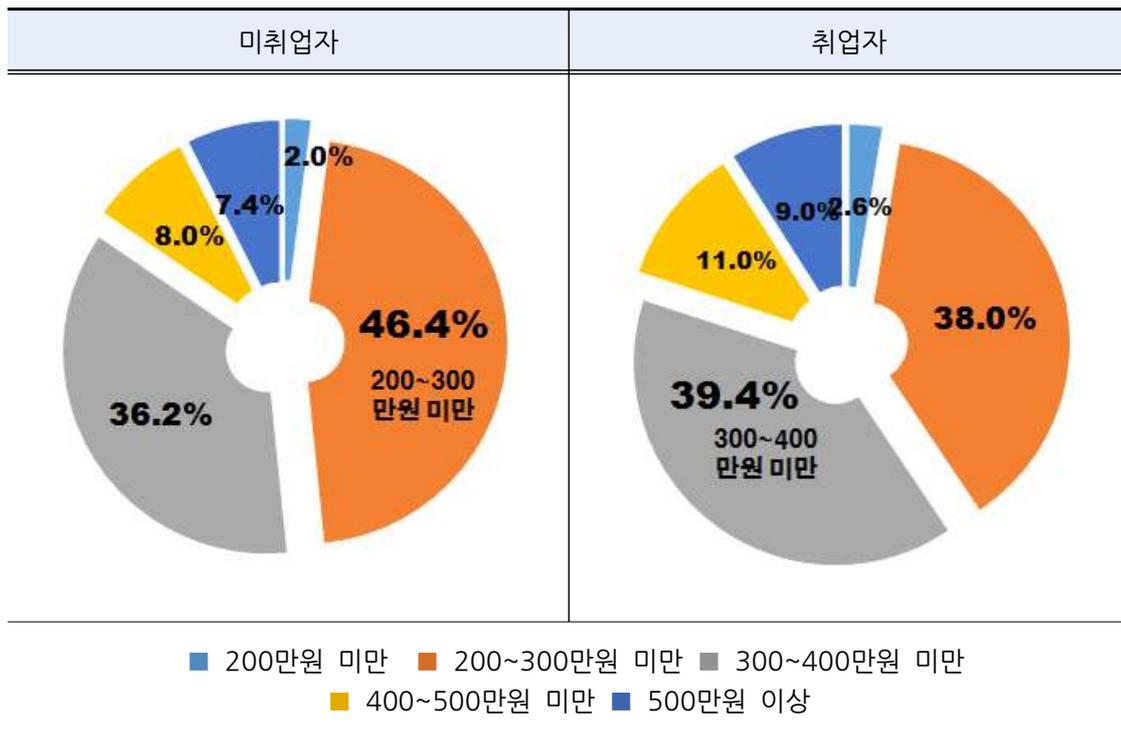
### 3.2. 최소 희망급여

#### □ 종합

- 가장 많은 최소 희망 급여 수준은 미취업자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 (46.4%), 취업자는 ‘300~400만원 미만’ (39.4%)이고, ‘200만원 미만’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 미취업자의 최소 희망급여는 ‘200~300만원 미만’ (46.4%), ‘300~400만원 미만’ (36.2%), ‘400~500만원 미만’ (8.0%), ‘500만원 이상’ (7.4%), ‘200만원 미만’ (2.0%) 등의 순임
- 취업자의 최소 희망급여는 ‘300~400만원 미만’ (39.4%), ‘200~300만원 미만’ (38.0%), ‘400~500만원 미만’ (11.0%), ‘500만원 이상’ (9.0%), ‘200만원 미만’ (2.6%) 등의 순임

그림 4-4. 최소 희망 급여

(단위: 건, %)



## □ 미취업자

- 미취업자의 최소 희망급여는 약 319.7만 원이며, 유형별 ‘200~300만원 미만’ (46.4%)이 가장 많은데, ‘남성’, ‘공학’ 전공자의 경우 ‘300~400만원 미만’ (41.6%, 47.7%)이 가장 많음
- 그 뒤로 ‘400~500만원 미만’ (8.0%), ‘500만원 이상’ (7.4%), ‘200만원 미만’ (2.0%) 순임

표 4-11. 미취업자의 최소 희망 급여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월 평균 희망급여	200만원 미만	200~ 300만원 미만	300~ 400만원 미만	400~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		500	319.7	2.0%	46.4%	36.2%	8.0%	7.4%
성 별	남 성	245	331.6	2.0%	38.0%	41.6%	9.8%	8.6%
	여 성	255	308.2	2.0%	54.5%	31.0%	6.3%	6.3%
나 이	20세~25세	342	320.4	2.6%	45.9%	34.8%	9.4%	7.3%
	26세~30세	141	317.0	0.7%	47.5%	39.7%	5.0%	7.1%
	31세~35세	17	326.5	0.0%	47.1%	35.3%	5.9%	11.8%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316.7	0.0%	66.7%	0.0%	33.3%	0.0%
	고졸	263	326.0	2.3%	43.3%	35.7%	10.3%	8.4%
	전문대졸	57	299.1	7.0%	52.6%	31.6%	1.8%	7.0%
	4년제졸	169	318.3	0.0%	47.9%	39.1%	6.5%	6.5%
	대학원졸	8	287.5	0.0%	62.5%	37.5%	0.0%	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206	319.4	0.5%	51.0%	31.6%	8.7%	8.3%
	자연·과학	49	318.4	0.0%	46.9%	40.8%	6.1%	6.1%
	공학	132	336.7	2.3%	32.6%	47.7%	6.8%	10.6%
	보건·의료	22	306.8	4.5%	50.0%	31.8%	13.6%	0.0%
	교육	23	302.2	0.0%	52.2%	43.5%	4.3%	0.0%
	예·체능	52	299.0	5.8%	57.7%	23.1%	9.6%	3.8%
	기타	16	296.8	12.5%	50.0%	25.0%	6.3%	6.3%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중	155	308.4	1.9%	51.6%	36.1%	5.2%	5.2%
	구직활동중 아님	345	324.8	2.0%	44.1%	36.2%	9.3%	8.4%

## □ 취업자

- 취업자의 최소 희망 급여는 약 332.6만 원이고 유형별 가장 원하는 최소 희망 급여 수준은 ‘300~400만원 미만’ (39.4%), ‘200~300만원 미만’ (38.0%), ‘300~400만원 미만’ (11.0%) 등으로 분류됨
  - ‘200~300만원 미만’ 이 가장 많은 유형은 ‘여성’ (48.9%), ‘20~25세’ (44.8%), ‘전문대 졸업’ (51.0%), ‘공학’ 전공자 ‘를 제외한 전 전공분야별 유형으로 나타남
  - ‘300~400만원 미만’ 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는 ‘26~30세’ (43.1%), ‘31~35세’ (38.0%), ‘고졸’ (40.6%), ‘4년제 대학 졸업’ (41.5%), ‘대학원 졸업 이상’ (69.2%), ‘공학’ 전공자 ‘(50%)임
  - ‘고졸 미만’ 은 ‘400~500만원 미만’ (66.7%)이 가장 많고, ‘교육’ 전공자는 ‘200~500만원 미만’ 대에 고르게 분포

표 4-12. 취업자의 최소 희망 급여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월 평균 희망급여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		500	332.6	2.6	38.0	39.4	11.0	9.0
성 별	남 성	238	358.4	1.3	26.1	43.3	15.5	13.9
	여 성	262	309.1	3.8	48.9	35.9	6.9	4.6
나 이	20세~25세	210	316.1	4.3	44.8	36.2	9.5	5.2
	26세~30세	211	341.2	1.4	33.6	43.1	11.4	10.4
	31세~35세	79	353.2	1.3	31.6	38.0	13.9	15.2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366.3	33.3	0.0	0.0	66.7	0.0
	고졸	175	332.8	4.6	35.4	40.6	8.0	11.4
	전문대졸	102	312.2	2.9	51.0	30.4	11.8	3.9
	4년제졸	207	340.6	0.5	35.7	41.5	12.6	9.7
	대학원졸	13	353.8	0.0	15.4	69.2	7.7	7.7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327.0	1.3	42.7	38.7	8.7	8.7
	자연·과학	65	326.9	3.1	44.6	32.3	7.7	12.3
	공학	122	357.8	1.6	21.3	50.0	18.0	9.0
	보건·의료	35	317.1	0.0	45.7	42.9	8.6	2.9
	교육	17	349.9	5.9	29.4	29.4	29.4	5.9
	예·체능	77	303.2	6.5	51.9	29.9	5.2	6.5
	기타	34	351.4	2.9	29.4	41.2	8.8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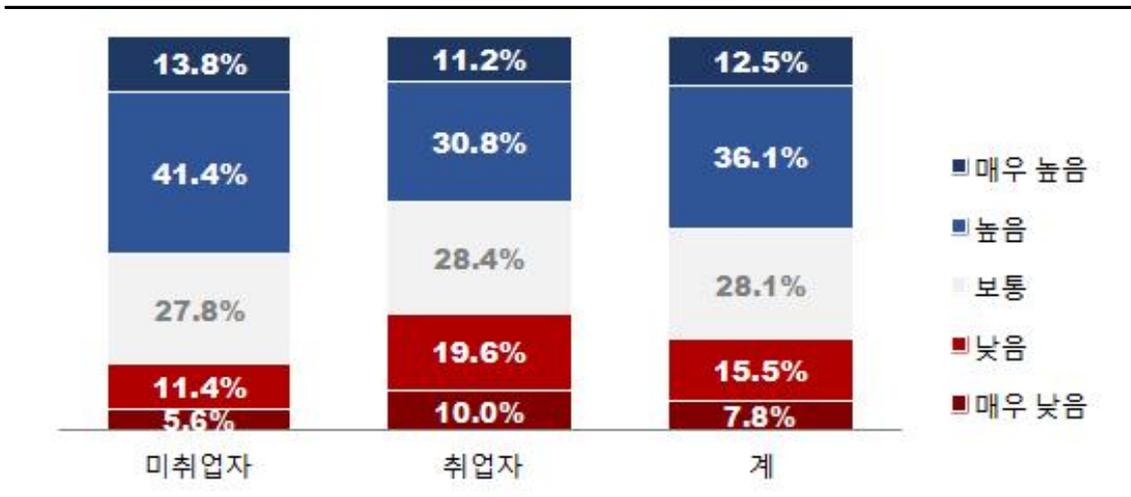
### 3.3. 전공지식 도움 정도

#### □ 종합

- 청년이 느끼는 전공지식의 취업에 대한 도움 정도는 48.6%가 긍정의견을 보였는데, 미취업자의 긍정률(55.2%)이 취업자(42.0%) 보다 높았음

그림 4-5. 미취업자의 전공지식 도움 정도

(단위: 명, %)



#### □ 미취업자

- 미취업자가 느끼는 전공지식의 취업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긍정의견은 55.2%이며, 5점 기준으로 3.46점임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전공분야 취업 희망도가 높을수록 긍정률은 높아지며, 특히 ‘대학원 졸업 이상’ (62.5%), ‘공학’ (67.4%)과 ‘교육’ (65.2%) 전공 계열의 긍정률은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 반면, ‘고졸미만’의 경우 긍정률이 0%로 매우 낮으며, ‘31~35세’, ‘보건의료’, ‘예체능’ 전공계열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률을 보임



표 4-13. 미취업자의 전공지식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평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긍정률
계		500	3.46	5.6	11.4	27.8	41.4	13.8	55.2
성 별	남 성	245	3.45	4.1	12.2	29.8	42.4	11.4	53.8
	여 성	255	3.48	7.1	10.6	25.9	40.4	16.1	56.5
나 이	20세~25세	342	3.49	5.8	10.2	27.8	41.8	14.3	56.1
	26세~30세	141	3.44	5.0	13.5	27.0	41.8	12.8	54.6
	31세~35세	17	3.24	5.9	17.6	35.3	29.4	11.8	41.2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2.67	0.0	33.3	66.7	0.0	0.0	0
	고졸	263	3.44	6.5	11.0	26.6	43.3	12.5	55.8
	전문대졸	57	3.56	3.5	8.8	29.8	43.9	14.0	57.9
	4년제졸	169	3.47	4.7	12.4	29.0	39.1	14.8	53.9
	대학원졸	8	3.63	12.5	12.5	12.5	25.0	37.5	62.5
전공 계열	인문·사회	206	3.37	6.3	12.1	31.1	38.8	11.7	50.5
	자연·과학	49	3.37	6.1	12.2	26.5	49.0	6.1	55.1
	공학	132	3.70	3.0	7.6	22.0	51.5	15.9	67.4
	보건·의료	22	3.41	4.5	18.2	31.8	22.7	22.7	45.4
	교육	23	3.70	13.0	8.7	13.0	26.1	39.1	65.2
	예·체능	52	3.25	5.8	17.3	34.6	30.8	11.5	42.3
	기타	16	3.44	6.3	6.3	31.3	50.0	6.3	56.3
전공분야 취업 희망도	매우 낮음	45	2.53	17.8	28.9	37.8	13.3	2.2	15.5
	낮음	25	3.24	0.0	16.0	48.0	32.0	4.0	36
	보통	85	3.09	5.9	18.8	36.5	37.6	1.2	38.8
	높음	125	3.60	0.0	8.0	29.6	56.8	5.6	62.4
	매우 높음	220	3.75	6.8	6.4	19.1	40.9	26.8	67.7

## □ 취업자

- 취업자가 느끼는 전공 지식의 취업 및 취업 후 업무 활용에 대한 도움 정도는 5점 기준으로 평균 약 3.14점이며, 42.0%의 긍정률을 보임
- 취업자 유형별 대부분은 전공지식의 도움도가 ‘높음’ (30.8%)으로 나타났으나, ‘고졸미만’, ‘고졸’ 학력자와 ‘교육’, ‘예체능’ 전공자의 경우 ‘보통’의 비중이 더 높음
- 반면 ‘대학원 졸업 이상’ (84.7%), ‘보건의료’ (60.0%)는 전공 지식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긍정률이 60% 이상으로 높음

표 4-14. 취업자의 전공지식 활용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평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긍정률
계		500	3.14	10.0	19.6	28.4	30.8	11.2	42
성 별	남 성	238	3.20	7.6	20.2	28.2	32.8	11.3	44.1
	여 성	262	3.08	12.2	19.1	28.6	29.0	11.1	40.1
나 이	20세~25세	210	3.11	10.5	15.7	32.9	33.8	7.1	40.9
	26세~30세	211	3.12	11.4	21.8	24.6	28.0	14.2	42.2
	31세~35세	79	3.24	5.1	24.1	26.6	30.4	13.9	44.3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2.67	33.3	0.0	33.3	33.3	0.0	33.3
	고졸	175	2.96	12.6	20.6	31.4	29.1	6.3	35.4
	전문대졸	102	2.97	12.7	22.5	27.5	29.4	7.8	37.2
	4년제졸	207	3.31	6.8	18.4	27.5	31.9	15.5	47.4
전공 계열	대학원졸	13	4.15	0.0	7.7	7.7	46.2	38.5	84.7
	인문·사회	150	2.89	14.7	25.3	24.0	28.7	7.3	36
	자연·과학	65	3.22	9.2	18.5	24.6	36.9	10.8	47.7
	공학	122	3.39	4.9	13.9	32.8	34.4	13.9	48.3
	보건·의료	35	3.71	0.0	14.3	25.7	34.3	25.7	60
	교육	17	3.53	0.0	17.6	35.3	23.5	23.5	47
	예·체능	77	2.87	13.0	24.7	32.5	22.1	7.8	29.9
기타	34	3.00	17.6	11.8	29.4	35.3	5.9	41.2	



### 3.4. 전공 분야 취업 희망도

#### □ 미취업자

- 미취업자의 전공 분야 취업 희망도는 성별, 전공 분야별 모두 ‘매우 높음’이 가장 많고 평점 3.90점으로 매우 높은데, ‘고졸 미만’은 ‘보통’(100%), ‘31~35세’는 ‘높음’(29.4%) 다음으로 ‘매우 높음’과 ‘매우 낮음’이 공통 23.5%씩으로 나타나 이원화됨
- 전공 중 ‘교육’(69.6%), ‘예체능’ 분야의 전공 연계 취업 희망도는 ‘매우 높음’이 가장 높았고, 전공지식의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연계 희망 정도가 높음

표 4-15. 미취업자의 전공분야 취업 희망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평점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긍정률
계		500	3.90	9.0	5.0	17.0	25.0	44.0	69
성 별	남 성	245	3.94	8.2	4.1	16.7	27.8	43.3	71.1
	여 성	255	3.86	9.8	5.9	17.3	22.4	44.7	67.1
나 이	20세~25세	342	3.94	8.2	4.7	17.8	23.4	45.9	69.3
	26세~30세	141	3.89	9.2	5.0	15.6	28.4	41.8	70.2
	31세~35세	17	3.18	23.5	11.8	11.8	29.4	23.5	52.9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3.00	0.0	0.0	100.0	0.0	0.0	0
	고졸	263	3.98	7.6	4.6	16.7	24.3	46.8	71.1
	전문대졸	57	3.68	14.0	5.3	15.8	28.1	36.8	64.9
	4년제졸	169	3.83	9.5	5.9	17.2	26.6	40.8	67.4
	대학원졸	8	4.50	12.5	0.0	0.0	0.0	87.5	87.5
전공 계열	인문·사회	206	3.71	8.3	6.3	24.8	27.2	33.5	60.7
	자연·과학	49	3.69	12.2	4.1	22.4	24.5	36.7	61.2
	공학	132	4.05	9.1	4.5	7.6	29.5	49.2	78.7
	보건·의료	22	3.77	13.6	4.5	13.6	27.3	40.9	68.2
	교육	23	4.52	0.0	4.3	8.7	17.4	69.6	87
	예·체능	52	4.19	11.5	1.9	9.6	9.6	67.3	76.9
	기타	16	4.00	6.3	6.3	18.8	18.8	50.0	68.8
전공 지식 도움 정도	매우 낮음	28	3.50	28.6	0.0	17.9	0.0	53.6	53.6
	낮음	57	3.14	22.8	7.0	28.1	17.5	24.6	42.1
	보통	139	3.54	12.2	8.6	22.3	26.6	30.2	56.8
	높음	207	4.12	2.9	3.9	15.5	34.3	43.5	77.8
	매우 높음	69	4.77	1.4	1.4	1.4	10.1	85.5	95.6

### 3.5. 취업 희망 분야

#### □ 미취업자

- 미취업자의 최고 취업 희망 분야는 남녀, 전 연령대별 ‘공공행정 서비스업’ (25.3%)인데, 유형별 ‘금융 및 서비스업’ (19.7%) 또는 ‘사회복지, 교육업’ (18.1%) 선호도가 높으며, ‘도·소매업’ 과 ‘숙박 및 요식업’ 은 하위 선호 항목으로 도출됨
- ‘고졸미만’ 은 ‘건설업’ (33.3%), ‘전문대 졸업’ 은 ‘금융 및 서비스업’ (21.9%), ‘공학’ 전공자는 ‘제조업’ (26.1%), ‘보건의료’ 와 ‘교육’ 은 ‘사회복지 교육업’ 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표 4-16. 미취업자의 취업 희망 분야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요식업	금융 및 서비스업	공공행정 서비스업	사회복지 교육업	창업 희망	기타
계		1,000	10.5	5.9	4.7	4.4	19.7	25.3	18.1	9.5	1.9
성 별	남 성	490	14.7	8.0	5.9	4.1	17.6	23.5	13.9	10.4	2.0
	여 성	510	6.5	3.9	3.5	4.7	21.8	27.1	22.2	8.6	1.8
나 이	20세~25세	684	10.8	5.0	4.8	4.5	20.0	24.6	18.1	10.5	1.6
	26세~30세	282	10.3	8.5	5.0	4.3	17.7	25.9	18.1	7.4	2.8
	31세~35세	34	5.9	2.9	0.0	2.9	29.4	35.3	17.6	5.9	0.0
최종 학력	고졸미만	6	16.7	33.3	0.0	16.7	0.0	0.0	16.7	0.0	16.7
	고졸	526	10.3	4.2	3.6	4.8	21.3	25.1	18.1	11.0	1.7
	전문대졸	114	14.0	6.1	7.0	5.3	21.9	21.1	18.4	5.3	0.9
	4년제졸	338	9.8	8.0	5.6	3.6	17.2	26.9	17.8	9.2	2.1
	대학원졸	16	6.3	6.3	6.3	0.0	12.5	37.5	25.0	0.0	6.3
전공 계열	인문·사회	412	3.4	1.9	4.6	4.6	25.7	28.6	20.1	9.5	1.5
	자연·과학	98	13.3	4.1	5.1	6.1	24.5	24.5	14.3	5.1	3.1
	공학	264	26.1	15.9	4.9	2.7	9.8	18.9	9.8	10.6	1.1
	보건·의료	44	6.8	0.0	0.0	4.5	18.2	34.1	34.1	2.3	0.0
	교육	46	0.0	2.2	2.2	0.0	4.3	32.6	43.5	10.9	4.3
	예·체능	104	4.8	1.0	6.7	2.9	23.1	25.0	16.3	15.4	4.8
	기타	32	3.1	9.4	6.3	21.9	21.9	15.6	18.8	3.1	0.0

### 3.6 취업 지원 필요 분야

- 미취업자가 느끼는 취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분야는 유형별 ‘취업(창업) 관련 상세 정보’ (28.4%)가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보건의료’와 ‘교육’ 전공자는 ‘직업훈련 및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도 함께 공동 1위로 응답함
-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유형은 ‘31~35세’ (26.9%), 와 ‘예체능’ (25.0%) 전공자였으며, ‘자연과학’ 전공자는 ‘취업 관련 상세정보’, ‘직업훈련 및 다양한 교육기회’, ‘경제적 지원’이 모두 우선 필요하다고 응답함(각각 24.1%씩)
- ‘공공근로인턴 등 일자리 제공’ (21.7%)은 전체 2위이나 유형별 1순위에 해당되지 않아 추가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4-17. 미취업자의 취업지원 필요 분야

(단위: 건, %)

구 분		사례수	직업훈련 및 다양한 교육기회부여	취업(창업) 관련 상세 정보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경제적지원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 지원	스몰비즈니스 힐링, 공감 프로그램지원	일자리제공 (공공근로 ,인턴 등)
계		584	20.9	28.4	19.9	6.0	3.1	21.7
성 별	남 성	278	21.2	30.6	19.1	6.5	3.2	19.4
	여 성	306	20.6	26.5	20.6	5.6	2.9	23.9
나 이	20세~25세	389	20.8	30.6	20.1	4.4	2.6	21.6
	26세~30세	169	20.7	24.3	18.3	8.3	4.7	23.7
	31세~35세	26	23.1	23.1	26.9	15.4	0.0	11.5
최종 학력	고졸미만	4	25.0	50.0	0.0	0.0	0.0	25.0
	고졸	302	23.2	30.5	19.2	4.6	2.3	20.2
	전문대졸	60	18.3	25.0	18.3	8.3	8.3	21.7
	4년제졸	210	19.0	26.2	21.4	6.2	2.9	24.3
	대학원졸	8	0.0	25.0	25.0	37.5	0.0	12.5
전공 계열	인문·사회	240	21.3	27.9	17.5	5.8	1.7	25.8
	자연·과학	58	24.1	24.1	24.1	3.4	3.4	20.7
	공학	156	17.3	30.8	20.5	4.5	4.5	22.4
	보건의료	23	30.4	30.4	17.4	8.7	4.3	8.7
	교육	29	27.6	27.6	20.7	10.3	0.0	13.8
	예·체능	60	20.0	23.3	25.0	10.0	5.0	16.7
	기타	18	16.7	44.4	16.7	5.6	5.6	11.1

### 3.7. 구직 시 어려운 점

#### □ 미취업자

- 미취업자가 구직 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원하는 기업·분야 취업 어려움’ (24.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편견·차별(학벌, 스펙 등)(19.3%)’ 과 ‘정규직 일자리 부족’ (19.0%) 등이 그 뒤를 따름
- 2순위인 ‘사회적 편견, 차별’ 을 구직 시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는 유형은 ‘구직기간이 3~6개월 미만’ 인 미취업자였음
- ‘정규직 일자리 부족’ 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느끼고 있는 유형은 ‘31~35세’ (26.5%), ‘고졸미만’ (33.3%), ‘대학원졸업 이상’ (37.5%), ‘교육’ 전 공자(34.8%)로 나타남
- ‘원하는 기업·분야의 취업 어려움’ 과 ‘정규직 일자리 부족’ 을 공통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있는 유형은 구직기간이 ‘6~12개월 미만’ (20.6%), ‘36개월 이상’ (28.6%)인 미취업자임
- ‘정보부족’ 이 구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느끼는 유형은 ‘보건의료’ 전공계열임
  - 남녀 모두 ‘원하는 기업·분야 취업 어려움’ (26.9%, 22.0%)이 가장 높으나, 그 뒤로 남성은 ‘정규직 일자리 부족’ (18.4%), 여성은 ‘사회적 편견·차별’ (20.4%)로 나타남
  - 20~25세와 26~30세는 ‘원하는 기업·분야 취업 어려움’ (24.1%, 25.2%)이 1위인데 비해, 31세~35세 청년은 ‘정규직 일자리 부족’ (26.5%)이 가장 높았음
  - ‘고졸미만’ 과 ‘대학원 졸업 이상’ 은 ‘정규직 일자리 부족’ (33.3%, 37.5%)이 가장 어려웠고, 그 외 학력자는 ‘원하는 기업 분야의 취업 어려움’ 이 1위임(24.3%, 24.6%, 24.3%)
  - 전공별로 구직 시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 계열은 ‘정규직 일자리 부족’ (34.8%), ‘보건의료’ 는 ‘정보부족’ 과 ‘원하는 기업 분야의 취업 어려움’ 이 공동 1위로 나타남(22.7%씩)

- 구직 활동 기간별 구직 시 어려운 점은 ‘3~6개월 미만’ 은 ‘사회적 편견, 차별’ (30.0%), ‘6~12개월 미만’ 과 ‘36개월 이상’ 은 ‘정규직 일자리 부족’ 과 ‘원하는 기업 분야의 어려움’ (각각 20.6%, 28.6%씩)을 공통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음

표 4-18. 미취업자의 취업 구직 시 어려운 점

(단위: 건, %)

구분		사례 수	정규직 일자리 부족	정보 부족 채용고등	원하는 기업이 취업어음	취업준비 비용부담	사회적 편견차별 차별시책등	취업준비를 위한 공간 부족	적성 파악 어려움
계		1,000	19.0	12.3	24.4	10.3	19.3	2.8	11.9
성 별	남 성	490	18.4	14.1	26.9	10.0	18.2	3.1	9.4
	여 성	510	19.6	10.6	22.0	10.6	20.4	2.5	14.3
나 이	20세~25세	684	17.7	12.4	24.1	9.9	20.5	2.8	12.6
	26세~30세	282	21.3	11.7	25.2	11.3	16.7	2.5	11.3
	31세~35세	34	26.5	14.7	23.5	8.8	17.6	5.9	2.9
최종 학력	고졸미만	6	33.3	0.0	16.7	16.7	16.7	16.7	0.0
	고졸	526	16.7	12.2	24.3	9.5	21.1	2.5	13.7
	전문대졸	114	21.9	14.9	24.6	9.6	16.7	3.5	8.8
	4년제졸	338	20.4	12.4	24.3	11.5	17.8	2.7	10.9
	대학원졸	16	37.5	0.0	31.3	12.5	12.5	6.3	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412	19.9	10.4	21.6	10.9	19.7	2.7	14.8
	자연·과학	98	16.3	14.3	26.5	10.2	18.4	2.0	12.2
	공학	264	18.2	13.6	26.5	9.8	18.2	3.0	10.6
	보건·의료	44	13.6	22.7	22.7	11.4	18.2	2.3	9.1
	교육	46	34.8	13.0	23.9	10.9	10.9	4.3	2.2
	예·체능	104	19.2	7.7	28.8	8.7	23.1	3.8	8.7
	기타	32	6.3	18.8	25.0	9.4	28.1	0.0	12.5
구직 기간	3개월 미만	762	19.4	13.1	24.0	9.7	18.6	2.6	12.5
	3~6개월 미만	90	10.0	10.0	25.6	13.3	30.0	3.3	7.8
	6~12개월 미만	68	20.6	10.3	20.6	11.8	17.6	7.4	11.8
	12~24개월 미만	48	25.0	10.4	29.2	8.3	12.5	0.0	14.6
	24~36개월 미만	18	16.7	5.6	33.3	27.8	16.7	0.0	0.0
	36개월 이상	14	28.6	7.1	28.6	0.0	21.4	0.0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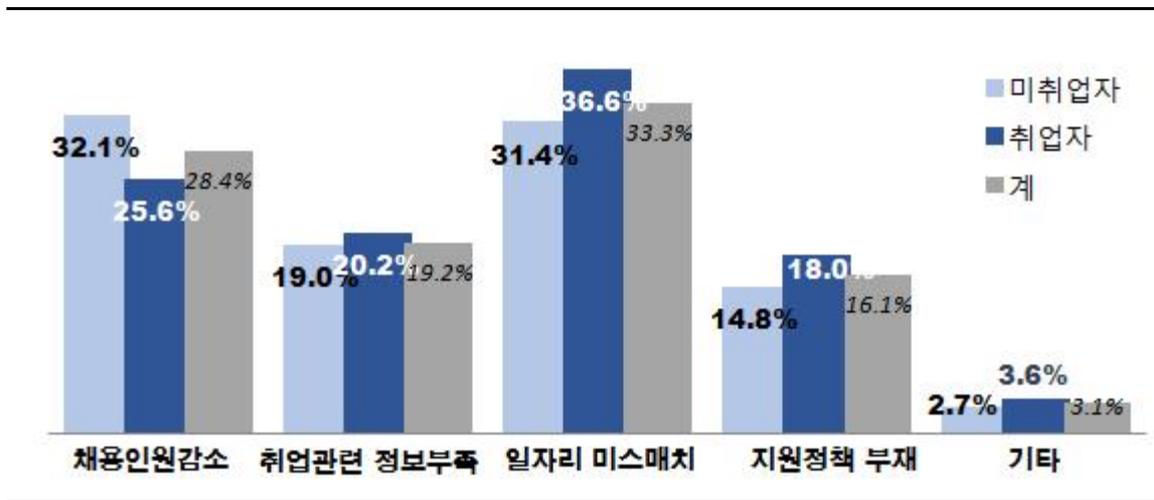
### 3.8. 취업 애로사항

#### □ 종합

- 청년이 느끼는 취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미취업자는 ‘채용인원감소’ (32.1%), 취업자는 ‘일자리미스매치’ (36.6%)로 나타남

그림 4-6. 취업 애로사항

(단위: 명, %)



#### □ 미취업자

- 미취업자가 느끼는 취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유형별 ‘채용인원 감소’ (32.1%)와 ‘일자리 미스매치’ (31.4%)로 집중됨
- 남성은 ‘일자리 미스매치’ (34.0%), 여성은 ‘채용인원 감소’ (35.6%)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으며, ‘취업 관련 정보 부족’은 남성이 더 크게 느끼고 있음
- 연령별로는 20~25세와 26~30세는 ‘채용인원 감소’ (33.0%, 31.4%), ‘일자리 미스매치’(31.5%, 30.7%) 등의 순인데 비해, 31~35세는 ‘취업관련 정보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 (각각 33.3%)의 애로가 가장 높았음
-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업’, ‘4년제 졸업’, ‘대학원 졸업자’는 ‘일자리 미스매치’ (각각 35.1%, 32.6%, 50.0%)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고, ‘고졸미만’, ‘고졸’은 ‘채용인원 감소’ (75.0%, 34.1%)로 나타남
- 구직 활동 중인 청년은 ‘일자리 미스매치’ (35.0%), 구직 활동 중이 아닌 청년은 ‘채용인원 감소’ (33.3%)를 취업 시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표 4-19. 미취업자의 취업 애로사항

(단위: 건, %)

구 분		사례수	채용인원 감소	취업관련 정보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일자리 지원정책부재	기타
계		526	32.1	19.0	31.4	14.8	2.7
성 별	남 성	256	28.5	20.3	34.0	14.8	2.3
	여 성	270	35.6	17.8	28.9	14.8	3.0
나 이	20세~25세	355	33.0	17.7	31.5	15.2	2.5
	26세~30세	153	31.4	20.3	30.7	14.4	3.3
	31세~35세	18	22.2	33.3	33.3	11.1	0.0
최종 학력	고졸미만	4	75.0	25.0	0.0	0.0	0.0
	고졸	273	34.1	18.7	29.7	14.7	2.9
	전문대졸	57	26.3	24.6	35.1	12.3	1.8
	4년제졸	184	30.4	17.9	32.6	16.8	2.2
	대학원졸	8	25.0	12.5	50.0	0.0	12.5
전공 계열	인문·사회	219	31.1	15.1	32.9	17.4	3.7
	자연·과학	51	29.4	19.6	23.5	25.5	2.0
	공학	136	36.8	18.4	33.8	9.6	1.5
	보건·의료	23	26.1	21.7	34.8	13.0	4.3
	교육	25	40.0	28.0	20.0	8.0	4.0
	예·체능	55	27.3	25.5	32.7	12.7	1.8
	기타	17	29.4	35.3	23.5	11.8	0.0
구직활 동여부	구직활동중	163	29.4	17.8	35.0	16.0	1.8
	구직활동중이 아님	363	33.3	19.6	29.8	14.3	3.0
전공 분야 취업 희망도	매우 낮음	48	29.2	18.8	41.7	10.4	0.0
	낮음	25	48.0	8.0	32.0	12.0	0.0
	보통	89	29.2	20.2	28.1	16.9	5.6
	높음	131	27.5	18.3	32.1	19.8	2.3
	매우 높음	233	34.8	20.2	30.0	12.4	2.6

## □ 취업자

- 취업자의 가장 큰 취업 애로사항은 전 유형에 걸쳐 ‘일자리 미스매치’ (35.2%)가 대부분이었는데, ‘교육’ 전공자와 ‘고졸미만’ 학력자는 ‘청년일자리 지원정책 부재’ (38.9%, 66.7%)라고 느낌
  - 성별에 따라 남녀 모두 1순위로 ‘일자리 미스매치’ (36.3%, 34.2%)를 선택했고, 2순위로 ‘채용인원 감소’ (21.6%, 27.3%)가 도출됨
  - 전공 계열에 따라 ‘교육’ 계열을 제외하고 모두 1순위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도출되었고, ‘채용인원 감소’가 2순위로 나타남

표 4-20. 취업자의 취업 애로사항

(단위: 건, %)

구 분		사례수	채용인원 감소	취업관련 정보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일자리 지원정책부재	기타
계		520	24.6	19.4	35.2	17.3	3.5
성 별	남 성	245	21.6	19.6	36.3	19.6	2.9
	여 성	275	27.3	19.3	34.2	15.3	4.0
나 이	20세~25세	219	27.4	20.1	35.6	15.1	1.8
	26세~30세	219	21.5	18.7	35.6	21.0	3.2
	31세~35세	82	25.6	19.5	32.9	13.4	8.5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0.0	33.3	0.0	66.7	0.0
	고졸	179	23.5	17.9	38.0	18.4	2.2
	전문대졸	107	27.1	19.6	29.9	19.6	3.7
	4년제졸	218	25.2	18.3	36.2	15.6	4.6
	대학원졸	13	15.4	53.8	30.8	0.0	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4	24.0	18.2	37.7	13.6	6.5
	자연·과학	69	23.2	20.3	33.3	23.2	0.0
	공학	124	22.6	21.0	41.1	14.5	0.8
	보건·의료	36	27.8	19.4	30.6	19.4	2.8
	교육	18	11.1	16.7	27.8	38.9	5.6
	예·체능	83	27.7	19.3	31.3	16.9	4.8
	기타	36	33.3	19.4	25.0	19.4	2.8

### 3.9. 중소기업 취업 촉진 필요 사항

#### □ 미취업자

- 미취업자가 느끼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전 유형별 모두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으로 나타남
-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보장’에 대한 비율이 높아짐

표 4-21.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개선 요구사항

(단위: 건, %)

구 분		사례 수	안정적 일자리 보장	임금 및 복지 수준향상	대기업으로 전직 가능성	우량 중소 기업 발굴 홍보	구직자 취업장려 수당	중소기업 인건비 보조	기타
계		1,000	28.5	41.2	6.3	10.2	7.3	6.2	0.3
성 별	남 성	490	26.7	39.4	8.4	11.6	8.4	5.1	0.4
	여 성	510	30.2	42.9	4.3	8.8	6.3	7.3	0.2
나 이	20세~25세	684	27.6	41.1	6.1	10.4	7.3	7.0	0.4
	26세~30세	282	30.1	40.4	7.1	10.3	8.2	3.9	0.0
	31세~35세	34	32.4	50.0	2.9	5.9	0.0	8.8	0.0
최종 학력	고졸미만	6	0.0	50.0	0.0	16.7	16.7	16.7	0.0
	고졸	526	28.5	39.9	5.1	10.3	8.0	7.8	0.4
	전문대졸	114	26.3	39.5	10.5	8.8	8.8	5.3	0.9
	4년제졸	338	29.3	43.5	7.1	10.4	5.9	3.8	0.0
	대학원졸	16	37.5	43.8	0.0	12.5	0.0	6.3	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412	26.5	42.2	4.4	11.4	8.0	7.3	0.2
	자연·과학	98	35.7	40.8	9.2	6.1	3.1	4.1	1.0
	공학	264	24.6	40.2	8.0	12.5	8.3	6.4	0.0
	보건·의료	44	40.9	43.2	2.3	4.5	6.8	2.3	0.0
	교육	46	30.4	41.3	10.9	6.5	6.5	4.3	0.0
	예·체능	104	33.7	41.3	6.7	7.7	3.8	5.8	1.0
	기타	32	28.1	34.4	6.3	9.4	15.6	6.3	0.0
구직 활동 여부	구직활동중	310	25.8	41.3	10.3	9.7	8.1	4.5	0.3
	구직활동중 아님	690	29.7	41.2	4.5	10.4	7.0	7.0	0.3

## □ 취업자

- 취업자가 느끼는 중소기업 촉진을 위한 필요 사항은 전 유형별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 (40.1%), ‘안정적 일자리 보장’ (28.5%) 등으로 미취업자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남

표 4-22. 취업자의 중소기업 개선 요구사항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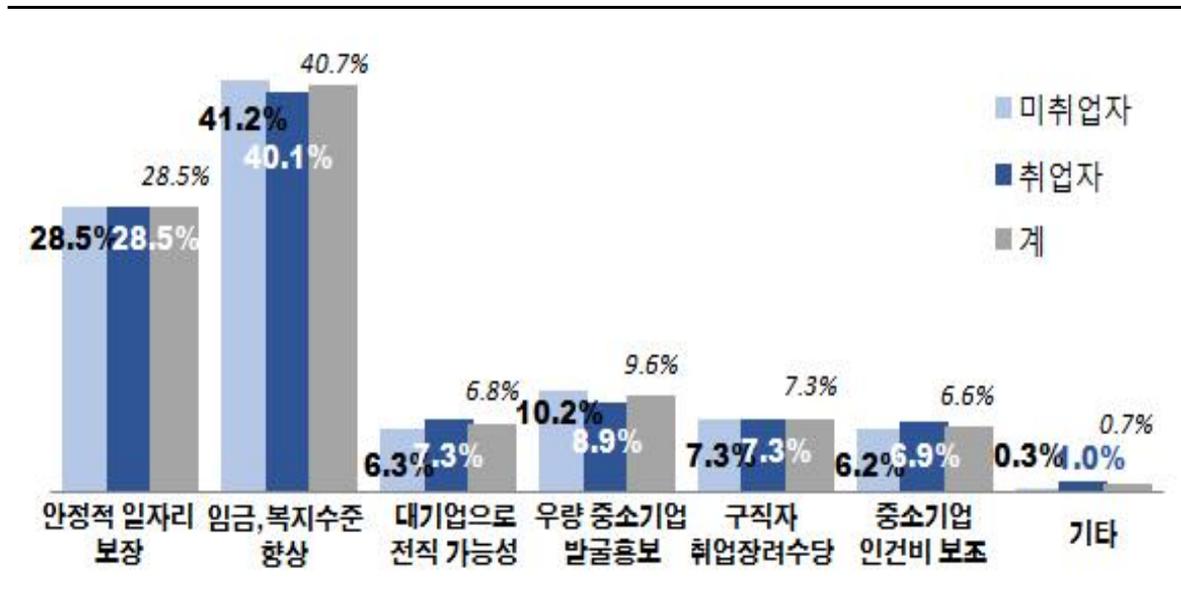
구 분		사례 수	안정적 일자리 보장	임금 및 복지 수준향상	대기업으로 전직 가능성	우량 중소 기업 발굴 홍보	구직자 취업장려 수당	중소기업 인건비 보조	기타
계		1,000	28.5	40.1	7.3	8.9	7.3	6.9	1.0
성 별	남 성	476	27.7	38.4	9.0	10.5	6.3	6.7	1.3
	여 성	524	29.2	41.6	5.7	7.4	8.2	7.1	0.8
나 이	20세~25세	420	29.3	41.7	5.2	8.3	7.1	7.4	1.0
	26세~30세	422	28.0	38.6	9.5	9.0	6.9	7.6	0.5
	31세~35세	158	27.8	39.9	7.0	10.1	8.9	3.8	2.5
최종 학력	고졸미만	6	16.7	50.0	16.7	0.0	16.7	0.0	0.0
	고졸	350	30.0	39.7	6.3	8.3	7.7	7.4	0.6
	전문대졸	204	32.4	39.2	8.3	7.8	6.4	4.4	1.5
	4년제졸	414	26.1	41.3	7.5	9.4	7.2	7.5	1.0
	대학원졸	26	19.2	30.8	7.7	19.2	7.7	11.5	3.8
전공 계열	인문·사회	300	26.0	39.7	9.0	8.3	7.0	9.0	1.0
	자연·과학	130	30.0	38.5	10.0	7.7	8.5	5.4	0.0
	공학	244	28.7	40.2	7.0	10.7	5.7	7.0	0.8
	보건·의료	70	28.6	41.4	5.7	10.0	11.4	1.4	1.4
	교육	34	26.5	47.1	8.8	8.8	5.9	2.9	0.0
	예·체능	154	30.5	40.3	3.9	8.4	8.4	7.1	1.3
	기타	68	32.4	39.7	4.4	7.4	5.9	7.4	2.9

□ 종합

-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미취업자와 취업자 모두 ‘임금·복지수준 향상’ (41.2%, 40.1%)이 가장 많음
- 그 뒤로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28.5%씩), ‘우량중소기업 발굴 홍보’ (10.2%, 8.9%), ‘구직자 취업 장려수당’ (7.3%씩), ‘대기업으로 전직 가능성’ (6.3%, 7.3%), ‘중소기업 인건비 보조’ (6.2%, 6.9%) 등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4-7. 중소기업 취업 촉진 필요사항

(단위: 명, %)





# 제5장 안산시 청년 근로실태 분석

1. 근로 형태
2. 근로 만족도 분석
3. 일과 삶에 대한 인식





# 제5장 안산시 청년 근로실태 분석

## 1. 근로 형태

### 1.1. 근무 형태

- 취업 청년의 근무형태는 전 유형별로 모두 ‘정규직’ (47.0%)이 가장 많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 비중이 많아지고, 특히 ‘4년제 대학 졸업’ (58.5%), ‘대학원 졸업’ (53.8%) ‘보건·의료’ 계열(74.3%)의 정규직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순위는 대부분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21.2%)인데, ‘계약직’이 2순위인 유형은 ‘26세~30세’ (16.1%), ‘31~35세’ (16.5%)와 ‘전문대 졸업’ (16.7%), ‘4년제 대학 졸업’ (18.4%), ‘대학원졸업 이상’ (23.1%) 및 ‘자연과학’ (23.1%), ‘보건의료’ (11.4%) 전공자임

표 5-1. 취업자의 근무 형태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개인사업자 (창업포함)	정규직	무기 계약직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등
계		500	7.8	47.0	7.8	16.2	21.2
성 별	남 성	238	7.6	45.0	10.1	17.2	20.2
	여 성	262	8.0	48.9	5.7	15.3	22.1
나 이	20세~25세	210	5.7	31.9	8.1	16.2	38.1
	26세~30세	211	9.5	57.3	8.1	16.1	9.0
	31세~35세	79	8.9	59.5	6.3	16.5	8.9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0.0	33.3	33.3	0.0	33.3
	고졸	175	6.9	32.0	8.6	13.1	39.4
	전문대졸	102	10.8	49.0	7.8	16.7	15.7
	4년제졸	207	7.7	58.5	6.3	18.4	9.2
	대학원졸	13	0.0	53.8	15.4	23.1	7.7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9.3	47.3	4.7	15.3	23.3
	자연·과학	65	4.6	44.6	12.3	23.1	15.4
	공학	122	4.9	40.2	9.0	17.2	28.7
	보건·의료	35	2.9	74.3	5.7	11.4	5.7
	교육	17	11.8	35.3	5.9	23.5	23.5
	예·체능	77	11.7	40.3	7.8	16.9	23.4
	기타	34	11.8	67.6	11.8	2.9	5.9

## 1.2. 근무 시간

- 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40~50시간’ 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라 남성의 평균 근무시간이 여성 근무시간보다 많음을 알 수 있음. 여성은 ‘40~50시간’ 일하는 응답자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많이 일하는 추세이나, 31세 이후에는 다시 하강함

표 5-2. 취업자의 평균 근무 시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40시간 미만	40시간 ~50시간	50시간 ~60시간	60시간 이상
계		500	21.2	35.4	32.2	11.2
성 별	남 성	238	14.7	32.8	37.0	15.5
	여 성	262	27.1	37.8	27.9	7.3
나 이	20세~25세	210	26.7	34.3	30.5	8.6
	26세~30세	211	17.1	37.0	30.3	15.6
	31세~35세	79	17.7	34.2	41.8	6.3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33.3	33.3	33.3	0.0
	고졸	175	29.1	30.9	28.0	12.0
	전문대졸	102	13.7	42.2	33.3	10.8
	4년제졸	207	18.8	35.3	35.3	10.6
	대학원졸	13	7.7	46.2	30.8	15.4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25.3	37.3	28.7	8.7
	자연·과학	65	16.9	40.0	30.8	12.3
	공학	122	17.2	36.1	33.6	13.1
	보건·의료	35	20.0	28.6	40.0	11.4
	교육	17	29.4	35.3	35.3	0.0
	예·체능	77	27.3	31.2	33.8	7.8
	기타	34	8.8	32.4	32.4	26.5

※ 40시간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기준 시간임

### 1.3. 근무 업종

- 취업 청년의 근무 업종으로는 ‘사무/관리/전문직’ 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영업/서비스업’ 이 39.0%로 2순위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무/관리/전문직’ 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함
  - 전공계열에 따라 ‘보건·의료’ 와 ‘교육’ 이 각각 65.7%와 52.9%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

표 5-3. 취업자의 근무 업종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농업/임업/ 수산업	자영업	판매/영업/ 서비스업	생산/기능/ 노무직	사무/관리/ 전문직
계		500	2.0	5.2	39.0	9.6	44.2
성 별	남 성	238	2.9	4.6	36.6	16.0	39.9
	여 성	262	1.1	5.7	41.2	3.8	48.1
나 이	20세~25세	210	1.0	3.3	53.8	10.5	31.4
	26세~30세	211	2.8	5.7	31.8	10.0	49.8
	31세~35세	79	2.5	8.9	19.0	6.3	63.3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0.0	0.0	33.3	33.3	33.3
	고졸	175	2.3	4.6	52.0	13.1	28.0
	전문대졸	102	2.0	4.9	49.0	11.8	32.4
	4년제졸	207	1.4	5.3	25.6	5.3	62.3
	대학원졸	13	7.7	15.4	0.0	7.7	69.2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2.0	4.0	42.7	4.7	46.7
	자연·과학	65	1.5	4.6	43.1	10.8	40.0
	공학	122	1.6	4.9	30.3	16.4	46.7
	보건·의료	35	0.0	2.9	28.6	2.9	65.7
	교육	17	0.0	11.8	29.4	5.9	52.9
	예·체능	77	2.6	5.2	48.1	9.1	35.1
	기타	34	5.9	11.8	41.2	14.7	26.5

## 1.4. 근무 지역

- 취업 청년의 약 68.8%가 안산시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안산시 내 거주 비중이 높은 유형은 ‘남성’ (71.4%), ‘대학원 졸업 이상’ (84.6%), ‘보건의료’ (85.7%) 등임
- 안산시 거주 이유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청년의 안산시 내 근무 비율은 85.9%임

표 5-4. 취업자의 근무 지역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산시 내 근무	안산시 외 근무
계		500	68.8	31.2
성별	남성	238	71.4	28.6
	여성	262	66.4	33.6
안산시 거주 이유	과거부터 계속 거주	309	68.3	31.7
	학업을 위해 이주	92	52.2	47.8
	취업을 위해 이주	78	85.9	14.1
	기타	21	85.7	14.3
최종학력	고졸미만	3	66.7	33.3
	고졸	175	52.6	47.4
	전문대졸	102	73.5	26.5
	4년제졸	207	79.2	20.8
	대학원졸	13	84.6	15.4
전공계열	인문·사회	150	65.3	34.7
	자연·과학	65	76.9	23.1
	공학	122	66.4	33.6
	보건·의료	35	85.7	14.3
	교육	17	64.7	35.3
	예·체능	77	61.0	39.0
	기타	34	79.4	20.6



## 1.5. 월평균 임금

- 취업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유형별로 ‘150~200만원’ (28.0%), ‘150만원 미만’ (27.4%), ‘200~250만원’ (23.4%)으로 집중되며 평균 약 20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임금 수준은 남성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아짐
  -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200~250만원 미만’ (25.6%)이 가장 많아 ‘150만원 미만(32.1%)이 가장 많은 여성보다 높은 수준임
  - ‘대학원 졸업 이상’ 은 ‘200~250만원 미만’ (38.5%), ‘300만원 이상’ (23.1%) 순으로 매우 높음
- 전공 계열별 대부분 ‘150~200만원 미만’ 이 가장 많으나, ‘200~250만원 미만’ 이 가장 많은 계열은 ‘자연과학’ (27.7%)과 ‘보건
- ‘의료’ (54.3%), ‘예체능’ (36.4%)이고, ‘교육’ 은 ‘200~250만원 미만’ (35.3%)이 가장 많음
- 근무 업종별로는 ‘판매영업서비스업’ 은 ‘150만원 미만’ (40.5%)로 가장 낮고, ‘150~200만원 미만’ 이 가장 많은 업종은 ‘생산기능, 노무직’ (33.3%)과 ‘사무관리전문직’ (29.9%)이며, ‘자영업’ 은 ‘150만원 미만’ 과 ‘200~250만원 미만’ (각 30.8%씩)이 가장 많고, ‘농림수산업’ 은 절반이 ‘200~250만원 미만’ 임
- 근무형태별로는 ‘150만원 미만’ 대가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직’ (32.1%), ‘임시직’ (70.8%)이고, ‘무기계약직’ 은 ‘150~200만원 미만’ 과 ‘150~200만원 미만’ 이 각각 28.2%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자’ 와 ‘정규직’ 은 150~200만원 미만 ‘이 각각 30.8%, 33.2%로 가장 많았음
-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월 평균 생활비가 많았는데, 월평균 생활비로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청년의 임금은 ‘200~250만원 미만’ 과 ‘300만원 이상’ 이 23.8%씩으로 가장 많았음

표 5-5. 월 평균 임금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월 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150~200 만원미만	200~250 만원미만	250~300 만원미만	300만원 이상
계		500	202.4	27.4	28.0	23.4	14.6	6.6
성 별	남 성	238	211.0	22.3	25.2	25.6	18.5	8.4
	여 성	262	194.6	32.1	30.5	21.4	11.1	5.0
나 이	20세~25세	210	178.6	46.7	30.5	14.8	7.1	1.0
	26세~30세	211	214.9	16.1	25.6	32.2	18.5	7.6
	31세~35세	79	232.5	6.3	27.8	22.8	24.1	19.0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183.0	33.3	33.3	33.3	0.0	0.0
	고졸	175	185.1	42.9	26.9	18.3	11.4	0.6
	전문대졸	102	196.3	23.5	39.2	21.6	11.8	3.9
	4년제졸	207	218.3	16.9	24.6	27.5	18.8	12.1
	대학원졸	13	234.5	15.4	7.7	38.5	15.4	23.1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201.5	29.3	26.0	25.3	10.7	8.7
	자연·과학	65	204.7	26.2	27.7	21.5	20.0	4.6
	공학	122	205.7	27.0	25.4	23.0	18.0	6.6
	보건·의료	35	209.2	5.7	54.3	14.3	14.3	11.4
	교육	17	221.8	29.4	0.0	35.3	29.4	5.9
	예·체능	77	186.0	35.1	36.4	18.2	7.8	2.6
	기타	34	210.8	26.5	14.7	35.3	17.6	5.9
근무 업종	농업/임업/수산업	10	240.0	0.0	10.0	50.0	40.0	0.0
	자영업	26	208.3	30.8	15.4	30.8	11.5	11.5
	판매/영업/서비스업	195	187.9	40.5	27.2	19.5	9.2	3.6
	생산/기능/노무직	48	214.0	10.4	33.3	31.3	20.8	4.2
	사무/관리/전문직	221	210.3	20.4	29.9	23.1	17.2	9.5
근무 시간	40시간 미만	106	173.9	62.3	18.9	9.4	5.7	3.8
	40시간~50시간	177	203.2	20.9	34.5	24.9	14.1	5.6
	50시간~60시간	161	213.3	16.8	27.3	30.4	17.4	8.1
	60시간 이상	56	222.6	12.5	26.8	25.0	25.0	10.7
근무 형태	개인 사업자(창업포함)	39	213.9	15.4	30.8	28.2	12.8	12.8
	정규직	235	220.7	8.1	33.2	27.2	20.9	10.6
	무기계약직	39	200.4	28.2	28.2	23.1	17.9	2.6
	계약직	81	194.1	32.1	27.2	27.2	12.3	1.2
	일용직임사(주야)파트	106	164.9	70.8	16.0	10.4	1.9	0.9
월평균 생활비	30만원 미만	30	180.8	56.7	20.0	6.7	16.7	0.0
	30~50만원 미만	143	181.8	45.5	29.4	14.7	9.1	1.4
	50~70만원 미만	147	201.5	23.1	30.6	28.6	16.3	1.4
	70~100만원 미만	96	213.5	13.5	30.2	33.3	13.5	9.4
100만원이상	84	235.7	9.5	21.4	23.8	21.4	23.8	

## 2. 근로 만족도 분석

### 2.1. 업무 만족도

- 취업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의 긍정 의견은 52.2%이며, 유형별 대부분은 ‘보통’ (32.6%)이 가장 많으나,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와 ‘교육’ 전공자 및 ‘농림수산업’,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매우 높음’이 가장 많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교육’ 전공자와 ‘개인사업자’는 ‘매우 만족’의 비중이 각각 41.2%, 43.6%으로 가장 높고 긍정률이 76.5%, 76.9%임
  - ‘대학원 졸업 이상’과 ‘자영업’자는 ‘만족’과 ‘매우만족’의 공통으로 각각 30.8%, 34.6%씩으로 가장 높아 긍정률이 61.6%, 69.2%임
  - ‘31~35세’ (35.0%)는 ‘보통’과 ‘매우만족’이 30.4%씩으로 공동으로 가장 높음
- 만족도가 두 번째로 높은 그룹은 ‘인문사회’, ‘자연과학’ 전공자와 ‘1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로 급여 수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전공자와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만족’의 비중이 34.0%, 32.3%, 30.7%, 30.1%로 가장 높음

표 5-6. 업무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긍정률
계		500	4.8	10.4	32.6	29.6	22.6	52.2
성 별	남 성	238	4.6	10.9	31.5	29.4	23.5	52.9
	여 성	262	5.0	9.9	33.6	29.8	21.8	51.6
나 이	20세~25세	210	4.8	11.4	29.5	28.1	26.2	54.3
	26세~30세	211	4.7	10.0	36.5	32.7	16.1	48.8
	31세~35세	79	5.1	8.9	30.4	25.3	30.4	55.7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0.0	0.0	66.7	0.0	33.3	33.3
	고졸	175	5.1	13.1	30.3	29.7	21.7	51.4
	전문대졸	102	5.9	9.8	36.3	26.5	21.6	48.1
	4년제졸	207	3.9	8.7	32.9	31.4	23.2	54.6
	대학원졸	13	7.7	7.7	23.1	30.8	30.8	61.6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4.7	9.3	29.3	34.0	22.7	56.7
	자연·과학	65	0.0	9.2	30.8	32.3	27.7	60
	공학	122	0.8	12.3	39.3	27.0	20.5	47.5
	보건·의료	35	2.9	11.4	31.4	25.7	28.6	54.3
	교육	17	0.0	0.0	23.5	35.3	41.2	76.5
	예·체능	77	15.6	9.1	33.8	27.3	14.3	41.6
	기타	34	8.8	17.6	29.4	20.6	23.5	44.1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137	2.2	13.9	26.3	30.7	27.0	57.7
	150~200만원 미만	140	9.3	8.6	34.3	31.4	16.4	47.8
	200~250만원 미만	117	5.1	6.8	40.2	28.2	19.7	47.9
	250~300만원 미만	73	1.4	15.1	26.0	30.1	27.4	57.5
	300만원 이상	33	3.0	6.1	39.4	21.2	30.3	51.5
근무 업종	농업/임업/수산업	10	0.0	10.0	30.0	30.0	30.0	60
	자영업	26	0.0	7.7	23.1	34.6	34.6	69.2
	판매/영업/서비스업	195	4.1	10.8	33.3	29.7	22.1	51.8
	생산/기능/노무직	48	8.3	22.9	33.3	27.1	8.3	35.4
	사무/관리/전문직	221	5.4	7.7	33.0	29.4	24.4	53.8
근무 형태	개인사업자(창업포함)	39	2.6	5.1	15.4	33.3	43.6	76.9
	정규직	235	6.0	8.1	37.0	26.8	22.1	48.9
	무기계약직	39	10.3	15.4	25.6	28.2	20.5	48.7
	계약직	81	2.5	8.6	37.0	34.6	17.3	51.9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106	2.8	17.0	28.3	31.1	20.8	51.9

## 2.2. 근무지 만족도

- 취업 청년의 근무지에 대한 만족도의 긍정 의견은 48.6%이고 ‘보통’ (34.2%)이 가장 많았는데, ‘교육’ 전공자, ‘농림수산업’ 과 ‘자영업’ 근로자는 ‘매우 만족’ 이 52.9%, 40.0%, 38.5%으로 가장 높아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대학원 졸업 이상’ , ‘개인사업자’ 는 ‘만족’ 과 ‘매우만족’ 의 비중인 긍정의견이 69.3%, 82.1%로 높아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5-7. 취업자의 근무지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긍정률
계		500	4.6	12.6	34.2	25.2	23.4	48.6
성 별	남 성	238	3.8	13.0	34.9	25.6	22.7	48.3
	여 성	262	5.3	12.2	33.6	24.8	24.0	48.8
나 이	20세~25세	210	5.7	13.3	30.5	24.3	26.2	50.5
	26세~30세	211	3.8	12.8	38.4	27.0	18.0	45
	31세~35세	79	3.8	10.1	32.9	22.8	30.4	53.2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33.3	0.0	33.3	0.0	33.3	33.3
	고졸	175	3.4	13.7	32.6	26.9	23.4	50.3
	전문대졸	102	5.9	13.7	40.2	24.5	15.7	40.2
	4년제졸	207	4.8	11.6	33.3	23.7	26.6	50.3
	대학원졸	13	0.0	7.7	23.1	38.5	30.8	69.3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6.0	13.3	27.3	30.7	22.7	53.4
	자연·과학	65	1.5	10.8	38.5	24.6	24.6	49.2
	공학	122	1.6	12.3	39.3	24.6	22.1	46.7
	보건·의료	35	5.7	8.6	42.9	20.0	22.9	42.9
	교육	17	0.0	5.9	29.4	11.8	52.9	64.7
	예·체능	77	7.8	15.6	35.1	22.1	19.5	41.6
	기타	34	8.8	14.7	29.4	23.5	23.5	47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137	3.6	15.3	30.7	21.2	29.2	50.4
	150~200만원 미만	140	7.9	13.6	32.9	30.0	15.7	45.7
	200~250만원 미만	117	4.3	12.8	41.0	18.8	23.1	41.9
	250~300만원 미만	73	1.4	9.6	30.1	31.5	27.4	58.9
	300만원 이상	33	3.0	3.0	39.4	30.3	24.2	54.5
근무 업종	농업/임업/수산업	10	0.0	10.0	20.0	30.0	40.0	70
	자영업	26	0.0	7.7	23.1	30.8	38.5	69.3
	판매/영업/서비스업	195	5.6	14.9	33.8	23.6	22.1	45.7
	생산/기능/노무직	48	6.3	20.8	33.3	29.2	10.4	39.6
	사무/관리/전문직	221	4.1	9.5	36.7	24.9	24.9	49.8
근무 형태	개인 사업자(창업포함)	39	2.6	2.6	12.8	51.3	30.8	82.1
	정규직	235	5.1	13.2	34.9	22.6	24.3	46.9
	무기계약직	39	7.7	15.4	33.3	30.8	12.8	43.6
	계약직	81	2.5	9.9	44.4	25.9	17.3	43.2
	일용직,임시직,아르바 이트	106	4.7	16.0	33.0	18.9	27.4	46.3

### 2.3. 이직 계획

- 취업 청년 중 이직 계획은 전 유형별 ‘없음’ (58.8%)이 대부분인데, ‘보건 의료’ 전공자와 ‘일용직’, ‘계약직’ 은 이직 계획을 보유한 비중이 51.4%, 50.6%, 50.0%로 다소 높은 편임
- 이직 계획은 특히 업무 만족도와 근무지 만족도가 낮은 경우 이직계획 보유 비중이 73.9%까지 발생되고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표 5-8. 취업자의 이직 계획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계획 있음	계획 없음
계		500	41.2	58.8
성 별	남 성	238	40.8	59.2
	여 성	262	41.6	58.4
나 이	20세~25세	210	39.5	60.5
	26세~30세	211	45.5	54.5
	31세~35세	79	34.2	65.8
최종학력	고졸미만	3	33.3	66.7
	고졸	175	34.9	65.1
	전문대졸	102	46.1	53.9
	4년제졸	207	44.4	55.6
	대학원졸	13	38.5	61.5
전공계열	인문·사회	150	40.0	60.0
	자연·과학	65	43.1	56.9
	공학	122	38.5	61.5
	보건·의료	35	51.4	48.6
	교육	17	47.1	52.9
	예·체능	77	44.2	55.8
	기타	34	32.4	67.6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137	46.7	53.3
	150~200만원 미만	140	47.9	52.1
	200~250만원 미만	117	37.6	62.4
	250~300만원 미만	73	27.4	72.6
	300만원 이상	33	33.3	66.7

근무지 위치	안산시 내	344	40.7	59.3
	안산시 외	156	42.3	57.7
근무형태	개인 사업자(창업포함)	39	23.1	76.9
	정규직	235	37.4	62.6
	무기계약직	39	38.5	61.5
	계약직	81	50.6	49.4
	일용직,임시직,아르바이트	106	50.0	50.0
	기타	0	-	-
일의 만족도	매우불만족	24	70.8	29.2
	불만족	52	57.7	42.3
	보통	163	47.9	52.1
	만족	148	38.5	61.5
	매우만족	113	21.2	78.8
근무지 만족도	매우불만족	23	73.9	26.1
	불만족	63	63.5	36.5
	보통	171	49.1	50.9
	만족	126	27.8	72.2
	매우만족	117	25.6	74.4

## 2.4. 직장생활 애로사항

- 취업 청년이 직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적은 월급·수익’ 과 ‘어려움 없음’ 이 각각 29.0%씩으로 가장 많음
- 특히 일·근무지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 ‘적은 월급·수익’ 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20~25세’ (29.4%), ‘31~35세’ (26.6%), ‘고졸’ (35.4%), ‘전문대 졸업’ (25.5%), ‘대학원 졸업 이상’ (38.5%), ‘공학’ 전공자(30.3%), ‘안산시 외 근무자’ (34.0%), ‘판매, 영업 서비스업’ (32.3%), ‘사무관리 전문직’ (29.0%) 업종 근로자에 해당됨
- ‘자영업’ 의 경우 ‘고용(또는 사업) 불안정’ 이 34.6%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표 5-9. 취업자의 직장생활 애로사항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어려움 없음	적은 월급 /수익	고용 (사업) 불안정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강도)	대인관계 (동료 및 상사와의 불화 등)	기타
계		500	29.0	29.0	13.0	13.6	12.6	2.8
성 별	남 성	238	29.4	29.4	11.3	14.7	13.0	2.1
	여 성	262	28.6	28.6	14.5	12.6	12.2	3.4
나 이	20세~25세	210	33.3	36.2	8.1	9.5	10.0	2.9
	26세~30세	211	26.5	22.7	17.5	16.1	15.2	1.9
	31세~35세	79	24.1	26.6	13.9	17.7	12.7	5.1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66.7	33.3	0.0	0.0	0.0	0.0
	고졸	175	34.9	35.4	9.7	10.9	8.6	0.6
	전문대졸	102	24.5	25.5	13.7	17.6	13.7	4.9
	4년제졸	207	26.6	24.6	15.5	14.0	15.5	3.9
	대학원졸	13	15.4	38.5	15.4	15.4	15.4	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29.3	29.3	11.3	14.7	13.3	2.0
	자연·과학	65	30.8	30.8	13.8	10.8	10.8	3.1
	공학	122	25.4	30.3	14.8	14.8	13.1	1.6
	보건·의료	35	28.6	20.0	14.3	14.3	11.4	11.4
	교육	17	35.3	35.3	5.9	5.9	5.9	11.8
	예·체능	77	28.6	27.3	15.6	13.0	14.3	1.3
	기타	34	35.3	29.4	8.8	14.7	11.8	0.0
근무 지역	안산시 내	344	27.9	26.7	11.9	16.0	15.1	2.3
	안산시 외	156	31.4	34.0	15.4	8.3	7.1	3.8
근무 업종	농업/임업/수산업	10	40.0	10.0	10.0	30.0	10.0	0.0
	자영업	26	26.9	26.9	34.6	3.8	3.8	3.8
	판매/영업/서비스업	195	31.3	32.3	12.3	11.8	10.8	1.5
	생산/기능/노무직	48	31.3	20.8	12.5	29.2	6.3	0.0
	사무/관리/전문직	221	26.2	29.0	11.3	12.2	16.7	4.5

일의 만족도	매우불만족	24	0.0	45.8	8.3	33.3	12.5	0.0
	불만족	52	11.5	38.5	17.3	32.7	0.0	0.0
	보통	163	17.2	31.3	14.7	16.0	19.0	1.8
	만족	148	34.5	29.1	12.8	5.4	14.2	4.1
	매우만족	113	53.1	17.7	9.7	8.0	7.1	4.4
근무지 만족도	매우불만족	23	0.0	56.5	13.0	21.7	8.7	0.0
	불만족	63	9.5	49.2	14.3	19.0	6.3	1.6
	보통	171	19.3	33.3	14.0	14.6	14.6	4.1
	만족	126	31.0	19.0	15.1	12.7	19.0	3.2
	매우만족	117	57.3	17.1	8.5	8.5	6.8	1.7

## 2.5. 직무 애로사항

- 취업 청년의 직무 애로사항은 전반적으로 ‘없음’ 이 가장 많았는데, ‘생산·기능·노무직’ 업종 근로자와 업무 또는 근로지의 만족도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직무에 대한 비전 없음’ 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음

표 5-10. 취업자의 직장생활 애로사항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어려움 없음	적은 월급 /수익	고용 (사업) 불안정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강도)	대인관계 (동료 및 상사와의 불화 등)	기타
계		500	29.0	29.0	13.0	13.6	12.6	2.8
성 별	남 성	238	29.4	29.4	11.3	14.7	13.0	2.1
	여 성	262	28.6	28.6	14.5	12.6	12.2	3.4
나 이	20세~25세	210	33.3	36.2	8.1	9.5	10.0	2.9
	26세~30세	211	26.5	22.7	17.5	16.1	15.2	1.9
	31세~35세	79	24.1	26.6	13.9	17.7	12.7	5.1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66.7	33.3	0.0	0.0	0.0	0.0
	고졸	175	34.9	35.4	9.7	10.9	8.6	0.6
	전문대졸	102	24.5	25.5	13.7	17.6	13.7	4.9
	4년제졸	207	26.6	24.6	15.5	14.0	15.5	3.9
	대학원졸	13	15.4	38.5	15.4	15.4	15.4	0.0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29.3	29.3	11.3	14.7	13.3	2.0
	자연·과학	65	30.8	30.8	13.8	10.8	10.8	3.1
	공학	122	25.4	30.3	14.8	14.8	13.1	1.6
	보건·의료	35	28.6	20.0	14.3	14.3	11.4	11.4
	교육	17	35.3	35.3	5.9	5.9	5.9	11.8
	예·체능	77	28.6	27.3	15.6	13.0	14.3	1.3
	기타	34	35.3	29.4	8.8	14.7	11.8	0.0
근무 지역	안산시 내	344	27.9	26.7	11.9	16.0	15.1	2.3
	안산시 외	156	31.4	34.0	15.4	8.3	7.1	3.8
근무 업종	농업/임업/수 산업	10	40.0	10.0	10.0	30.0	10.0	0.0
	자영업	26	26.9	26.9	34.6	3.8	3.8	3.8
	판매/영업/서 비스업	195	31.3	32.3	12.3	11.8	10.8	1.5
	생산/기능/노 무직	48	31.3	20.8	12.5	29.2	6.3	0.0
	사무/관리/전 문직	221	26.2	29.0	11.3	12.2	16.7	4.5
일의 만족도	매우불만족	24	0.0	45.8	8.3	33.3	12.5	0.0
	불만족	52	11.5	38.5	17.3	32.7	0.0	0.0
	보통	163	17.2	31.3	14.7	16.0	19.0	1.8
	만족	148	34.5	29.1	12.8	5.4	14.2	4.1
	매우만족	113	53.1	17.7	9.7	8.0	7.1	4.4
근무지 만족도	매우불만족	23	0.0	56.5	13.0	21.7	8.7	0.0
	불만족	63	9.5	49.2	14.3	19.0	6.3	1.6
	보통	171	19.3	33.3	14.0	14.6	14.6	4.1
	만족	126	31.0	19.0	15.1	12.7	19.0	3.2
	매우만족	117	57.3	17.1	8.5	8.5	6.8	1.7

### 3. 일과 삶에 대한 인식

#### 3.1. 업무와 생활 균형도

- 취업 청년은 일과 생활의 균형도는 ‘보통’ 이 35.6%로 가장 많았는데, 긍정의견은 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유형별로 ‘낮음’ 도 많이 도출됨
- 일과 생활의 균형도가 ‘높음’ 이 가장 많은 유형은 ‘31~35세’ (34.2%), ‘대학원 졸업 이상’ (46.2%), ‘교육’ (52.9%)이며, 특히 ‘교육’ 의 긍정의견은 64.7%로 가장 높은 수준임
- 반면 ‘자영업’ 과 ‘생산, 기능, 노무직’ 근로자는 ‘낮음’ 이 34.6%, 35.4%로 가장 많은데 특히 ‘생산, 기능, 노무직’ 근로자의 긍정의견이 16.7%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또한 업무 및 근무지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업무와 생활 균형도가 낮고 차이가 크게 발생되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 5-11. 업무와 생활 균형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매우 낮음 (비균형적)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균형적)	긍정률
계		500	11.0	25.4	35.6	23.2	4.8	28
성 별	남 성	238	9.7	29.4	34.9	22.7	3.4	26.1
	여 성	262	12.2	21.8	36.3	23.7	6.1	29.8
나 이	20세~25세	210	10.5	23.3	37.6	23.3	5.2	28.5
	26세~30세	211	11.8	26.5	38.4	19.0	4.3	23.3
	31세~35세	79	10.1	27.8	22.8	34.2	5.1	39.3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0.0	0.0	66.7	33.3	0.0	33.3
	고졸	175	8.6	22.3	40.6	22.3	6.3	28.6
	전문대졸	102	10.8	28.4	40.2	15.7	4.9	20.6
	4년제졸	207	13.5	27.5	29.5	26.1	3.4	29.5
	대학원졸	13	7.7	15.4	23.1	46.2	7.7	53.9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10.7	22.0	37.3	24.7	5.3	30
	자연·과학	65	9.2	24.6	32.3	29.2	4.6	33.8
	공학	122	10.7	30.3	36.9	18.0	4.1	22.1
	보건·의료	35	14.3	14.3	42.9	20.0	8.6	28.6
	교육	17	5.9	17.6	11.8	52.9	11.8	64.7
	예·체능	77	10.4	29.9	36.4	22.1	1.3	23.4
	기타	34	17.6	29.4	32.4	14.7	5.9	20.6

근무 업종	농업/임업/수산업	10	10.0	40.0	30.0	20.0	0.0	20
	자영업	26	11.5	34.6	15.4	26.9	11.5	38.4
	판매/영업/서비스업	195	12.3	22.1	38.5	22.6	4.6	27.2
	생산/기능/노무직	48	12.5	35.4	35.4	14.6	2.1	16.7
	사무/관리/전문직	221	9.5	24.4	35.7	25.3	5.0	30.3
일의 만족도	매우불만족	24	29.2	50.0	12.5	4.2	4.2	8.4
	불만족	52	23.1	38.5	25.0	9.6	3.8	13.4
	보통	163	11.0	28.8	37.4	20.2	2.5	22.7
	만족	148	6.8	20.3	41.9	29.1	2.0	31.1
	매우만족	113	7.1	15.9	34.5	30.1	12.4	42.5
근무지 만족도	매우불만족	23	30.4	39.1	26.1	0.0	4.3	4.3
	불만족	63	15.9	33.3	27.0	23.8	0.0	23.8
	보통	171	12.3	28.1	39.2	18.7	1.8	20.5
	만족	126	7.9	23.8	38.9	27.8	1.6	29.4
	매우만족	117	6.0	16.2	33.3	29.1	15.4	44.5
건강 상태	매우 좋음	10	30.0	30.0	40.0	0.0	0.0	0
	좋음	43	23.3	27.9	34.9	11.6	2.3	13.9
	보통	128	14.1	28.1	37.5	17.2	3.1	20.3
	나쁨	171	7.0	26.9	33.9	27.5	4.7	32.2
	매우 나쁨	148	8.1	20.3	35.8	28.4	7.4	35.8
근무 시간	40시간 미만	106	6.6	16.0	42.5	25.5	9.4	34.9
	40시간~50시간 미만	177	10.2	27.1	36.7	23.7	2.3	26
	50시간~60시간 미만	161	11.2	28.0	32.3	23.6	5.0	28.6
	60시간 이상	56	21.4	30.4	28.6	16.1	3.6	19.7

### 3.2. 업무와 생활 균형을 위한 노력

- 취업 청년의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위한 노력의 방법으로 ‘일과 생활시간의 분배’가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전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력하지 않음(24.6%): 아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
  - 일과 생활시간 분배(27.2%): 시간활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통해 일과 생활시간을 분배
  - 일과 생활의 정신적 분리 노력(23.0%): 정신적으로 (마음속에서) 일과 생활을 분리 노력

- 사회적 관계형성 노력(23.6%): 생활이 큰 문제가 없어 여가활동을 즐기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노력
- ‘노력하지 않음’ 이 가장 많은 유형은 일과 근무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높았고,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오히려 ‘노력하지 않음’의 비중이 높음
  - ‘노력하지 않음’ 이 가장 많은 유형은 ‘남성’ (27.7%), ‘26~30세’ (27.5%), ‘고졸미만’ (66.7%), ‘전문대졸업’ (31.4%), ‘공학’ 전공자 (31.1%), ‘농림수산업’ (40.0%)과 ‘생산기능노무직’ (37.5%) 종사자 등임
- ‘일과 생활의 정신적 분리 노력’ 이 가장 많은 유형은 ‘4년제 대학 졸업’ (27.1%), ‘자연과학 전공자’ (27.7%), 농림수산업(40.0%),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그룹(38.6%) 등임
- ‘사회적 관계 형성 노력’ 이 높은 유형은 ‘보건의료’ (42.9%) 전공계열, ‘사무관리전문직’ (29.0%) 종사자, ‘40~5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26.6%) 등으로 나타남

표 5-12. 업무와 생활균형 노력도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노력하지 않음	일과 생활 시간 분배	일과 생활의 정신적분리 노력	사회적 관계 형성 노력	기타
계		500	24.6	27.2	23.0	23.6	1.6
성 별	남 성	238	27.7	26.9	22.3	21.4	1.7
	여 성	262	21.8	27.5	23.7	25.6	1.5
나 이	20세~25세	210	24.8	30.0	19.5	23.8	1.9
	26세~30세	211	27.5	21.8	27.0	23.2	0.5
	31세~35세	79	16.5	34.2	21.5	24.1	3.8
최종 학력	고졸미만	3	66.7	0.0	0.0	33.3	0.0
	고졸	175	26.9	30.9	22.9	18.3	1.1
	전문대졸	102	31.4	20.6	16.7	29.4	2.0
	4년제졸	207	19.8	26.6	27.1	25.1	1.4
	대학원졸	13	7.7	46.2	15.4	23.1	7.7
전공 계열	인문·사회	150	24.7	27.3	22.7	23.3	2.0
	자연·과학	65	24.6	24.6	27.7	21.5	1.5
	공학	122	31.1	28.7	18.9	21.3	0.0
	보건·의료	35	22.9	14.3	20.0	42.9	0.0
	교육	17	11.8	41.2	11.8	35.3	0.0
	예·체능	77	16.9	31.2	28.6	19.5	3.9
	기타	34	26.5	23.5	26.5	20.6	2.9

근무 업종	농업임업수산업	10	40.0	10.0	40.0	10.0	0.0
	자영업	26	19.2	34.6	23.1	23.1	0.0
	판매영업서비스업	195	25.6	29.2	23.1	20.5	1.5
	생산기능노무직	48	37.5	18.8	27.1	14.6	2.1
	사무관리전문직	221	20.8	27.1	21.3	29.0	1.8
일의 만족도	매우불만족	24	37.5	16.7	29.2	4.2	12.5
	불만족	52	38.5	15.4	25.0	21.2	0.0
	보통	163	30.7	22.7	26.4	19.6	0.6
	만족	148	18.2	30.4	20.3	28.4	2.7
	매우만족	113	15.0	37.2	19.5	28.3	0.0
근무지 만족도	매우불만족	23	43.5	8.7	30.4	13.0	4.3
	불만족	63	31.7	25.4	23.8	17.5	1.6
	보통	171	30.4	22.8	25.1	20.5	1.2
	만족	126	18.3	32.5	18.3	28.6	2.4
	매우만족	117	15.4	32.5	23.1	28.2	0.9
근무 시간	40시간 미만	106	15.1	34.0	25.5	25.5	0.0
	40~50시간 미만	177	23.2	22.6	24.9	26.6	2.8
	50~60시간 미만	161	31.1	28.6	17.4	21.7	1.2
	60시간 이상	56	28.6	25.0	28.6	16.1	1.8



## 제6장 정책 제언

1. 종합요약
2. 미스매치 현황
3. 안산시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제6장 정책 제언

## 1. 종합요약

### 1.1. 청년 유형별 취업 및 고용 현황

#### □ 성별 현황

- 안산시 여성 청년은 남성 대비 취업률과 구직 활동률이 각각 1.4%, 0.8%씩 높은데, 남성 대비 구직기간도 길고 임금이 낮으며 ‘근로조건’을 취업 우선조건으로 중시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여성의 취업 우선 조건은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근로조건’ (22.7%, 26.0%)임
  - 여성 취업자의 실제 평균 임금은 194.6만 원으로 남성(211만 원)보다 다소 낮음
- 안산시 남성 청년은 취업고려조건으로 미취업자는 ‘적성’ (23.9%), 취업자는 ‘수입(29.0%)을 중시

표 6-1. 성별 안산시 청년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취업자 수		미취업자 수			
					소계		구직활동 중	
	수(A)	비율	수(B)	비율(B/A)	수(C)	비율(C/A)	수(D)	비율(D/C)
남성	483	48.3%	238	49.3%	245	50.7%	75	30.6%
여성	517	51.7%	262	50.7%	255	49.3%	80	31.4%
계	1,000	100%	500	49.3%	500	50.7%	155	62.0%
차이(여성남성)	34	3.4%	24	1.4%	10	-1.4%	5	0.8%

## □ 연령별 현황

- ‘20~25세’ 청년층은 자격증 준비 등으로 취업률과 구직 활동률이 가장 낮는데, 취업의 주요 조건은 ‘적성’, ‘수입’ 으로 ‘직무’ 와 ‘스펙’ 준비가 많음
  - 응답 청년의 연령은 ‘20~25세’ (55.2%)가 가장 많은데 이들의 62.0%는 미취업자이고, 이들 중 구직 활동자는 23.1%에 불과하여 취업률이 가장 낮았는데, 대부분 자격증, 고시 등 ‘시험 준비’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음
  - ‘20~25세’ 의 취업고려 조건으로 미취업자는 ‘적성’ (24.4%), 취업자는 ‘수입(25.5%)을 중시하며, 취업준비 관심 분야는 ‘직무분야’ 와 ‘스펙’ (23.0%씩)임
- ‘26~30세’ 청년층은 취업자(59.9%)이 높고 구직 활동률(48.2%)은 가장 높는데, 미취업자는 ‘고용안정’ (25.5%), 취업자는 ‘수입(27.0%)을 중시하여 취업 준비 활동으로 ‘기업정보’ (27.7%)에 관심이 높음
- ‘31~35세’ 청년층은 취업률(82.3%)이 가장 높고 구직(취업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고용안정’ (미취업자의 26.5%)과 ‘근로조건’ (취업자의 21.5%)을 중시하는데, ‘일자리 미스매치’ 와 함께 ‘취업관련 정보부족’ (33.3%씩)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어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음
  - 미취업자의 구직 기간은 ‘6~12개월’ (37.5%)이 가장 많고, 취업자의 취업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 (47.0%) 다음으로 ‘24~36개월’ (16.5%)이 많음

표 6-2. 연령별 안산시 청년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취업자 수		미취업자 수			
					소계		구직활동 중	
	수(A)	비율	수(B)	비율	수(C)	비율	수(D)	비율(D/C)
20~25세	552	55.2%	210	38.0%	342	62.0%	79	23.1%
26~30세	352	35.2%	211	59.9%	141	40.1%	68	48.2%
31~35세	96	9.6%	79	82.3%	17	17.7%	8	47.1%
계	1,000	100%	500		500		155	31.0%

□ 학력별 현황

- ‘고졸 미만’ 청년층(6명)은 절반이 취업자이고, 미취업자의 구직 활동률(66.7%)이 높아 구직 의사에 부합하는 취업 기회 확대가 필요한데, 전공이 취업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적성’ (취업자의 33.3%)과 ‘고용안정’ (미취업자의 33.3%)을 중시하고 ‘기업정보’와 ‘합격자후기’ (33.3%씩)의 취업 준비가 많음
- ‘고졸’ 청년층은 60.0%가 미취업자이고 취직 의사가 없거나 준비 등으로 구직 활동자는 14.4%에 불과한데, 취업 우선조건은 ‘적성’ (미취업자의 25.1%), ‘수입’ (취업자의 29.4%)로 나타남
- ‘전문대 졸업자’는 취업률(64.2%)이 가장 높고 ‘수입’ (취업자의 26.0%),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미취업자의 21.1%씩)을 중시하며 ‘기업정보’ (28.1%)에 관심이 높음
- ‘4년제 졸업자’는 ‘근로조건’ (취업자의 25.4%)과 ‘고용안정’ (미취업자의 21.1%)을 우선시함
- ‘대학원 졸업 이상자’는 취업률(61.9%)이 2번째로 높고 미취업자의 62.5%가 구직활동 중이며 구직기간도 상대적으로 가장 길고, 전공지식이 취업에 도움된다고 가장 크게 느끼는 유형으로 구직 의사에 부합되는 일자리 공급의 필요성이 높음
  - 미취업자의 구직기간은 12~24개월(40.0%)이 가장 많고, 24개월 이상이 40%이며, 취업자의 취업 소요기간 또한 24개월 이상이 15.4%로 상대적으로 긴 편임
  - 취업 우선조건으로 취업자는 ‘적성’ (23.1%)을, 미취업자는 ‘고용안정’ (21.6%)을 중시하며, 취업준비 관심 분야는 ‘직무분야’와 ‘기업정보’ (31.3%씩)임

표 6-3. 학력별 안산시 청년 취업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취업자 수		미취업자 수			
	수(A)	비율	수(B)	비율	소계		구직활동 중	
					수(C)	비율	수(D)	비율(D/C)
고졸 미만	6	0.6%	3	50.0%	3	50.0%	2	66.7%
고졸	438	43.8%	175	40.0%	263	60.0%	38	14.4%
전문대졸	159	15.9%	102	64.2%	57	35.8%	21	36.8%
4년제 대학졸	376	37.6%	207	55.1%	169	44.9%	89	52.7%
대학원졸 이상	21	2.1%	13	61.9%	8	38.1%	5	62.5%
계	1,000	100.0%	500	50.0%	500	50.0%	155	31.0%

## □ 전공별 현황

- 안산시 청년 응답자의 전공은 ‘인문사회’ (35.6%)와 ‘공학’ (25.4%)이 61%로 대다수인데,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아 구직 활동률이 높은 편임
  - ‘인문사회’ 전공 취업자는 ‘수입’ (24.7%), 미취업자는 ‘적성’ (22.6%)을 중시함
  - ‘공학’ 전공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중단 이유는 ‘더 좋은 일자리 찾기’와 ‘개인기술역량 부족’이 공통으로 가장 높고, 취업 조건으로 취업자는 ‘수입’ (29.5%), 미취업자는 ‘적성’ (21.2%)를 중시하며, 취업 준비 분야는 ‘직무분야’와 ‘기업정보’ (25.8%씩) 임
- ‘교육’ 전공자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고 구직 활동률도 가장 높으며, 전공의 연계 취업 희망도도 매우 높아(69.6%) ‘적성’ (취업자의 32.4%)과 ‘고용안정’ (미취업자의 30.4%)을 우선시하며 구직기간도 긴 편임
- ‘자연과학’은 취업자의 비중이 높으나 구직활동 비중도 높고, 취업조건으로 ‘근로조건’ (미취업자의 25.0%)과 ‘수입’ (취업자의 26.2%)을 중시하며, 주요 취업준비활동으로 ‘스펙’ (26.5%)에 노력하고 있음
-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건의료’ 전공자는 구직 활동자가 4.5%로 매우 낮는데, 취업조건으로 취업자, 미취업자 모두 ‘근로조건’ (35.7%, 25.0%)을 중시함
- ‘예체능’ 전공 미취업자의 구직 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편인데, 취업에 전공지식의 도움정도는 낮게 느끼고 있으나 전공 연계취업 희망도는 매우 높아 취업 조건으로 ‘적성(미취업자의 28.8%)과 ‘근로조건’ (취업자의 24.0%)을 중시함
- ‘보건의료’ 전공 청년층은 취업에 대한 전공지식의 도움 정도를 낮게 느끼고 있고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 중단의 주요 이유는 ‘개인 기술역량 부족’ (19.4%)이 가장 많았으며, 구직 시 ‘정보부족’과 ‘원하는 기업의 취업 어려움’을 22.7%씩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

표 6-4. 전공별 안산시 청년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취업자 수		미취업자		수	
	수(A)	비율	수(B)	비율	소계		구직활동 중	
					수(C)	비율	수(D)	비율(D/C)
인문사회	356	35.6%	150	42.1%	206	57.9%	71	34.5%
자연과학	114	11.4%	65	57.0%	49	43.0%	15	30.6%
공학	254	25.4%	122	48.0%	132	52.0%	37	28.0%
보건의료	57	5.7%	35	61.4%	22	38.6%	1	4.5%
교육	40	4.0%	17	42.5%	23	57.5%	13	56.5%
예체능	129	12.9%	77	59.7%	52	40.3%	14	26.9%
기타	50	5.0%	34	68.0%	16	32.0%	4	25.0%
계	1,000	100	500	50.0%	500	50.0%	155	31.0%

## 1.2. 청년 생활 실태 및 근로 분석

### □ 거주 및 유입 실태

- 안산시에 ‘과거부터 계속 거주’ 한 청년층은 전체의 55.6%인데 대부분 단원구 거주자(64.3%) 및 취업자(61.8%) 중심이며, ‘학업을 위한 이주’는 29.9%이며 안산대학교가 소재한 상록구 거주자(40.3%)와 미취업자(41.4%) 중심으로 구성됨
- 동거 유형으로는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거주(57.9%)하고 있는데 독립한 경우 혼자(21.7%) 또는 친구·지인과 동거(9.5%)하는 청년층은 대부분 월룸에 거주하고, 형제자매와 동거(2.8%)시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함
- 거주 유형으로는 자가 44.1%, 월세 22.9%, 전세 19.2%, 기타 13.8% 순인데, 취업자는 전세 비중이 23.4%(117명)로 비취업자 15.0%(75명) 보다 높았음

표 6-5. 안산시 거주 이유

(단위: 명, %)

구분	총합계		미취업자		취업자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총합계	1,000	100.0%	500	100.0%	500	100.0%
과거부터 계속 거주	556	55.6%	247	49.4%	309	61.8%
학업을 위해 이주	299	29.9%	207	41.4%	92	18.4%
취업을 위해 이주	109	10.9%	31	6.2%	78	15.6%
기타	36	3.6%	15	3.0%	21	4.2%

## □ 소비 실태

- 미취업자의 생활비 충당은 대부분 ‘부모님 지원’ (61.1%)인데, ‘31~35세’, ‘보건의료’ 전공자, ‘대학원 졸업 이상자’ 등 일부 청년층은 ‘예금, 적금 등 그간 모은 돈’ (31.3%)으로 충당하고 있음
- 청년층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57.2만원으로, 30~50만원 미만(35.8%) 또는 50~70만원 미만(27.8%)에 63.6%가 집중되는데, 취업자의 생활비가 미취업자보다 약 1.3배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 전공자가 가장 많고 인문사회 전공자가 가장 낮음
- 청년층의 주요 생활비 소비 항목은 취업자는 패션미용, 가정생활 등이 높은 반면, 미취업자는 식음료, 교통, 교육의 소비가 높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식음료의 소비 집중도가 높고 교통비가 많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비중이 높아짐
- 생활비 중 주거비에 지출하는 비중은 ‘없음’ (39.8%)이 대부분이나, 독립 거주자와 ‘31~35세’는 생활비의 20~30%미만을 지출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편임

## □ 근로 형태

- 취업 청년의 근무형태는 대부분 ‘정규직’ (47.0%)이 가장 많은데, 특히 ‘4년제 대학 졸업’ (58.5%), ‘대학원 졸업’ (53.8%) ‘보건·의료’ 계열 (74.3%) 및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음
  - 2순위는 대부분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21.2%)인데, ‘계약직’이 2순위인 유형은 ‘26세~30세’ (16.1%), ‘31~35세’ (16.5%)와 ‘전문대 졸업’ (16.7%), ‘4년제 대학 졸업’ (18.4%), ‘대학원졸업 이상’ (23.1%) 및 ‘자연과학’ (23.1%), ‘보건의료’ (11.4%) 전공자임

## □ 임금 수준

- 청년 취업자의 월 평균 급여는 202만 원인데 비해, 최소 희망 급여는 미취업자 약 318.7만 원, 취업자 약 332.6만 원으로 나타나 최대 130.2만 원의 차이를 보임
  - 취업자들의 실제 월평균 임금은 ‘150~200만원’ (28.0%), ‘150만원 미만’ (27.4%), ‘200~250만원’ (23.4%) 등의 순으로 분포함
  - 미취업자의 최소 희망 급여는 대부분 ‘200~300만원 미만’ (46.4%)이고 ‘200만원 미만’은 2.0%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남성’, ‘공학’ 전공자의 경우 ‘300~400만원 미만’ (41.6%, 47.7%)이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

- 취업자가의 최소 희망 급여 수준은 ‘300~400만원 미만’ (39.4%)이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 ‘200~300만원 미만’ (38.0%) 또는 ‘300~400만원 미만’ (11.0%) 등으로 집중됨
- 실제 급여는 연령 및 학력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나, 이러한 추이를 고려할 때 20~25세와 ‘고졸’ 및 ‘고졸미만’ 학력자는 희망 급여와의 차이가 크며, 연령과 학력이 높고, 취업자일수록 차이가 감소함
  - 희망급여와 취업자의 실제 급여 차이는 ‘20~25세’ 는 최대 141.8만원, ‘고졸 미만’ 은 최대 183.3만원, ‘고졸’ 은 최대 147.7만 원으로 나타남
  - 반면 ‘31세~35세’ 와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의 실제와 희망 급여 차이는 각각 최소 94만원, 5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표6-6. 실제 급여와 희망급여의 미스매치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취업자 실제급여(A)	희망 급여			
			취업자(B)	차이(B-A)	미취업자(C)	차이(C-A)
계		202.4	332.6	130.2	319.7	117.3
연령별	20~25세	178.6	316.1	137.5	320.4	141.8
	26~30세	214.9	341.2	126.3	317	102.1
	31~35세	232.5	353.2	120.7	326.5	94
학력별	고졸 미만	183.0	366.3	183.3	316.7	133.7
	고졸	185.1	332.8	147.7	326	140.9
	전문대졸	196.3	312.2	115.9	299.1	102.8
	4년제 대학졸	218.3	340.6	122.3	318.3	100
	대학원졸업 이상	234.5	353.8	119.3	287.5	53

※ 경인권의 대졸자 월 평균 임금은 2010년 182만 원에서 2014년 205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3. 청년 취업 경로 분석

#### □ 채용 정보 획득 경로

- 미취업자의 채용 정보 획득의 주요 경로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 (42.8%)가 가장 많은데, ‘고졸미만’ 취업자와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 및 ‘교육’ 전공 미취업자는 ‘학교’ (33.3%)가 가장 많고, ‘고졸미만’ 4명은 ‘지인’ 을 제외한 전 유형을 고르게 활용하였음
- 2순위의 주요 정보획득 경로는 ‘지인’, ‘학교’, ‘취업정보센터’ 등인데,

- ‘취업정보센터’의 주 이용자는 ‘대학원 졸업 이상’ 미취업자(22.2%) 등임
- ‘31~35세’ 연령대는 ‘학교’를 2순위로 이용하였는데, 미취업자 중에서는 ‘여성’, ‘20~25세’, ‘고졸’ 학력자 및 ‘인문사회’, ‘교육’, ‘예체능’ 전공자 등이고, 취업자는 ‘4년제 대학 졸업’ (20.0%), ‘자연과학’ (23.1%), ‘보건의료’ (22.9%) 전공자임
- ‘취업정보센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은 ‘교육’, ‘예체능’ 전공계열과 ‘31~35세’ (15.8%) 미취업자 및 취업자 중 ‘여성’ (9.4%), ‘4년제 졸업’ (10.0%), ‘대학원 졸업’ (14.3%), ‘자연과학’ (12.3%) 전공 계열로 나타남
- ‘취업 박람회’ 이용률이 ‘취업정보센터’ 보다 높은 취업자는 ‘남성’ (10.2%), ‘20~25세’ (9.7%), ‘4년제 대학 졸업’ (10.0%), ‘공학’ 전공자(10.8%) 등임

## □ 취업 준비

- (취업준비활동) 취업의 준비 활동은 대부분 ‘외국어 학습’이 가장 많았는데, ‘숙박 및 요식업’과 ‘사회복지교육업’ 취업 희망자는 ‘자격증 취득’, ‘기타’ 분야의 취업 희망자는 ‘외모관리’ (18.5%)가 가장 많았음
- (취업 소요 기간)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취업까지 소요기간은 2015년 통계청 발표 대비 ‘3개월 미만’과 1년 이상의 비중이 감소하고, 3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이 증가하여 다소 단축되었음
  - 응답 청년의 구직 또는 취업 소요기간은 전 유형별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데,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나, 취업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6-7. 안산시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단위: 천명, 명, %)

구분	3개월 미만		3~6개월		6개월 ~1년		1~2년		2~3년		3년 이상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1년 (천명)	2073	52.4%	560	14.1%	362	9.1%	412	10.4%	195	4.9%	357	9.0%
2015년 (천명)	1,987	51.5%	507	13.1%	347	9.0%	447	11.6%	242	6.3%	329	8.5%
2016년 조사(명)	378	57.7%	128	19.5%	71	10.8%	31	4.7%	35	5.3%	12	1.8%
취업자	315	63.0%	86	17.2%	46	9.2%	14	2.8%	30	6.0%	9	1.8%
미취업자	63	40.6%	42	27.1%	25	16.1%	17	11.0%	5	3.2%	3	1.9%

자료 : 통계청, 청년층 및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각 연도 5월 기준)

## 1.4. 청년 취업 요구분석

### □ 취업 조건

- 취업의 고려조건으로 미취업자는 ‘적성’ (저연령층)과 ‘고용안정’ (고연령층)을 중시하는데 비해, 취업자는 ‘수입’ 과 ‘근로조건’ 을 중시함
  - 미취업자의 취업 우선 조건은 ‘적성’ (22.4%)인데 비해, 취업자는 ‘수입’ (25.2%)이고, 2위는 모두 ‘근로조건’ (20.5%, 21.5%)으로 3개 요인에 집중됨
  - 그 뒤로 미취업자의 고려조건은 ‘고용안정’ (20.1%), ‘장래성’ (12.7%), ‘사회적 안정’ (2.8%)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자는 ‘장래성’ (12.4%), ‘고용안정’ (12.3%), ‘근로강도’ (6.3%), ‘사회적 안정’ (1.8%) 순으로 ‘근로강도’ 를 상대적으로 중시함
  - 미취업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입’, ‘근로조건’, ‘근로강도’ 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고용안정’ 과 ‘장래성’ 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비해, 취업자는 ‘수입’ 이 우선시되고 일부 유형에서 ‘근로조건’, ‘적성’ 등을 중요시함

### □ 전공과 취업 연계성

- (전공지식의 취업 도움정도) 취업 또는 취업 후 업무활용에 대한 전공 지식의 도움 정도는 긍정의견과 평점 기준으로 미취업자(55.2%, 3.46점)가 취업자(42.0%, 3.14점) 보다 높았고,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 및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공분야 취업희망도가 높을수록 도움정도에 대한 긍정률이 높았음
- (전공분야 취업 희망 정도) 미취업자의 전공 분야 취업 희망 정도는 평점 3.9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교육’ 과 ‘예체능’ 전공자는 전공 연계 취업 희망도에 ‘매우 높음’ 이 가장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전공지식의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연계 희망 정도가 높음

### □ 애로사항

- (구직시 애로사항) 미취업자가 구직 시 느끼는 어려움은 ‘원하는 기업·분

야 취업의 어려움' (24.4%)이 가장 높은데, 일부 유형은 '정규직 일자리 부족' (19.0%)이 가장 높음

- 2위인 '사회적 편견·차별(학벌, 스펙 등)(19.3%)은 유형별 1위 요인으로 도출되지는 않아 부수적인 요인으로 해석됨
- '정규직 일자리 부족' 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느끼고 있는 유형은 '31~35세' (26.5%), '고졸미만' (33.3%), '대학원졸업 이상' (37.5%), '교육' 전공(34.8%)임

○ (취업 애로사항) 안산시 청년이 느끼는 취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미취업자와 구직 미활동자의 경우 '채용인원감소' (32.1%), 취업자와 구직 활동자는 '일자리미스매치' (36.6%)로 집중되어 '일자리 미스매치' 는 취업 접점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남

- 취업자의 가장 큰 취업 애로사항은 전 유형에 걸쳐 '일자리 미스매치' (35.2%)가 대부분이었는데, '교육' 전공자와 '고졸미만' 학력자는 '청년일자리 지원정책 부재' (38.9%, 66.7%)라고 느낌
- 미취업자의 최고 애로사항은 '채용인원 감소' (32.1%)였는데, 특히 '남성', '31~35세',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 '보건의료' 와 '예체능' 전공에서 높은 비중을 보임
- 구직 활동자는 '일자리 미스매치' (35.0%), 구직 미활동자는 '채용인원 감소' (33.3%)가 가장 높았음

○ (직장 애로사항) 취업 청년이 직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적은 월급·수익' (29.0%)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 (38.5%), '안산시 외 근무자' (34.0%) 등에서 높았고, 일·근무지 만족도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 의 경우 '고용(사업) 불안정' (34.6%)이 가장 높았음

- 취업 청년이 직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적은 월급·수익' 과 '어려움 없음' 이 각각 29.0%씩으로 가장 많음
- '적은 월급·수익' 의 애로사항을 1순위로 느끼는 유형은 '20~25세' (29.4%), '31~35세' (26.6%), '고졸' (35.4%), '전문대 졸업' (25.5%), '대학원 졸업 이상' (38.5%), '공학' 전공자(30.3%), '안



산시 외 근무자’ (34.0%), ‘판매, 영업 서비스업’ (32.3%), ‘사무관리 전문직’ (29.0%) 업종 근로자에 해당됨

- 특히 일·근무지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 ‘적은 월급·수익’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이 증가함
- (직무 애로사항) 취업 청년의 직무 애로사항은 전반적으로 ‘없음’이 가장 많았는데, ‘생산·기능·노무직’ 업종 근로자와 업무 또는 근로지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직무에 대한 비전 없음’을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음

## □ 만족도

- (만족도) 취업자의 업무 만족도에 대한 긍정 의견은 52.2%, 근무지에 대한 긍정 의견은 48.6%이고 유형별 대부분 ‘보통’ (32.6%, 34.2%)이 가장 많았으나,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 ‘교육’ 전공계열 및 ‘농림수산업’, ‘자영업’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업무 만족도)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와 ‘교육’ 전공자 및 ‘농림수산업’,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업무 만족도가 ‘매우 높음’이 가장 많고, ‘인문사회’, ‘자연과학’ 전공자 등은 ‘높음’이 가장 많음
  - (근무지 만족도) ‘교육’ 전공자, ‘농림수산업’과 ‘자영업’ 근로자는 ‘매우 만족’이 52.9%, 40.0%, 38.5%으로 가장 높고, ‘대학원 졸업 이상’, ‘개인사업자’는 ‘만족’과 ‘매우만족’의 비중인 긍정의견이 69.3%, 82.1%로 매우 높음
- (이직계획) 취업 청년 전 유형별로 이직 계획은 ‘없음’ (58.8%)이 대부분인데, ‘보건의료’ 전공자와 ‘일용직’, ‘계약직’은 이직 계획을 보유한 비중이 51.4%, 50.6%, 50.0%로 다소 높은 편이며, 업무 및 근무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계획 보유 비중이 73.9%까지 발생되고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 취업자의 일과 생활의 인식

- 취업 청년의 일과 생활의 균형도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의견이 28%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업무와 근무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데 ‘교육’ 전공자의 긍정의견은 64.7%로 매우 높음

- 취업자의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35.6%), ‘낮음’ (25.4%) 등의 순인데, ‘자영업’ 과 ‘생산·기능·노무직’ 은 ‘낮음’ 이 34.6%, 35.4%로 가장 많고, 업무 및 근무지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업무와 생활 균형도가 큰 폭으로 낮아짐
- 반면 만족도가 ‘높음’ 이 가장 많은 유형은 ‘31~35세’ (34.2%), ‘대학원 졸업 이상’ (46.2%)이고, ‘교육’ 전공자는 ‘높음’ (52.9%), ‘매우 높음’ (11.8%)이 상대적으로 많음

## □ 지원 필요 분야

- (취업준비 활동 분야)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주요 활동 분야는 ‘외국어학습’ 이 가장 많고, ‘30~35세’, ‘전문대 졸업’ 및 ‘보건의료’, ‘교육’, ‘예체능’ 전공자는 ‘자격증 취득’ 이 가장 많았음
  - 취업 준비 활동은 ‘외국어 학습’ (20.0%), ‘자격증취득’ (17.9%), ‘IT·컴퓨터 교육’ (11.2%), ‘외모관리’ (10.5%), ‘구직사이트 등록’ (9.7%), ‘현장실습’ (8.9%), ‘취업박람회 참여’ (6.7%), ‘지인 부탁’ (6.0%), ‘면접훈련’ (4.6%) 등의 순으로 고르게 분포함
  - 취업 준비를 위하여 주로 ‘외국어 학습’ 에 중점하는 유형은 30세 이하, ‘고졸’,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및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전공자로 나타남
- (취업준비 관심 분야) 미취업자가 취업 준비를 위해 관심을 갖는 정보로는 ‘직무 분야별 정보’ (24.3%), ‘기업 정보’ (23.1%), ‘스펙’ (21.4%) 3개 분야에 68.8% 집중되는데, ‘건설업’ 취업 희망자는 ‘기업정보’ (27.1%), ‘사회복지 교육업’ 취업 희망자는 ‘스펙’ (26.5%), ‘예체능’ 및 창업희망자는 ‘직무관련 경험’ (24.0%, 24.2%)로 나타남
  - 그 뒤로 ‘직무관련 경험’ (11.6%), ‘합격자 후기’ (8.4%), ‘면접합격전략’ (8.0%), ‘적성과약’ (3.2%) 등의 순임
- (지원 필요 분야) ‘취업(창업) 관련 상세 정보’ (28.4%), ‘공공근로 인턴 등 일자리 제공’ (21.7%), ‘직업 훈련 및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20.9%), ‘취

업(창업) 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 (1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 지원' (6.0%),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공감 프로그램 지원' (3.1%) 등은 10% 미만의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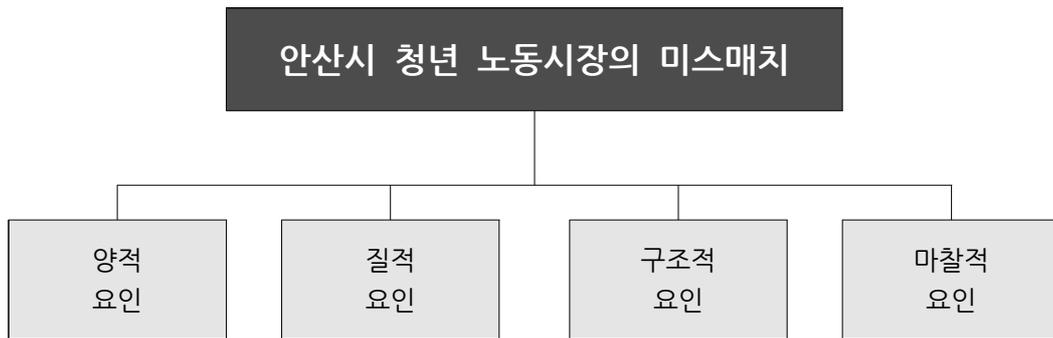
#### □ 중소기업 취업 촉진 요구 사항

- 중소기업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사항은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임금·복지 수준 향상' (41.2%, 40.1%),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28.5%씩), '우량중소기업 발굴 홍보' (10.2%, 8.9%) 등의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그 뒤로 '구직자 취업 장려수당' (7.3%씩), '대기업으로 전직 가능성' (6.3%, 7.3%), '중소기업 인건비 보조' (6.2%, 6.9%) 등이 10% 이내 고르게 분포함

## 2. 미스매치(Mismatch)<sup>22)</sup> 현황

- 안산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유발하는 복합적 요소를 그 원인에 따라 ‘양적 원인’, ‘질적 원인’, ‘구조적 원인’, ‘마찰적 원인’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각 요인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향 제시

표 6-8. 안산시 노동시장 미스매치 요인분석



### 2.1. 양적 미스매치

- 안산시의 총량적인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간의 불일치로가 주요 요인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성장 동력의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지 청년노동시장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음

#### 2.1.1. 발생원인 및 현황

##### □ 구인 구직의 불균형 및 실업률 증가

- ‘16년 안산시의 고용률은 59.7%로 전국 평균 41.5%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산시의 실업률은 ’13년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여 2016년 상반기 4.4% (16.4천명)을 기록
- 경기도의 2015년 구인 인구는 약 768천명으로 구직 희망 인구 (약 1,326천명)의 약 57.9%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2) 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측면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되나 자연스러운 수준을 크게 벗어났을 때에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연결됨

### □ 취업 분야의 수요공급 차이

- 안산시 일자리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이 사업체수의 55.5%, 종사자 수의 60.6%로 가장 많은데 비해, ‘도·소매업’ 과 ‘숙박음식업’ 은 미취업자의 가장 비선호 분야로 도출되어 업종별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보임
  - 미취업자의 최고 취업 희망 분야는 남녀, 전 연령대별 ‘공공행정 서비스업’ (25.3%)인데, ‘전문대 졸업’ 학력자는 ‘금융 및 서비스업’, ‘보건의료’ 와 ‘교육’ 전공 계열은 ‘사회복지, 교육업’ (18.1%)의 선호도가 가장 높음
  - ‘건설업’ 희망자는 5.9%인데 ‘고졸미만’ 학력 미취업자의 33.3%가 희망하고, ‘제조업’ 희망자는 10.5%인데 ‘공학’ 전공자의 희망도가 26.1%로 가장 높음

### □ 신규인력의 고령화 현상 심화

- 전국 청년층은 2020년 6,802천 명(13.3%)에서 2060년 3,595천 명(8.2%)로 감소할 전망으로 청년층의 고용 수요는 증가하나, 적극적인 취업 노력은 줄어들 전망이다
  -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청년층의 수요가 큰 산업의 일자리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안산시 또한, 청년층은 줄고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어 안산시의 주요 산업인 광공업 분야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음

표 6-9. 안산시 일자리 창출 중점사업

구분		내용
정부부문	직접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고용서비스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안산일자리센터) 내일 찾는 희망 일 드림 운영
	창업지원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
	일자리인프라구축	안산시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
민간부문	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	기업 등 유치 신설 및 확장
	기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자료: 안산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15년도 안산시 일자리대책 추진실적”(2016.4),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16년도 안산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2016.3)

## □ 안산시 청년층 비경제 활동인구

- 안산시의 청년층 비경제 활동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이는 전체적인 청년층의 감소와 높아지는 교육수준에 의한 것임
  - 안산시의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는 2011년 106.5천 명에서 2015년 88.6천 명으로 감소하였음
  - '16년 안산시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미취업 경제활동 가능인구 중 약 69%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 안산시 청년층 수도권 유출

- 안산시의 청년 일자리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수도권으로의 청년 노동력의 이탈 현상이 발생
  - '16년 안산시 청년일자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산시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68.8%, 안산시 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31.2%의 비중을 보였으며, 안산시 외 근로자의 대다수는 서울로 출퇴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취업을 위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비중은 14.1%로 유입보다 유출이 2.22배 높게 나타남

### 2.1.2. 개선 요구방향

- 안산시의 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 발굴,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산업 정책 차원의 다각적 노력 필요

## 2.2. 질적 미스매치

- 안산시의 취업자 및 취업준비자는 대기업, 공공기관의 취업 및 고학력을 요구하는 산업유형의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경제 침체로 인하여 대기업을 비롯하여 양질의 일자리의 공급이 감소

## 2.2.1. 발생원인 및 현황

### □ 근로조건 개선

- 안산시의 주요 일자리 공급 주체인 제조 및 생산직 유형의 중소기업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이 구직자의 요구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34개 회원국 평균(1,766 시간)보단 347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6년 안산시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의 근무시간이 주당 약 50.1시간으로 가장 많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6세에서 30세 사이의 근로자는 법정 노동시간(40시간/주) 보다 9.5시간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산시의 청년 구직자의 개인의 문화·여가생활의 영위 및 교통편의 요구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 시키고 주변 수도권으로의 노동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음
  - ‘16년 안산시 청년실태조사 결과 취업 시 최우선 고려조건으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적성(22.4%)을, 취업자는 수입(25.2%)을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고용안정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산시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약 40.7%가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계약직 및 임시직의 근로자들 약 50%가 이직을 계획하고 있음
  - 직장생활의 애로사항은 적은수익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열악한 근무환경 및 노동강도가 두 번째로 높은 13.6%에 달함
  - 일에 대한 만족도(42.12%) 및 근무지의 만족도(52.85%)가 낮을수록 월급과 근무환경에 애로사항이 많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가 가장 원하는 최소 희망 급여 수준은 ‘300~400만원 미만’ (39.4%)이 가장 많았으나 조사결과 정규직의 경구 약 130만원, 일용직 및 임시직의 경우 약 185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청년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일자리 정책

- 기존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동떨어진 일자리들을 만드는데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임
- 청년일자리정책을 통해 정부가 만든 일자리의 대부분은 임금이나 노동환경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질의 일자리와 먼 일자리들이었음
  -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만든 공공부문 청년고용 정책을 통한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 등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었음
- 공공부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들과 기업을 연계시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청년인턴제의 경우 역시 청년들을 원하는 일자리로 이어주기보다는 당장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로 청년들을 진입시키는 정책이었음
  -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57%가 150만 원 이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120만 원 이하 일자리가 22%나 됐고, 최저임금(월 평균급여1,015,740원)만 주는 사업장도 453개로 전체의 2.3%나 되었음. 또한 이렇게 약정한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대부분 그대로였음
- 또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제시했던 일자리들은 여유라든가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외한 다른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바람과도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들이었음
-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함.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될 경우 단기적인 청년층 고용지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은 다시 노동시장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 촉진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일 것임



## 2.2.2. 개선 요구방향

- 청년층 유형별 특성에 기반한 1:1 진로상담, 매칭사업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임금, 근로 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의 지원
-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 안산시 산업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정책 수립
- 양질의 서비스 산업 육성, 임금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강소기업의 발굴과 홍보 등이 복합적 솔루션 제시를 통한 직질 미스매치 해소가 필요

## 2.3. 구조적 미스매치

### 2.3.1. 발생원인 및 현황

- 기업의 생존과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변화의 급속한 진행과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 취업자의 의식과 교육 훈련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기업체는 기술변화를 주도하는 공학계열 졸업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인문계열의 고등교육자(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전공계열별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음
  - ‘16년 안산시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20세~25세의 구직활동 중단 사유 중 ‘개인역량 부족’이 2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분야를 활용하여 취직을 원하는 응답자가 65.9%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교육’ 과 ‘예체능’ 전공의 경우와 고학력 취업 희망자의 경우 전공의 활용한 취업을 요구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6년 안산시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취업자 중 전공과 관련 적은 분야에 근무하는 취업자는 ‘자연과학’ 을 전공한 응답자 60%가, ‘인문·사회’ 53.4%, ‘예체능’ 전공자 65%가 전공수료와 취업 분야가 미스매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2.3.2. 개선 요구방향

- 교육훈련제도를 개혁하여 기술변화와 환경 변화를 선도하거나 적응해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중등교육과 직업훈련,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산업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체계를 개혁하고, 대학 전공계열별 정원도 산업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조정
- 일학습 병행제,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과 교육훈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NCS에 기반을 둔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혁 등은 구조적 대안이 필요

## 2.4. 마찰적 미스매치

### 2.4.1. 발생원인 및 현황

- 구직자와 구인자가 기대하는 정보가 크게 다를 경우 구직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마찰적 실업이 발생
  - 실태조사 결과 취업자(46.7%)와 미취업자(42.8%) 모두 인터넷 구직사이트의 활용을 통한 취업정보 획득이 가장 많았음
  - 안산 일자리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사람은 55.2%였으나 참여한 사람은 11.2%로 매우 저조하였으며, 이중 청년큐브로 3.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3.59점, 919취업박람회 3.58점 순으로 나타남
  - 미취업자의 취업을 위한 주요 활동 중 30세 이하의 취업준비자는 외국어 학습(20%)을 30세 이상의 특수직 관련 취업자는 자격증취득(17.9%)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2.4.2. 개선 요구방향

- 정보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률 감소를 위해 노동시장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노동 시장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고용정보제공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상호 이해, 교류의 장 확충
- 잠재 구직자의 미스매치 시행착오의 감소를 위한 학교, 대학 등의 현실적인 진로지도 활성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 앞으로 직업세계관과 필요 직업 역량의 변화에 대한 정확 정보제공을 통해 능력중심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안산시의 구인시장의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완화

### 3. 안산시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3.1. 청년인구의 감소에 대비한 역외 유출의 제어

##### □ 청년층 역외 유출에 대한 대비

- 안산시는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인구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산시는 현재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일자리 원스톱서비스(안산일자리센터)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정책과 민간부문에서는 지역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청년층이 안산시 내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정책 등의 고려 또한 필요할 것임

#### 3.2.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지역 내 인력수급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 □ 청년고용 정책부서 신설

-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중복되지 않는 안산시의 고용환경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정책 추진을 위해 안산시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
  - 안산시 일자리 정책과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자리정책과의 불필요한 중복이 없는 효율적인 안산시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 구 단위 청년일자리 정책 부서, 민간기업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 인력수급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단기 정책이 아닌 민간수요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청년 노동수요 창출 도모



### 3.3. 청년 일 생태계 조성

#### □ 청년 일꾼 양성 및 자립적인 일 생태계 조성

- 청년근로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임시직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현장교육, 신고·상담, 분쟁조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현장 실행기구를 만들고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및 전문인력·활동인력 배치
- 청년 소셜네트워크 공간 구비: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 자존감 상승과 관계망 형성. 자기문제 해결에서 출발하는 대안적 사회안전망 모델 창출
- 청년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액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의 신용 회복 및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직접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 3.4.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안산시의 장점 활용과 산업우위 확보

#### □ 청년층 고용의 수도권 집중현상

-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안산시가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에 취업하는 추세임
  - 안산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 지역의 청년 취업자의 수는 2015년 전년대비 약 40,000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
  - 취업자의 비중 또한 경기도가 2015년 현재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안산시 로서는 청년 취업의 청신호로 판단됨
- 그러나 부가적으로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을 통해 청년층의 지속적 고용증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따름

#### □ 수도권에 위치한 안산시의 장점 최대한 활용

- 안산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청년층의 역외 유출의 부담

은 적은 편이나 이러한 장점을 지키기 위한 안산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산시는 전통적으로 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임. 그러나 청년층, 특히 대졸자들이 광공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의지는 크지 않음
- 따라서, 안산시는 산업구조의 개편 등을 통해 청년층의 선호에 맞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 □ 산업구조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의 확대

- 안산시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는 안산산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전략 수립, 정책지원, 전략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산업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전문적 조직의 설립과 더불어 안산시 전반과 경제적 흐름의 분석 등을 통해서 안산시의 현재와 미래 산업을 계획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행정부 차원의 조직 설립(현재의 일자리정책과보다 상위)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중장기적 산업구조 개편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3.5. 여성 청년층 취업자 증가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

#### □ 안산시 청년층 취업자 및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중의 증가

- 안산시의 청년층의 취업 비중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안산시의 청년층의 취업자는 2013년 53.0천 명에서 2015년 60.3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음 (2013년 16.3%에서 2015년 17.5%로 증가)
  - 따라서 청년층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산시의 경우 남성 청년층 보다 여성 청년층의 취업이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청년층 취업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남성 보다 여성 청년층의 취업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 남성 청년층의 경우 2013년 취업자 수가 24.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7%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그 비중이 8.0%로 줄어듦
- 반면 청년층 여성의 경우 2013년 취업자 수가 24.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6%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32.8천 명 9.4%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 여성 청년층을 타겟팅한 일자리 정책 필요

- 여성 청년층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안산시도 여성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여성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과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안산시의 산업구조가 광공업 중심인 점을 고려하여 남성 청년층의 적극적 취업에 대한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임
  - 안산시는 전통적으로 광공업을 중심으로 여성 청년층에 과도한 타겟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 따라서 남성과 여성 청년층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현재의 산업구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을 통해 여성 청년층의 적극적 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3.6. 안산시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의 취업으로의 적극적 유도

#### □ 비경제활동 인구의 적극적 취업 유도

- 따라서 안산시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
  - 안산시는 산학협력 등을 통해 대학졸업이후 청년층이 바로 취업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안산시 권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안산시 산업의 장점, 안산시의 취업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임
- 성과가 미미한 기존의 정책들을 개선, 발전시키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청년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와 같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3.7. 청년 취업행태를 고려한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 □ 청년층 평균 취업 기간의 증가

- 전국적으로 청년층이 졸업이나 중퇴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반면 1-3년 사이에 취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청년층의 졸업이나 중퇴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비중은 2011년 52.4%에서 2015년 51.5%로 감소하였음
  - 반면 1-2년 사이 혹은 2-3년 사이에 취업하는 청년의 비중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각각 10.4%에서 11.6%로, 4.9%에서 6.3%로 크게 증가하였음

#### □ 청년층 취업 행태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

-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청년층이 졸업이나 중퇴 후 즉각적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안산시는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즉, 청년층이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인턴제 등의 사전 경험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산시는 2015년 10월 1사 1+ 청년희망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 협업·협력을 통한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희망인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제도화된 안정적 일자리 제공
  - 민간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뿐만 아니라, 안산시 관내의 기업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통한 청년 고용확대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안산시의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 홍보 병행 필요
  - 또한, 안산시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청년층이 안산시에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 청년의 눈높이에서 본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및 추진
  - 소득수준 향상 뿐 아니라 노동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
  -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을 통해 비경제활동 청년인구의 경제활동 도모
- 안산시의 청년고용 전담부서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 수렴하고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 3.8. 쾌적한 근로환경 개선

#### □ 소규모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 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및 SOS 시스템 운영

#### □ 안산 반원국가산업단지 환경 개선

- 환경 친화적 지역 개발,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생태산업 단지(Eco-Industrial Park)로의 전환 필요
-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더불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입주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
- 안산시 산업단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제품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도모

#### □ 여가문화 인프라 조성

- 도시 내 근로자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목원, 삼림욕장 및 치유의 숲 등 녹색환경 조성

### 3.9.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와 홍보

#### □ 청년층 창업 및 벤처기업 창업의 둔화

- 전국적으로 청년층이 기업을 설립하는 수는 둔화되고 있음
  - 2011년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의 수는 2,823개에서 2015년 4,986개로 전체 창업 기업 수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중 면에서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임
- 전국적으로 청년층의 벤처기업 창업이 둔화됨
  -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우 또한 20대 청년층의 창업 비중이 매우 저조함
  - 2011년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창업한 벤처기업의 수는 290개에서 2015년 482개로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1% 내외에 그치고 있음

#### □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홍보

- 산업분야별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금 규모를 다르게 계획해 실질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을 구상하며, 창업 교육내용과 사후 네트워킹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 창업기업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부담 및 불확실성 등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병행
  - 현재 안산시는 “청년 창업 인규베이팅 사업”을 창업 등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에도 기여하고자 지역 내 공실상가를 활용

하여 창업공간(청년큐브) 제공,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안산시는 2015년 74회에 걸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하여왔으나 기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향후 확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정보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

표 6-10. 안산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구분		내용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5-2018
	지원대상	안산시 거주 39세 이하 청년 (팀)
	전담/협력기관	(재) 경기테크노파크 / 한양대·서울예대
	사업규모	청년큐브 2개소 30실 조성 및 운영
	지원내용	창업공간(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등),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사업비	24억원 (도: 19억, 시 5억)
기대효과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신규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상권 부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공동작업 및 교류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대	
추진실적	추진계획 수립 및 전담기관 선정, 공간 명칭결정(청년큐브 한양캠프, 예대캠프), 입주팀 선정 완료(2개소 30실 30명), 창업공간 임대, 청년큐브 조성공사, 입주설명회, 창업비전 세미나, 리모델링 준공 및 입주사업 운영 등	

자료: 안산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15년도 안산시 일자리대책 추진실적”(2016.4)

### 3.10.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와 홍보

#### □ 사업간 연계 기능 취약

- 기존의 정책들은 서로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하지만 청년일자리정책은 독립적으로 시행된 경우가 많음(여러 부서가 독립적으로 청년일자리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 안산시 산업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정책

- 기존 청년일자리정책에서는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음
-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일시적인 정부 정책에 의한 일자리가 아닌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3.11. 종합적인 청년 취업통계 DB 구축

- 안산시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정보의 제공으로 인적자원 수급관리 수행
- 구체성, 신뢰성, 최신성, 활용성 등에 근거한 청년고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안산시의 인적자원 수급관리의 정책적 필요에 능동적 대응
- 노동시장의 요구와 필요 인력의 적재적소 공급을 위한 전략 수립과 안산시의 현행 청년 고용촉진 정책의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제반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수집된 정보의 DB화를 구축하고 이를 다차원 분석하여 정보자원에 접근 가능한 취업자별 맞춤형 실시간 서비스 제공



## 참고문헌

- 안산시청, 안산시 통계연보, 2010,2011,2012,2013,2014,2015
- 안산시청, 안산시 사업체조사 보고서, 2010,2011,2012,2013,2014
- 통계청,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 2010,2011,2012,2013,2014,2015,2016
-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16
- 고용노동부, 2016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16
- 고용노동부, 2016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 2016
- 정석화, 청년창업지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지역 청년 일자리 성과창출 사례, 2016
- 이승렬, 2016년 청년 고용의 쟁점과 과제, 2016
- 경기도, 2016년 경기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2016
- 안산시, 2016년 안산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2016
- (재)전북테크노파크, 청년 창업 고용현황과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2015
- 경기도의회, 경기도 지역 청년 일자리 대책, 2015
- OECD, Stats, 2015
- 김동철, 지역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방안, 2015
- 새사연,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 2014
- 류장수, 청년인턴제의 성과분석, 2014
- 양정승,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 2013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2012
- 현대개발연구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정책 과제, 2012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정보 DB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2001





## 부록. 청년일자리 실태 조사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일련번호				
ID	0	1	-	

### 안산시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취업준비생, 취업자 포함) 대상으로 구직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안산시 청년일자리의 실태분석과 정책시사점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서 안산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취업경로, 청년일자리 정책 등 청년일자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이 안산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실시·관리 되므로 설문 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재)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 조사 주관기관 : (재) 경기테크노파크                      ◇ 조사 수행기관 : (주)윌드브릿지리더스  
 ◇ 연구원 책임자 : 송창식 책임연구원 (031-500-3092)      ◇ 실 사 연구원 : 박재민 선임연구원 (031-214-2044)

#### 기본사항

※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세)	혼인여부	①미혼 ②기혼
최종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전공계열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보건·의료 ⑤ 교육 ⑥ 예·체능 ⑦ 기타				

※ 응답자 거주지관련 사항

거주지	① 단원구 ② 상록구	상세지역	(동)
거주유형	① 월세 ②전세 ③ 자가 ④ 기타		
동거유형	① 혼자 거주 ② 부모님 ③ 형제·자매 ④ 친구·지인 ⑤ 기타		
주택유형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빌라(다세대·연립주택) ④ 원룸 ⑤ 오피스텔 ⑥ 고시원 ⑦ 기타		

**작성 기준**

Part I, II, III의 질문에 대하여 '5점척도'와 '선택(O,X)'에 대한 아래 작성기준을 참조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5점 척도	부정	①	②	③	④	⑤	긍정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	매우 중요		

선택	<b>X</b>	<b>0</b>
	아니오 / 없음 / 미 참여	예 / 있음 / 참여

**Part I. 생활실태**

**[ 설문 개요 ]**

다음은 거주사유, 생활비 및 비용지출, 건강 등 응답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5점척도 및 항목선택을 활용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문제 1.** 안산에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과거부터 계속 거주      ② 학업을 위해 이주      ③ 취업을 위해 이주  
 ④ 기타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문제 2.** 귀하께서 월 평균 사용하는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① 30만원 미만    ② 30~50만원 미만    ③ 50~70만원 미만    ④ 70~100만원 미만    ⑤ 100만원 이상  
\* 생활비범위: 식음료, 교통, 패션/미용, 가정생활, 의료/건강, 교육, 주거 등의 부문에 사용되는 비용 (예금, 적금, 청약 등을 제외한 순수 생활비 항목의 소요비용을 말함)
- 문제 3.** 다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비 항목은 무엇입니까?
- ① 식음료    ② 교통    ③ 패션/미용    ④ 가정/생활    ⑤ 의료/건강    ⑥ 교육    ⑦ 주거
- 문제 4.** 생활비 항목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 ① 없음    ② 10% 미만    ③ 10~20% 미만    ④ 20~30% 미만    ⑤ 30~40% 미만    ⑥ 40~50%미만    ⑦ 50% 이상
- 문제 5.**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 5점 척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Part II. 구직활동 현황**

**[ 설문 개요 ]**

다음은 귀하의 취업준비를 위한 사전활동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5점척도 및 항목선택을 활용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문제 6. 귀하는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 문제 6-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제 6-3으로 이동

문제 6-1. 귀하께서 실제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문제 6-2로 이동

 (개월)

※ 구직활동기간 1. 이직자: 마지막 일자리를 그만둔 시점부터의 기간  
2. 일자리 경험이 없는 경우: 최초 취업원서를 제출한 시점부터의 기간

문제 6-2. 귀하께서 취업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 문제 7로 이동

[안산시내 소재지 기업]		[안산시외 소재지 기업]	
취업원서 제출	면접 참여	취업원서 제출	면접 참여
(건)	(횟수)	(건)	(횟수)

문제 6-3. 귀하께서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제 7로 이동

- ① 더 좋은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② 개인의 기술 및 역량 부족    ③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④ 일하고 싶지 않아서    ⑤ 기타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문제 7. 귀하는 미 취업된 기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 ① 그동안 모아둔 돈(예금, 적금 등)    ② 실업급여 활용    ③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  
④ 형제, 자매 및 지인의 지원    ⑤ 금융기관 이용(카드, 대출 등)

문제 8. 귀하는 전공분야를 활용한 취업을 원하십니까? 5점 척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5점 척도 (점)

문제 9. 귀하는 어느 분야의 기업체에 취업을 희망하십니까? (2개 보기 선택)

 /

-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도·소매업    ④ 숙박 및 요식업  
⑤ 금융 및 서비스업    ⑥ 공공행정 서비스업    ⑦ 사회복지, 교육업    ⑧ 창업희망 → 문제 9-1로 이동  
⑨ 기타 ( 희망직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문제 9-1. 창업 시, 애로사항(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문제 10로 이동

- ① 창업 아이템 선정    ② 경영 및 운영 능력, 경험 부족    ③ 자금 조달, 지원 받기 어려움  
④ 창업 교육, 자금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⑤ 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 부족

문제 10. 취업 준비 또는 구직 시 귀하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2개 보기 선택)

 /

- ① 정규직 일자리 부족    ② 채용공고 및 정보의 부족  
③ 원하는 기업 또는 분야로의 취업이 어려움    ④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 부담  
⑤ 학벌, 과도한 스펙 등 사회적 편견과 심한 차별    ⑥ 취업 준비를 위한 공간 부족  
⑦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잘 모름    ⑦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잘 모름

문제 11. 귀하가 취업준비를 위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2개 보기 선택)  /

- ① 직무 분야별 정보(직무별 업무, 관련전공, 우대사항 등)      ② 기업정보(연봉, 자본, 매출, 복지, 기업특성 등)
- ③ 스펙(어학, 자격증, 경력 등)      ④ 직무관련경험(유관 경력, 공모전, 프로젝트, 대회 등)
- ⑤ 합격자 후기(자기소개서, 취업노하우 등)      ⑥ 면접 합격전략(면접복장, 면접 질문, 면접 후기 등)
- ⑥ 취업 준비를 위한 공간 부족      ⑦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잘 모름

문제 12. 다음의 항목 중, 귀하가 취업을 위해 경험하신 활동 항목에 대해 해당여부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취업을 위한 경험 활동	해당 여부 (선택)
1.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회화, 토익 등)	
2. 면접훈련 교육 수료	
3. IT, 컴퓨터 관련 교육 수료	
4. 공공취업알선기관 구직등록 및 상담	
5. 취업박람회 참여	
6. 구직정보를 민간취업알선 포털사이트에 등록 (사람인, 인크루트 등)	
7. 지인(친인척, 친구, 교수 등)에게 취업 부탁	
8. 자격증 취득	
9. 현장실습	
10. 외모관리	
11. 기타 ( <span style="font-size: small; color: gray;">준비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span> )	

※ "선택": "O" 또는 "X"로 응답

문제 13. 안산시는 다음과 같은 청년고용정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인지여부', '참여경험(참여유무 및 참여시 만족도)', '참여의향'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안산시 청년고용정책	인지여부 (선택)	참여경험		참여의향 (선택)
		유무 (선택)	만족도 (5점척도)	
1. 안산시 「919취업박람회」			(점)	
2. 목요일에 「희망잡(job)고(go)」			(점)	
3. 「청년큐브」			(점)	
4.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점)	
5. 안산시 일자리센터			(점)	

※ "선택": "O" 또는 "X"로 응답

※ "5점척도": 매우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만족(5점) 으로 응답

문제 14. 귀하는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안산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직업 훈련 및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② 취업(창업)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 제공
- ③ 취업(창업)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원      ④ 취업(창업)준비를 위한 공간 지원
- 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공감프로그램 지원      ⑥ 공공근로, 인턴 등 일자리 제공



